금주의 법구-〈법구경〉
세상에서 으뜸가는 재산은 믿음이다.
덕행을 쌓으면 행복이 찾아온다.
진실이야말로 맛 중의 맛이다.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459호 hyunbulnews.com (불기 2567년 음력 10월 3일) 2023년 11월 15일 수요일

상월결사 인도순례 감동 이젠 스크린으로 만난다

다큐 영화 '세계를 뒤흔든 43일'
7일 CGV파카디리서 언론시사회
1167km, 43일 여정 면면 담아
참가 스님들 솔직 인터뷰 '눈길'
11월 16일 전국 상영관서 개봉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진짜 죽을 수도 있겠다' 싶었다. 그래도 해내야 한다. 이것은 내 생의 마지막 기회다."

조계종 원로의원 동명 대종사가 눈물 머금고, 소회를 밝힌다. 그 소회는 자못 비장하다. 서울 성북구 전등사 회주로서 간화선 대중화에 평생을 매진한 종단 원로가 왜 이 같은 소회를 전하고 있는 걸까.

이는 지난 2월 9일부터 3월 23일까지 43일간 펼쳐진 상월결사 인도순례에 참가한 순례단원 동명 대종사의 영상 인터뷰 일부다. 43일, 1167km의 순례 여정 속 스님들의 절절한 구도열을 만날 수 있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공개됐다.

11월 7일 서울 종로 CGV피카디리에서는 상월결사 인도순례의 43일 여정을 담은 다큐 영화 '세계를 뒤흔든 43일'의 기자단 시사회가 열렸다. 이날 시사회에는 불교계 기자뿐 아니라 순례에 동참했던 순례단원들도 참석했다.

이번 영화는 KBS에서 부처님오신날 특집으로 상월결사 인도순례를 다룬 '부처님과 함께 걷다' 특집 다큐를 저본으로 한다. 다큐 '부처님과 함께 걷다'는 종교 관련 다큐로는 이례적으로 재방송을 할 정도로 호응이 좋았다. 하지만 50분 정도의 러닝타임으로는 상월결사 인도순례의 여정과 의미를 모두 담기엔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상월결사 인도순례에 참여한 이규철PD를 감독으로 새롭게 영상들을 편집해 다큐 영화로 제작하게 됐다. 순례에 동참한 BBS불교방송과 BTN불교TV에서 영상 협력이 이뤄져 영화의 질을 높였다. 영화의 러닝타임도 81분으로 대폭 늘어났다.

영화 '세계를 뒤흔든 43일'은 사르나트(녹야원) 입재식을 시작으로 보드가야-영축산-라즈기리-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쉬라바스티로 이어진 순례 여정을 따라간다. 그 여정에는 번잡한 내레이션이 없다. 오직 순례에 참가한 스님들의 숨소리와 현장 육성, 인터뷰가 다큐의 서사를 이끈다. 그러기에 순례의 순간순간의 진정성이 모두 드러난다.

실제 스님들의 인터뷰는 순례에 대한 의미와 소회부터 수행과 출가, 부모님 이야기 등 다양하게 이어진다. 삭발염의하고 먹물 옷과 가사장삼을 두른 엄숙한 수행자로만 인식됐던 스님들의 진솔한 모습들은 가슴 한편에 뭉클함을 자아내기도 한다.

'걷는다'는 행위는 어찌 보면 구도 여정이면서 우리네 인생이기도 하다. 한걸음 한걸음 지금 이 순간을 집중해 걷다보면 목표한 바에 도달하게 된다. 상월결사 인도순례도 마찬가지였다. 그 길의 끝에서 스님들이 얻어낸 사유의 결과들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준다.

"걸으면서 알게 된 것은 내 안에 보물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부처님이 알려주셨다. 이제는 이 길이 외롭지 않다."

"진정한 부처는 중생을 위해 길을 걷는 사람이다."

영화에서 보이는 깊은 사유를 담아낸 스님들의 인터뷰. 부처님 성지와 순례지의 수려한 풍광을 담아낸 수준 높은 영상들은 그 자체가 법문이다.

다큐 영화 '세계를 뒤흔든 43일'은 우리에게 왜 전법을 해야 하는지 메시지를 던진다. 불교가 탄생한 인도에서 이제는 쇠락해 흔적만 남아있는 상황에 스님들은 참회의 눈물을 흘린다. 그러면서도 순례단에 꽃비를 뿌리며 환영하고, 순례단 발에 입을 맞추며 예경하는 모습에 불법(佛法)의 종자가 남아있음을 확인한다. 그런 모습에 감읍한 순례단은 "우리가 조금만 다가가도 이들은 부처님 가르침을 만날 수 있었다"고 전법 의지를 다진다.

영화의 첫 머리, 샤르나트에서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은 21세기 전도선언을 발표한다. 그리고 회향의 자리에서 다시 자승 스님은 한국불교에 '전법'의 화두를 던진다.

"지장보살께서는 지옥중생을 다 제도하기 전까지는 성불을 다음 생으로 미룬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성불합시다' '성불하세요'를 다음생으로 미루고, 금생에는 '부처님 법 전합시다'로 살아갑시다."

'세계를 뒤흔든 43일'은 상월결사 인도순례 43일 대장정의 면면을 디테일하게 담아낸다. 이규철 감독이 가장 주안점을 둔 부분도 '진정성'이다. 순례대중의 구도 열정과 의미가 대중에게 온전히 다가갔으면 해서다.

이규철 감독은 "부처님이 걸었고, 스님들이 걷는 구도의 길을 각자의 스님들이 어떤 것을 추구하며 걸었는지 담아내려 했다"며 "순례 참가 스님들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결국에는 부처님의 길을 따라가는 구도자의 이야기로 귀결됐다. 이를 따라가면 관객들도 불교가 무엇이며, 왜 스님들이 걷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다큐 영화 '세계를 뒤흔든 43일'은 오는 11월 16일 전국 100여 개 극장에서 개봉한다.



4년 만에 만난 한중일 불교 지리적으로 가장 인접한 동북아시아 3국 불교계가 4년 만에 한국에서 만났다. 11월 7일 서울 봉은사에서 봉행된 제23차 한중일 불교우호교류회의 세계평화기원법회 현장. 3국 불교계의 황금 유대를 확인하며 모든 전쟁의 종식을 기원한 법석에는 각국을 대표하는 스님들이 다수 참가했다. 사진은 한국대표 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 진우 스님, 중국대표 중국불교협회장 연각 스님, 일본대표 일중한국제불교교류협의회 이사장 다케 가쿠쵸 스님을 선두로 각국 대표단이 봉은사에 들어서는 모습. 〈관련기사 2면〉 글 · 사진=윤호섭 기자

중앙승가대 역사로 남나…동국대와 통폐합 착수

11월 9일 이사회서 결의, 재정위기 극복 못해
승가기본교육기관 조정 일환
중승대 대책위, 5개월 간 회의
별다른 자구책 찾지 못해 결단

지속적인 출가자 감소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온 중앙승가대가 결국 별다른 자구책을 찾지 못한 채 동국대와의 통폐합 논의에 나선다. 승려전문교육기관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지방대학 소멸 위기를 보다 심각하게 겪으면서 법인과 학교 모두 힘든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동국대와의 협의과정은 남았지만 통폐합이 이뤄지면 1979년 중앙승가학원으로 문을 열어 2000여 명의 동문을 배출한 중앙승가대 역사는 막을 내리게 된다.

학교법인 승가학원(이사장 진우, 조계종 총무원장)은 11월 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비공개로 제134차 이사회를 열고, '학교법인 승가학원-학교법인 동국대학교 통폐합의 건'을 의결했다. 이 안건은 지난 5월 이사회가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중앙승가대 대책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약 5개월간 6차례의 회의 끝에 내놓은 결론이다.

이사장 진우 스님도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중앙승가대학 운영 등 중차대한 문제가 걸려 있어서 지혜로운 의견을 피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낮은 목소리로 말문을 떼며 사안의 심각성을 내비쳤다.

회의가 끝난 뒤 법인 사무처장 설암 스님은 기자들과 만나 해당 안건에 대해 간략하게 브리핑했다. 스님에 따르면 법인 통폐합은 사실상 조계종 교육원이 수년 전부터 제시한 승가기본교육기관 개편의 일환으로 현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교육원장으로 재직 당시도 해당 문제에 대한 많은 논의들이 있어왔다. 중앙승가대는 각 교구본사의 강원, 율원, 기본선원 등과의 통폐합을 우선적으로 검토했지만 동의를 얻기 힘들다는 판단에 동국대와의 통폐합으로 선회했다.

설암 스님은 "학교 운영을 위해 매년 조계종 교육원이 2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동문들의 후원을 받고 있지만 사찰경제가 축소돼 학교 재정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통폐합에 앞서 동국대의 입장도 확인해봐야 한다. 일단은 승가학원 측에서 통폐합에 잠정적으로 동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사회 안건 명칭은 통폐합이지만 재정위기를 극복하지 못한 만큼 사실상 중앙승가대가 동국대에 흡수되는 모양새를 띨 것으로 보인다. 동국대와 합의가 어떤 방향으로 이뤄질지는 예측할 수 없지만 승가학원은 중앙승가대가 불교인재를 양성하는 기관으로 존속되길 희망하고 있다.

설암 스님은 "통폐합이 이뤄지더라도 승가뿐 아니라 재가자를 위한 명상이나 종무학과 등으로 학제 폭을 넓혀 불교전문 교육기관이라는 설립이념이 유지됐으면 한다"며 "승가대 명칭만 바뀔 뿐 근본이념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고 부연했다.

동국대가 승가학원 제안을 받아들이더라도 통폐합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국대와 중앙승가대는 교육부 승인을 받은 4년제 사립대학으로 통폐합을 위해서는 교육부 승인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동북아 三國 불교도 "세계평화 기원"

제23차 한중일 불교우호교류회의 세계평화기원법회

코로나19 팬데믹에 순연되다
4년 만에 봉은사서 대회 봉행
韓中日 국가별 예불 · 축원도
진우 스님 "전도선언 새겨야"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4년 만에 재회한 한 · 중 · 일 3국 불교지도자들의 표정은 밝았다.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 다시 확인한 황금 유대가 뜻깊었을까. 한차례 비가 쏟아진 뒤 기온이 급격하게 낮아졌지만 지혜와 자비의 가르침으로 세계평화를 염원하는 법석의 열기는 뜨거웠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와 중국불교협회, 일중한국제불교교류협의회는 11월 7일 오전 서울 봉은사에서 제23차 한중일 불교우호교류회의 한국대회 세계평화기원법회를 봉행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순연되다 4년 만에 한자리에 모인 3국 불교지도자들. 그 사이 한국대표인 종단협 회장은 진우 스님으로 바뀌었지만 이들의 만남에 어색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3국 불교지도자들은 취타대의 행진을 따라 봉은사 진여문을 지나 대웅전 앞 특설무대에 자리했다. 각국 대표단을 맞이한 건 대회 개최지인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 스님은 3국 불교지도자들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천년고찰에서 함께하는 법석에 의미를 부여했다.

원명 스님은 환영사를 통해 "그동안 여러 차례 대회에서 동아시아 3국 불교도들이 일불제자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지역 평화 정착과 인류 화합에 기여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급변하는 시대에 어떻게 불법을 홍포할지 진지한 논의가 이뤄져 세 나라뿐 아니라 온 세상에 불교 중흥의 등불을 환하게 밝혀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회에선 3국 불교계가 각국의 전통방식으로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예불을 부처님전에 올렸다. 한국 측 의식은 조계종 어산어장 인묵 스님이 집전을 맡았다. 더불어 종단협 회장단과 중앙승가대 학인스님들이 함께 칠정례를 봉송했다. 축원은 종단협 부회장 상진 스님(태고종 총무원장)이 했다. 20분간의 예불이 끝난 뒤 종단협 회장 진우 스님은 세계평화기원 메시지를 통해 3국 불교계의 변함없는 우정과 동체대비 정신을 강조했다.


11월 7일 봉은사에서 봉행된 제23차 한중일 불교우호교류회의 세계평화기원법회에서 3국 대표 스님들이 부처님전에 헌화한 뒤 합장례를 하고 있다.

진우 스님은 "지금 지구촌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혼란스럽다. 빈곤, 기아, 폭력, 불평등, 양극화 등으로 국제사회는 심각한 갈등과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평화는 탐욕과 분노를 씻어야만 가능하다.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는, 나와 사회가 둘이 아니라는 인과의 이치를 깨달을 때 비로소 평화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3국 불교도들이 먼저 이 세상을 자비로 채워나가자. 부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밝히자"면서 "그러기 위해 우리는 부처님께서 설하신 전도선언을 새겨야 한다. 전도선언을 최우선 목표로 전법과 포교활동에 매진해 부처님 법을 전하자"고 당부했다.

한국에 이어 중국과 일본도 각각 의식을 진행했다. 중국불교협회장 연각 스님과 일중한국제불교교류협의회장 이토 유이신 스님은 '공생'의 가치에 공감하며 연대의 뜻을 밝혔다. 먼저 연각 스님은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중생은 동체공생하고 있으며 인류사회는 상호의존하고 있다"며 "새로운 시대에 불교도로서 부처님 가르침을 더욱 받들고 황금 유대 관계를 계승해 인류 행복, 세계평화 구축에 기여하자"고 말했다.

90세가 넘는 고령의 이토 유이신 스님은 대회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일본정토종 종무임원 미야바야시 유겐 스님이 대독한 메시지를 통해 "불교에는 보살의 서원이 있다. 다들 알고 계시는 사홍서원"이라며 "인간세계는 다양한 관계를 유지해 생존하고 있다. 우리는 인간 생명의 문제를 염두에 두고 여러 과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법회가 끝난 뒤에는 봉은사 종각 앞에서 3국 회장단과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이 기념식수를 하며 3국의 끈끈한 유대를 재확인했다. 이어 오후에 서울 코엑스호텔 하모니볼룸에서 '4차 산업시대 불법홍포를 위한 3국 불교도의 역할'을 주제로 학술강연회를 연 3국 불교계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기후위기 극복과 전쟁 종식 등을 위한 국제적 연대 강화에 뜻을 모았다. 3국 불교계는 "4차 산업의 발달은 자칫 인류의 가치관 및 윤리 혼란과 직업 붕괴 등 폐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3국은 이를 불교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대비해야 한다"며 "인간과 자연이 일체라는 화엄사상의 '상입상즉(相入相卽)' 가르침을 깊이 새겨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3국은 공동선언을 통해 △'일즉다 다즉일'의 진리에 따라 서로 화합하여 하나가 됨으로써 조화와 평화의 세계 이룩 △불법의 진리와 생활 속 수행으로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 제시 △불살생 가르침에 따라 어떠한 전쟁도 반대하며 모두가 공생하는 지구촌 건설에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사찰 활성화, '관계신도' 확대에 달렸다"

김재춘 소장, 사찰 특성화 연구 매뉴얼 개발

조계종 미래본부 결과보고회
벤치마킹할만한 사찰 소개도

일본의 시민활동가 다카하시 히로유키가 2016년 저서 〈도시와 지방을 뒤섞다〉에서 처음 제시한 개념 '관계인구'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로 위기에 처한 사찰을 구할 수 있는 방안으로 떠올랐다. 관계인구는 지역 거주자는 아니지만 해당 지역과 일정한 관계를 맺는 사람들을 말한다. 몇 년 전부터 일본이 시행 중인 관계인구 정책 개념이 한국 불교에도 필요하다는 것.

김재춘 가치혼합경영연구소장은 11월 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열린 '사찰 특성화 방안 연구 및 운영 매뉴얼 개발' 결과 보고회에서 이 같은 관계인구에 대응하는 '관계신도' 개념을 강조했다. 일반적인 신도의 개념이 재적사찰에서 신행 · 수행을 하며 정기적으로 법회나 불사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관계신도는 단순히 불교가 좋아서 또는 쉬어가고 싶어서, 산사음악회가 궁금해 절에 찾아가보는 가볍게 인연을 맺는 사람들을 뜻한다.

김재춘 소장은 "귀촌이나 귀농한 사람들의 인터뷰를 보면 그 지역에 관광을 왔던 경험이 있거나 친척이 사는 등 어떤 식으로든 작은 인연을 맺은 사람들이라는 게 확인된다"며 "꼭 불교를 믿고 따르고 깨달음을 추구하기보다는 어떤 내용으로라도 인연이 되는 가벼운 관계의 신도가 앞으로 더욱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조계종 미래본부의 연구용역으로 매뉴얼 개발에 착수한 김 소장은 1인 이상 상주하는 스님과 사무장, 공양주를 두고 신도회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법회를 운영하는 사찰을 활성화 대상으로 정했다. 사실상 독살이 사찰은 활성화 여력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조계종 미래본부 결과보고회에서 관계신도의 중요성을 설명한 김재춘 소장.

김 소장은 활성화 전략으로 △탈종교적 유연성과 확장성(관계신도 증대) △사찰별 특성화 유형 분류로 세분화 및 전문화 △종단의 지원 체계 구축을 꼽았다. 더불어 사찰 특성화 유형은 수행 · 명상, 상담 · 휴식, 불교문화, 문화 · 예술 · 체육, 복지 · 나눔, 교육, 환경, 경제, 공동체 총 9가지로 분류했다.

이를 위해선 성공 요인 분석을 비롯해 기초 · 고도화로 구분된 매뉴얼, 유형별 전문 교육체계, 학습 커뮤니티 운용, 전문사찰 인증 제도, 사찰 활성화 기금 조성 등 종단차원의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김 소장은 연구과정에서 벤치마킹할 만한 전국 4개 사찰 사례를 조사했다. 수행 · 명상 부문은 부산 미타선원 행복선명상센터, 상담 · 휴식 부문은 서울 비로자나국제선원, 복지 · 나눔은 논산 지장정사, 공동체는 울산 백련사를 선정했다. 네 사찰 모두 각 분야별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꾸준히 공부하면서 불자뿐만 아니라 비종교인까지 포괄하는 폭 넓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김 소장은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도 불교 본질에 충실한 게 네 사찰의 공통점"이라며 "정답은 언제나 교과서에 있지만 모두가 실천하지는 않기 때문에 차이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제 어느 한 스님의 원력에만 기대 사찰이 활성화되길 기대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시스템을 중심으로 한 접근이 보다 중요해졌다"고 부연했다. 윤호섭 기자

조계종 신임 법계위원장 법산 경일 대종사 선출

11월 8일 위원 위촉 및 회의



조계종 법계품서를 관장하는 법계위원회 새 위원장에 법산 경일 대종사〈사진〉가 선출됐다.

조계종 법계위원회는 11월 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새 위원장으로 법산 경일 대종사를 선출했다. 법산 대종사는 지난해 3월 법계위원장으로 선출돼 활동한 바 있다. 법계위원장은 호선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앞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같은 날 중앙종회의 위촉 동의를 거친 새 법계위원 법산 · 경선 · 돈명 · 무상 · 성법 스님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위촉식엔 법산 · 경선 · 성법 스님이 참석했다.

진우 스님은 이 자리에서 "종단에 위원회가 많지만 법계위원회는 상위 위원회 중 하나"라며 "어른스님들께서 종도들을 잘 보살피고 이끌어주시는 데 큰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법산 스님은 "종도들의 화합된 마음을 결집해서 법계품서를 잘하겠다"고 화답했다.

법계위원회는 각급 법계의 품서, 특별전형, 포상법계, 법계무효 등을 관장한다. 위원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한편 법산 스님은 덕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61년 수계했다. 고시위원장, 학림사 주지, 학교법인 승가학원 이사,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등을 역임하고 2018년 대종사 법계를 품수했다.

경선 스님은 법윤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67년 수계했다. 제14교구본사 범어사 주지, 계단위원, 재심호계위원, 법규위원 등을 역임하고 2021년 대종사 법계를 품수했다.

돈명 스님은 일타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69년 수계했다. 제10교구본사 은해사 박물관장, 능인사 · 흥국사 주지를 역임하고 현재 은해사 회주다. 2023년 대종사 법계를 품수했다.

무상 스님은 성호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75년 수계했다. 제21교구본사 송광사 주지, 호계원장, 재심호계위원 등을 역임하고 2023년 대종사 법계를 품수했다.

성법 스님은 정오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75년 수계했다. 제2교구본사 용주사 주지, 중앙선거관리위원, 염불사 · 만의사 주지를 역임했다. 윤호섭 기자

진각국사 전승관 건립을 위한 모연에 동참해 주세요

전남 화순에서 태어나 한국불교의 큰 발자취를 남기신 고려 2대 국사인 진각국사 전승관 건립을 위한 땅 1평 불사를 봉행합니다.
진각국사 혜심 큰스님은 지눌스님의 뒤를 이어 고려의 2대 국사로 간화선을 크게 펼치고, 「선문염송」, 「선문강요」 등 간화선 수행하는 스님들의 큰 가르침을 전하신 한국불교의 큰 어른입니다.
사)진각국사선양회는 지난 20여 년간 진각국사께서 탄생하신 화순에서 큰스님의 얼과 가르침을 이어가고자, 19년간 다례재와 학술대회를 비롯해 다양한 선양사업을 지금껏 정성을 다해 진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큰스님의 뜻을 선양하기 위해 탄생하신 곳에 건립하고자 했던 전승관 건립이 소승의 힘으로 요원하여, 여러 대덕 큰스님과 불자님들에게 모연을 청하옵니다.
진각국사 전승관은 어린 학생과 지역 주민, 그리고 화순을 오는 방문객에게 진각국사의 가르침을 알리고 수행하는 장소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작은 정성이라도 모연해 동참해 주시기를 청하옵니다.
※불사에 동참한 분은 사적비에 이름을 새겨 영구히 보존하겠습니다.

▮주 소 : 전남 화순군 춘양면 돌정1길 24 혜심사
▮전 화 : 010-2971-4646
▮모연계좌 : 농협 355-0057-0146-43 (진각국사)

(사)진각국사선양회 대표 대현 합장

현대사회는 '정신건강', '마음건강'이 매우 중요한 시대 상황입니다! 사람들의 정신과 마음을 해치는 중요한 원인에는 '빙의', '신기운'의 폐해가 매우 큽니다! '의학적'으로도 규명이 안되어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상담을 통해 해법을 찾으십시오!!"

[상담하면 도움이 되는 분] 전화상담, 대면상담은 무료입니다!
▣ 빙의와 신기운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 한 개인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 빙의 기운에는 신기운, 사람, 동물, 식물, 기타 여러 가지 영적기운이 몸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몸속에 들어오면 여러 가지 신체적, 정신적 이상증세를 일으킵니다!
※ 빙의와 신기운으로 인한 문제는 병원에서도 안되고, 최고의 심리상담으로도 안되고, 무속굿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 영적기운을 환자로부터 제거하고 몸 밖으로 분리하고, 차단하고, 다스릴(천도)줄 알아야 해결이 됩니다!!

[빙의로 인한 대표적인 증세]
▣ 만성우울증·가위눌림·심한 불면증·공황장애·공포증·심한 불안증세 ·악몽 자주꿈·망자 자주 꿈에 나타남·몸이 매우 무거움·만성피로감 이 심한 경우! ▣ 환청·환각증세 심한경우!
▣ 증세는 있으나 병원에서는 진단이 이상 없이 나오는 경우! ▣ 혼자 중얼거림 심한 경우
▣ 특히 초등, 중등, 고등, 대학생이 빙의와 신기운에 노출되면 인생이 전체가 망가집니다! 반드시 제거 및 벗어나게 해주어야 인생이 달라집니다! (영리하고 똑똑했던 자녀가 어느 시점 이후 갑자기 학습능력 저하, 우울증 걸리고, 방콕하고, 이상행동 하는 경우)
▣ 어느 시점 이후부터 과거와 매우 다른 행동, 습관이 있는 경우(이상행동)!
▣ 병원에 오래 다녀도 낫지 않은 경우 등. ※ 자살충동 심한경우(손목긋는 자해행위 자주함)
▣ 병원에서 낫지 않은(희귀병), 조현병, 분노조절장애, 감정 기복 매우 심함, 묻지마 폭행, 과격한 행동 등
▣ 계속되는 심한 우환, 사고, 줄 초상나는 경우, 매우 심한 가정불화 (의처, 의부증 심함)
※ 애완견 천도 가능, 조류(새종류), 개, 돼지, 소, 닭, 오리, 뱀종류, 구렁이, 어류(장어, 물고기 종류일체), 식물령(큰나무등), 모든 동·식물령 천도가능함

▣ 여러번 천도재, 굿해도 효과 못보신 분 ※ 밤에만 증상이 심하고 밤에 주로 나가는 경우
※ 신병 앓고 있는 분: 신기운 떼어내고자 하는 분 환영!
※ 특히 기도, 수행을 너무 열심히 하시다가 탈(몸과 마음에 이상 증세)이 나신 스님, 타 종교인, 성직자, 재가 불자, 일반인(종교와 무관함) 상담 환영 합니다!(비밀보장, 출장 상담도 가능)

▣ 빙의전문의로서 정직과 신뢰와 꾸준한 사후 관리로 빙의 환자와 함께 문제 해결로 집중해 갑니다!
▣ 원격치유가능(환자 직접 오지 않아도 됨) ※육지계신 분 : 당일 정성가능(아침비행기, 오후 비행기) 공항에서 10분이내 거리

49재·천도재 전문도량 전국최고 빙의천도 신기운천도 전문상담원
마음치유·정신건강치유 전문상담원 제주불교조계종금강선원
제주도 제주시 삼무로 47(연동 271-22) 3층 상담문의 : ☎ 064) 746-0789

동국대 WISE캠 총장 후보 3人 압축

구본철 · 류완하 · 박용기 교수
법인 이사회서 최종 선임 예정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구본철


류완하


박용기

동국대 WISE캠퍼스를 이끌어갈 차기 총장 후보자가 구본철 · 류완화 · 박용기 교수로 압축됐다.

동국대 WISE총추위(위원장 범해, 이하 WISE총추위)는 11월 7일 동국대 본관 로터스홀에서 4차 WISE총추위 회의를 개최해 WISE캠퍼스 총장 후보자를 선출했다.

WISE총추위는 규정에 따라 후보자로 △구본철 글로벌사회경영대학 영어영문학과 교수 △류완하 스마트시티융합대학 디자인미술학과 교수 △박용기 한의과대학 한의학과 교수(가나다순)를 선출하고, 후보자들을 무순위로 법인 이사회에 추천키로 결의했다.

구본철 '전법 성지 캠퍼스 조성'

구본철 후보는 동국대 WISE캠퍼스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동국대 대학원에서 석 · 박사를 받았다. 모교 교수로 부임한 이래 신문사 주간, 인문대학 부학장 · 학장 대행, 국제교류처장, 입학처장, 교무처장 등을 역임했다.

총장 출마 소견을 통해서는 △전법 · 포교 불교 성지 캠퍼스 △입학자원의 안정적 확보 △교육 혁신대학 △대학 재정 건전성 확보 △상호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지역화와 국제화 △문화감성 캠퍼스 조성 등 7가지 핵심 전략과제를 제시했다.

류완하 '특성화 강화 학제 개편'

류완하 후보는 동국대 WISE캠퍼스 미술학과를 졸업하고 동국대 대학원에서 미술교육학 석사를, 계명대 예술대학원에서 미술학 박사를 받았다. 동국대 WISE캠퍼스 도서관장, 평생교육원장, 기획처장을 역임했고, 현재 동국대 WISE캠퍼스 문화예술디자인연구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류 후보의 총장 공약은 특성화 분야 강화를 위한 학제 개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는 글로컬 대학 3.0을 대비해 2차전지, 자동차 부품소재, 스마트 관광 분야 인력을 배출할 수 있는 학제를 신설하고, 경주를 기반해 인문, 영상콘텐츠, 웹툰 등을 배우는 문화콘텐츠 학제를 만들 것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박용기 '불교+한의학 연계 사업'

박용기 후보는 동국대 WISE캠퍼스 한의과를 졸업하고 동국대 대학원에서 본초학을 전공으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6년 모교 교수로 부임한 이후 한의과대학 학장, 불자교수회장 등을 역임했고, 현재 대외협력처장으로 활동 중이다.

박 후보는 불교 정신에 기반한 '5개 추진 전략 10대 실천 전략 과제'를 공약으로 내놨다. 특히 지속가능한 재정 확보를 위해 불교계, 지자체, 산업계, 동창회가 참여하는 'WISE캠퍼스 발전위원회'를 구성해 기부 활성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불교학과 · 한의학과 · 의학과 · 호텔관광경영학부를 연계한 '불교 웰빙 국제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한편,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회는 제352회 이사회에서 3인의 후보 가운데 차기 WISE캠퍼스총장을 선임할 예정이다.

차기 동국대 WISE캠퍼스총장 임기는 2024년 3월 1일부터 2028년 2월 29일까지 4년이다.


마타렐라 伊 대통령, 해인사 방문 한국을 국빈 방문한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과 영애인 라우라 마타렐라 여사 등이 11월 9일 해인총림 해인사를 방문했다. 오후 3시 15분께 해인사를 찾은 대통령 일행은 팔만대장경이 보관된 장경각에만 40분 정도 머무르며 큰 관심을 보였다. 해인사 주지 혜일 스님과 장경각을 둘러본 마타렐라 대통령은 "귀한 걸 보게 돼 기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은정재단, 나란다 시상…대학 전법기금 1억 기부

11월 4일, 동국대서 개최
교리대회 우수 학생 격려



은정불교문화진흥원 상임이사 성월 스님(사진 오른쪽)이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에게 대학생 전법기금 1억 원을 전달했다.

불교계 대표 신행 문화행사인 나란다 축제를 개최하고 있는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이사장 자승)이 올해 참가 청소년들을 격려하고 미래 불교를 이끌어갈 주역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은 11월 4일 서울 동국대 중강당에서 '제20회 은정장학금 전달식 및 제15회 나란다축제 시상식'을 개최했다. 시상에 앞서 은정문화진흥원은 상월결사 대학생전법위원장 돈관 스님에게 대학생전법기금 1억 원을 쾌척했다. 1억 원 전달은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해 대학생 전법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은정문화진흥원 이사장이자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이 앞으로 은정재단도 대학생 전법에 매진할 것을 약속하는 의미에서 이뤄졌다.

이날 자승 스님은 상임이사 성월 스님이 대독한 인사말에서 은정문화진흥원 설립자인 월암당 정대 스님을 떠올리고, 불교중흥을 위한 원력보살의 실천행이었던 큰스님의 불사를 이어갈 것을 다짐했다. 스님은 "앞으로 대학생 청년 전법이 불교가 당면한 여러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니라, 불교의 미래가 달린 절체절명의 순간이라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불교중흥을 위해선 무엇보다 젊은 계층으로 불교가 스며들어야 하며 대학생, 청년 전법 인재불사에 은정재단은 관심을 놓지 않고 가장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은 "은정재단 이사장이자 동국대 건학위원회 고문인 자승 스님의 원력으로 나란다 축제를 통해 부처님 법의 씨앗이 심어진 청소년들 또한 대학생 불자가 돼서 향기로운 꽃을 피워낼 것이라 기대한다"면서 "동국대는 대학생, 청년 포교가 불교의 생존문제라는 큰스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청소년 불자가 대학생, 청년 불자로 올곧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정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정장학금 수여와 함께 본격적인 시상식이 시작됐다. 올해는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를 비롯해 무설 스님(동국대 불교학부), 김은후(건국대 화학공학부), 구민재(서원대 상담심리학과), 신의진(아주대 수학과) 학생 등 단체 1곳와 대학생 8명에게 제20회 은정장학금, 불교단체 및 학술연구지원금, 생활격려금 등 총 2900만원이 전달됐다.

나란다축제 단체 대상은 화엄사 어린이법회에 돌아갔다. 최우수상은 강원 파라미타 청소년연합회와 청담고등학교가 받았다. 우수상은 호국일승사, 선화여고, 정광고, 봉은사 어린이법회,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칠곡도량, 동대사대부속여중이 수상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인 대상은 오현수(초림초5, 봉은사), 조서연(청담중2), 이도경(청담고2) 학생이 차지했다. 초등부 12명, 중등부 46명, 고등부 84명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나란다 K-댄스경연대회 대상은 정광고 댄스팀 로터스에게 돌아갔다. 이밖에도 데이스타(동대사대부속여중), 투즈원(정광고), 허혜린(대청초) 등 13팀이 입상했다. 군장병독후감 공모전 조계종 총무원장상은 곽상용(육군 5사단) 씨가 수상했으며, 총 15명의 군장병들이 수상의 기쁨을 함께했다. 임은호 기자

종교편향특위, 해미읍성 성지화 시정 촉구

11월 9일, 제12차 회의서 논의
역사 배경 · 가치 조명 대신
천주교 성지로 과도한 부각
안내표지판 수정 공문 발송키로



조계종 중앙종회 종교편향불교왜곡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선광, 종교편향특위)가 가톨릭 성지화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서산 해미읍성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총무원 사회부에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공문 발송 등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종교편향특위는 11월 9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12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뜻을 모았다.〈사진〉 회의에는 위원장 선광 스님을 비롯해 위원 종원 스님, 법성 스님, 설해 스님, 교육부장 덕림 스님, 사회국장 현우 스님 등이 참석했다.

종교편향특위는 이날 총무원 사회부로부터 천주교 박해와 순교 역사만 덧씌워져 성지화가 추진되고 있는 해미읍성과 인근 홍주읍성, 내포 지역 현황을 보고 받았다. 사회부에 따르면 현재 해미읍성에는 '십자가의 길' 순례길이 조성돼 있으며, 순례길 곳곳에 순교를 상징하는 조형물이 설치돼 있다. 읍성의 역사적 배경과 가치는 외면된 채 천주교 순교성지로만 과도하게 부각된 안내표지판도 적지 않다.

위원장 선광 스님은 "지자체가 역사적 관점 없이 무분별하게 순교 상징물 등을 설치하고 성지화 사업에 앞장서고 있다"며 "법률적으로 드러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안내 표지판 수정 등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위원 설해 스님도 "현재 해미읍성에 세워진 안내판은 천주교의 역사만을 담고 있고, 이를 성지로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후대가 올바른 역사를 배울 수 있도록 공공 안내판으로 교체할 것을 요구하고, 지속적으로 현장을 방문해 문제를 지적하는 노력들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에 윤영희 사회부 차장은 "심각한 상황임을 인지하고 있다.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사업을 진행 중"이라며 "다각도로 검토해서 대응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회의에서는 기독교계가 교회시설을 이용해 추진하는 '유 · 아동 돌봄사업'과 관련한 대응 방안도 논의했다. 종교편향특위는 조계종 중앙종회가 11월 2일 제229회 정기회에서 채택한 '교회 내 영유아 돌봄시설 추진 철회 성명서'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전달키로 했다.

이밖에도 윤석열 정부의 편향된 고위공직자 인사와 노아의 방주 모형 한국 유치와 관련한 의견을 나눴다.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한국전통 자연치유 대체요법
뇌와 장을 살리는 힐링마사지
암, 당뇨, 고혈압, 치매, 우울증 등을 자연치유 하는 쾌뇌장 힐링요법
관리프로그램
쾌장경락마사지 (8만원)
기공치유
성인병관리
심리치유
오장육부 기능회복 (간, 심장, 비장, 폐, 위, 신장)
복부비만 등 복부관리
목, 어깨, 골반, 다리 등 각종 통증관리
스트레스 만성피로
각종 뇌질환(우울증 등) 관리
노화 예방, 장수 회춘 관리
영적치유 만트라명상


약손월드힐링센터 화성지부(향남) 010-7302-5620

불공천도, 단기속성 학인모집
수 강 안 내
〈강의 일정 시간표〉
1.기본반 : 불공예경. 새벽도량, 사시예경, 저녁예불. 1주간 (4박5일-월화, 목금)
2.정기반 : 천도의식. 시련,대령, 관욕에서 소대가지. 1주간 (5박6일-월화, 목금토)
*숙식 제공. *청강 연장수업료 30만.
*각 반 수업료 120만원. *충원 시 즉시 개강 함.
준 비 물 : 가사, 장삼, 요령, 목탁
장 소 : 대한불교 삼덕사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1021
강 사 : 금륜당 화엄
전 화 : 010-7387-2833

주최 대한불교 삼성고불대학

“부처님 법 만나고 작품은 덤으로 따라왔죠”

‘4기 불교크리에이터’를 만나다

⑦ 심효빈 추추비니 디자인 스튜디오 대표

나락 빠지던 20대 때 불교 만나
순례 등 신행생활로 마음 의지처
매일 일상 속 염불 · 법화경 사경
“불교는 삶…나와 분별도 없어”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추추비니 디자인 스튜디오 대표 심효빈 씨.

“불교를 만나기 전에는 나쁜 일만 생기면 환경 탓 남 탓하기 바빴어요. 부처님 법 만나고 오만한 야만심이 하나둘 부서졌죠. 주변 인연들의 소중함을 느끼니 다양한 작품들은 덤으로 따라왔어요.”

심효빈 추추비니 디자인 스튜디오 대표는 처음부터 대표가 아니었다. 미술 전공 후 20대 초반부터 디자인 회사에서 직장생활을 했다. 박봉에 열악한 환경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잦은 이직을 하며 세상에 대한,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도 커져만 갔다. 나락으로 빠져들 때, 심 대표를 잡은 건 다름 아닌 불교였다.

버거운 일상을 보내고 있는 딸에게 울산 황룡사 신도인 어머니가 구법순례를 제안했다. 20대 시절 불안한 미래에 대한 방황을 겪던 심효빈 대표는 구법순례를 통해 부처님을 만났다. 이후 황룡사를 스스로 찾아갔고, 경전 속에서 부처님을 만나곤 평온함이 무엇인지 알게 됐다. 이후 꾸준히 법당을 찾았다. 주지 황산 스님의 지도에 따라 마음을 다스리며 매일 천수경을 독송하고 금강경을 사경했다. 밴드를 통해 예불에 참여하며 마음의 의지처를 찾았다.

김포며 평창이며 전국 곳곳의 성지를 순례하며 신행생활을 했다. 불교공부를 하면서 생업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나섰다. 프리랜서로 활동하다 남편 성과 자신의 이름 끝자를 따 ‘추추비니’라는 디자인 스튜디오를 차렸다. 사업자 등록을 하고 직접 만든 디자인 작품들로 박람회와 페스티벌에 참여, 인기를 끌기도 했다. 관공서와 기업 각종 홍보물과 포스터, 팸플릿 등 다양한 분야에서 디자인 의뢰가 들어왔다. 자현 스님과 우연히 인연이 닿아 월정사의 각종 행사 홍보물 작업에도 재능을 맘껏 발휘할 수 있었다.

바쁜 일상이지만 신행생활에도 게으름이 없었다.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염불하며 법화경 사경을 손에서 놓지 않는다. 일상에서 하는 수행 모습을 촬영, 유튜브 채널에 공개하는 일에도 열심이다. 이유는 단 하나. 많은 이들에게 불교를 알리고 싶고, 일상의 수행법을 보고 누구든 따라 해 보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바쁜 삶으로 종교생활을 꿈꾸기 어려운 MZ세대 청년들을 위해 삶에 어떻게 불교수행을 적용하고 더 나아갈 수 있는지 보여주고 싶어요.”

누구보다 눈코 뜰 사이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심효빈 대표는 최근 또 일 하나를 더 벌였다. 조계종 포교원에서 모집한 불교크리에이터 4기에 도전한 것. 당당히 크리에이터가 된 심효빈 대표는 일상이 담긴 브이로그로 다큐멘터리 형식을 차용해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일상브이로그에서는 일하며 생활하며 염불과 사경, 명상 등 불교수행을 어떻게 적용하며 삶을 더 윤택하게 살아가는지를 담고 있다. 전국 사찰을 순례하며 선지식을 친견한 후 진솔한 수행자



추추비니 디자인 작품들.

추추비니 디자인 스튜디오
- 홈페이지 : choochoobini.com
- 유 튜 브 : www.youtube.com/@choochoobini88
- 인 스 타 : www.instagram.com/choochoo_bini

이야기를 브이로그에 담아내고 싶다. 이야기를 통해 받은 영감으로 굿즈를 제작하는 과정도 공개하려고 한다.

“저작권은 민감한 부분이라지만 저는 제 작품이 어디서든 잘 활용되길 바라요. 그것이 진짜 보시죠. 이를 통해 불자들과 소통하고, 또 기회가 된다면 굿즈 판매 수익으로 다 같이 사찰에 보시하는 이벤트도 재미있을 것 같지 않나요?”

심효빈 대표는 “불교크리에이터가 됐다고 달라진 건 없다”고 말했다. 기존 SNS 채널에서 부처님과 불교 이야기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크리에이터 기간이 지나도 불자로서 신행을 이어갈 것이다.

불교는 삶이고 나와 분별할 수 없다고 말하는 심효빈 대표. 그는 “부처님은 힘들 때 기댈 곳이 됐고 지금은 꿈을 향해 가는데 힘이 됐다”면서 “이제는 이 좋은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더 많이 알리는 일에 진력하고 싶다”고 말했다.

황금사찰 수국사, 상월결사 정신 잇다

11월 4일 금강경 21일 기도 입재
교구장 호산 스님 초청 법문
“대학생 포교 모두 함께하자”


11월 4일 수국사 대웅보전에서 봉행된 우리말 금강경 21일 기도 입재 및 호산 스님 특별법문.

청년불교 활성화를 위해 대학생 포교를 기치로 내세운 상월결사 정신을 황금사찰 서울 수국사가 잇기로 했다.

수국사(주지 보관)는 11월 4일 경내 대보전에서 ‘우리말 금강경 21일 기도 입재식’을 봉행하고, 조계종 제25교구 본사 봉선사 주지인 호산 스님을 초청해 특별법문의 시간을 마련했다. 호산 스님은 최근 봉선사 주지 취임 전까지 약 9년간 수국사 주지를 맡아 가람수호에 매진한바 있다.

이날 법상에 오른 호산 스님은 신임 주지인 보관 스님과 수국사 대중이 기도 입재로 주지 진산식을 대신한 점을 격려했다. 이어 스님은 4년 전 위례 신도시에서 상월선원 천막정진 당시 힘을 보태준 수국사 사부대중에 감사를 표하고, 청년불교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수국사도 함께 뜻을 모아줄 것을 간곡히 당부했다.

호산 스님은 “인도순례가 끝나는 날 상월결사 회주스님께서는 지장보살의 원력에 빗대 전법의 중요성을 설하셨다”며 “청년불자가 줄어들고 아이들이 불교를 믿지 않는다면 황금법당은 지금 인원의 10분의 1도 채우기 어렵게 된다”고 말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상월결사가 대학생 포교에 앞장서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호산 스님은 “상월결사 정신을 우리가 함께 실천해야만 위기를 이겨낼 수 있다”면서 “신임 주지스님과 수국사 신도 모든 사부대중이 함께 전법의 길을 떠나자”고 주문했다.

호산 스님은 또 상월결사 회주 자승스님이 천막정진 당시 글로 남긴 게송 ‘땅이 노래하고 하늘이 춤을 추니 수미산이 사바세계로다’를 읊은 뒤 “남녀노소 누구나 가릴 것 없이 황금법당에서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며 부처님을 외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수국사 주지 보관 스님은 호산 스님이 일궈놓은 다양한 수행문화를 잘 받들어 뜻을 잇겠다고 다짐했다. 보관 스님은 “교구장스님께서 문화 · 포교 · 기도 모든 면에서 너무 잘하셨기 때문에 많이 부담이 된다”면서도 “무언가를 따로 더하기보다는 지금까지 이어져온 수행기도, 어린이법회, 합창단 운영 등에 보다 신경 쓰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호산 스님과 보관 스님을 비롯해 법회에 함께한 사부대중은 상월결사의 슬로건인 ‘부처님법 전합시다’를 삼창하며 전법 의지를 다졌다. 법회에는 총무원 문화부장 혜공 스님, 사회부장 도심 스님, 교육부장 덕림 스님, 불학연구소장 법정 스님, 포교연구실장 문종 스님, 중앙종회의원 현무 · 원각 · 해량 · 법륜 스님 등이 참석했다.

윤호섭 기자

“故 강보경 노동자 죽음 진상규명 · 책임자 처벌”

사회노동위, 11월 8일 기도회
DL이앤씨 회장 공개 사과 촉구



11월 8일 진행된 故 강보경 노동자 극락왕생 기원 기도회.

올해 8월 부산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추락해 숨진 故 강보경 노동자 죽음과 관련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DL이앤씨 회장의 진심 어린 사과를 촉구하는 기도회가 열렸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사노위)는 11월 8일 서울 종로구 DL이앤씨 본사 앞에 마련된 추모분향소에서 기도회를 봉행하고 강보경 노동자의 극락왕생을 발원했다. 사노위는 10월 11일 ‘DL이앤씨 산재사망 노동자 故 강보경 추모위령재’를 시작으로 일주일에 한 번 기도회를 마련, 유가족들의 아픔을 함께하고 있다.

강보경 노동자는 올해 8월 11일 DL이앤씨의 부산 연제구 아파트 신축 공사장 6층에서 창호 교체작업을 하다 200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강 씨는 DL이앤씨 하도급업체 KCC 소속으로 일했다. 이번 사망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DL이앤씨의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7번째 중대재해이며, 강 씨는 8번째 희생자다.

8월 말 통영에 살던 고인의 어머니 이숙련씨와 누나 강지선 씨는 원청인 DL이앤씨의 책임을 묻기 위해 서울로 상경했다. 유가족은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DL이앤씨 회장 공개 사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유족 배상을 요구하며 출근 · 점심 · 퇴근 시간에 맞춘 피켓 시위와 농성을 펼치고 있다.

기도회에 앞서 사노위 위원 원경 스님은 “DL이앤씨는 존엄한 생명의 가치를 외면 · 무시해선 안 된다”며 “회사가 잘못을 인정하고, 공식적인 사과에 응할 때까지 조계종 사노위가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보경 노동자 어머니 이숙련 씨는 “아들의 죽음에 책임 있는 사람들은 제대로 사과하고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한다”며 “아들을 포함해 DL이앤씨 건설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고, 더 이상은 안타까운 목숨이 희생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기도회는 원경 스님의 집전으로 20분 가량 이어졌다. 기도회를 마친 스님과 유가족은 ‘사망사고의 진상을 공개하고 유족에게 사과하라’ ‘내 아들 살려내라’ ‘산재사망의 진실을 밝혀라’ 등의 피켓을 들고 DL이앤씨 본사 인근을 돌며 재차 강보경 노동자 죽음의 원인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김내영 기자

제20회 대원상 출가 대상에 ‘상월결사’

진흥원, 11월 6일 수상자 발표
오는 11월 16일 시상식 개최



(사)상월결사 이사장 자승 스님이 3월 23일 서울 조계사에 열린 인도순례 회향식에서 회향 말씀을 하고 있다.

제20회 대원상 출가 부문 대상에 ‘사단법인 상월결사’가 선정됐다.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이한구)은 “제20회 대원상 심사위원회의를 통해 부문별 최종 수상자를 선정했다”며 11월 6일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출가 부문 대상에는 사단법인 상월결사(이사장 자승)가, 특별상은 묘장 스님(더프라미스 이사장)이 각각 수상자(단체)로 선정됐다.

진흥원은 “상월결사는 2019년 11월 천막정진을 시작으로 ‘찾아가는 불교, 적극적인 불교, 친절한 불교’를 위해 전국적으로 전법 운동을 확산시켜왔다”면서 “청년 불교 활성화를 위한 대학생전법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본격적인 대학생 포교 활성화의 전진기지로서 현대적인 포교 단체의 모범을 보이고 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불교 국제구호단체 더프라미스 이사장인 묘장 스님은 일찍이 국제 재난에 선도적으로 자비행을 펼쳐왔으며, 사회복지와 지역포교에도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재가 부문 특별상은 백성욱 박사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백성욱연구원(이사장 정천구)이, 장려상은 신병훤 교법사(대전 보문고 교법사)가 각각 이름을 올렸다.

특별정진상 부문에는 고우 스님(미국 콜롬비아대 인지과학 · 인권학 재학)과 수진 스님(일본 고마자와대 대학원 박사과정 재학)을 각각 수상자로 선정했다. 올해부터 신설된 특별정진상은 해외 대학이나 수행센터에서 정진하는 조계종 소속 스님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상으로, 2명의 스님을 선정해 1000만 원을 지원한다.

시상식은 오는 11월 16일 오후 3시 마포 다보빌딩 3층 법당에서 진행된다. 수상단체와 수상자에는 상패와 함께 대상은 3000만 원, 특별상은 1500만 원, 장려상은 1000만 원의 상금이 각각 수여된다.

신중일 기자

동국대 학부모, 베트남 유학생에 장학금

건학위 ‘미래불자 장학’에
1000만원 장학기금 전달해
베트남 유학생 10명 혜택



동국대 재학생 학부모인 김대암 우진제약 대표가 동국대에 장학금 1000만 원을 기부했다.학교법인 동국대학교 건학위원회(위원장 돈관)는 11월 8일 본관 5층 건학위원회 회의실에서 ‘지역 미래불자 육성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사진〉

수여식에는 우진제약 김대암 대표와 부인 김성경 씨, 동국대 불교학부에 재학 중인 자녀 김미현 학생이 참석했다. 학교 측에서는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 윤재웅 동국대 총장, 박기련 건학위원회 사무총장, 지정학 법인사무처장, 장환영 학생처장, 베트남 유학생 장학생들이 함께 했다.

이번 행사는 건학위원회 ‘지역 미래불자 육성장학’ 사업 일환으로 이뤄졌다. ‘지역 미래불자 육성장학’ 건학위원회가 지역사찰과 동국대에 재학 중인 해당지역 학생들을 연결해 수여하는 장학금이다. 최근에는 장학의 범위를 확대해 북한출신 학생, 다문화 가정 학생, 인도 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해 왔다. 이번에 베트남 유학생 학부생 10명을 선정해 장학금을 지급했다. 또한 ‘지역 미래불자 육성장학’ 제도 시행 이후 사찰이나 스님이 아닌 재가자가 기부하는 첫 번째 사례다.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은 “본국을 떠나 타국에서 해외생활을 하고 있는 유학생들에게 이번 장학금이 매우 큰 도움이 될거라 생각한다”며 “이번 장학금을 토대로 동국에 대한 사랑, 한국에 대한 사랑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내년에도 여러분들의 베트남 유학생 후배가 장학금을 또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학업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대암 대표는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신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과 총장님께 감사드린다. 52회째 접어든 지역 미래불자 육성장학 제도가 앞으로도 번창하기를 기원한다”며 “오늘 인연이 된 베트남 유학생들의 감사 편지를 읽어보고 큰 감명을 받았다. 내년에도 장학금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부이티후엉린(국제통상학과 4학년) 학생은 장학생을 대표해 우진제약 김대암 대표에 감사인사를 전했다. 부이티후엉린 학생은 “학업에 집중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워 아르바이트와 병행하고 있다. 이번 장학금을 계기로 저의 목표를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신중일 기자

불심 도문 대종사, 제자 17명 계맥 전수

(재)대각회, 백용성 스님 탄신 160주년 맞아 전계식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에 앞장선 백용성 스님의 손상좌인 불심 도문 대종사가 대은 율사로부터 이은 계맥을 제자들에게 전했다.

도문 대종사는 10월 26일 서울 대각회에서 열린 ‘백용성 조사 탄신 160주년 기념 지리산 칠불선원 대은계맥 전계식’을 봉행하고, 조계종 호계원장인 보광 스님 등 17명의 제자에게 서상수계 계맥을 전했다.〈사진〉

조선시대 한국 계맥의 중흥조 대은 낭오(1780~1841) 율사의 서상수계 계맥은 금담, 초의, 범해, 선곡, 용성, 동헌 율사에 이어 도문 대종사를 제8대 전계 율사로 이어져왔다.

도문 대종사는 전계식에서 대은 율사로부터 이어져온 전통 계맥을 호지하고, 정법안장의 혜명이 단절됨이 없도록 할 것을 제자들에게 당부했다. 전계식은 전계의식과 도문 대종사의 법어, 장산 도업 대종사의 축사, 9대 전수사 대표 보광 스님의 인사말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불심 도문 대종사, 장산 도업 대종사를 비롯해 보광 스님 등 17명의 전계 제자들과 문경 한산사 용성선원장 월암 스님, 조계종 어산종장 법안 스님, 부산 흥법사 주지 심산 스님, 종로 대각사 주지 종원 스님 등이 함께 했다.

윤호섭 기자

스토리텔링 기획
템플스테이 & 피플 2

템플스테이가 시작된 지 20년을 넘어섰다. 대중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해마다 인기를 끌고 있는 템플스테이. 그 일선에서 한국불교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실무자, 자원봉사자에게 그간의 성과와 발전 방향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본다. 〈편집자주〉

“템플스테이로 맺어진 인연들에 감사할 뿐”

김태영
강화 전등사 템플스테이 담당 팀장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범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태영 팀장은 20년 가까운 세월동안 템플스테이 운영을 총괄한 베테랑 실무자다.

2006년부터 전등사서만 실무
경험만큼 연속성 · 전문성 보장
“친절하다” 응원에 보람 느껴
“발전 위해선 질적 성장 필요”


템플스테이 진행과정을 안내하고 있다.

“템플스테이만큼 무수한 인연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또 어디 있겠어요. 잊을만하면 새롭게 찾아오는 인연들이 반갑고 고마울 뿐이죠.”

무뚝뚝하게 내뱉은 한 마디에 그의 진심이 짙게 묻어났다. 김태영 강화 전등사 템플스테이 담당 팀장은 그야말로 베테랑 실무자다. 20년 가까운 세월 템플스테이 운영을 총괄했다. 프로그램 준비부터 공문 제작과 행정업무, 참가자 안내와 응대까지, 원활한 템플스테이를 위한 모든 과정에 그의 손길이 세심하게 닿아 있다. 오랜 세월만큼 충분히 익숙해진 일이지만, 템플스테이를 통해 만나는 다양한 인연들이 있기에 매순간 새로운 경험이다.

김 팀장이 전등사에서 템플스테이 실무를 맡은 것은 2005년부터다. 2002년 템플스테이가 첫걸음을 내딛었으니, 시행 초창기부터 20여 년 가까이 한 사찰에서만 실무 경험을 쌓은 셈이다. 이는 전국 150여개 템플스테이 운영사찰(예비 운영사찰 포함) 중에서도 이례적인 일로, 탄탄하게 축적된 경험 덕분에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템플스테이와 첫 인연은 전등사 회주 장윤 스님의 권유에서 비롯됐다.

“당시 저는 전등사 주지 소임을 맡고 있던 장윤 스님을 곁에서 보좌하는 수행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어느 날 스님이 행정업무도 배워보라고 추천하셨죠. 종무소에서 일을 하다 보니 템플스테이 업무까지 맡게 됐습니다. 우연한 기회였지만 평소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스님 덕분에 지금까지 있을 수 있었네요.”

전등사 템플스테이를 찾는 참가자는 연간 3000~4000여 명. 그간 김 팀장이 템플스테이를 통해 스친 인연은 몇만 명에 달한다. 무수한 만남 속에서 마주한 소중한 인연들은 이제 김 팀장을 지탱하는 원동력이 됐다.

3년 전 어느 무더운 여름날, 전등사 템플스테이에 참가했던 탈북자 A씨는 “여전히 고향에는 갈 수 없지만 이제는 전등사가 있어 든든하다. 마치 고향의 친정처럼 느껴진다”며 아이처럼 웃었다. 마주한 밝은 모습에 김 팀장도 뭉클해진 마음으로 미소를 건넸다. 절로 환희심이 솟았다.

층간소음으로 고통받던 B씨는 템플스테이를 통해 비로소 마음의 안정을 되찾았다. B씨의 긍정적인 변화에 김 팀장은 더욱 힘이 났다. “꼭 또 오겠다” “고생한다” “친절하다”는 참가자들의 응원에는 더없는 보람을 느낀다.

“갖가지 사연을 가진 다양한 성향의 사람들이 사찰을 찾습니다. 소음에서 벗어나고 싶거나, 일상에 지쳐서, 또는 관광 중 우연히 방문하는 경우도 있겠죠. 사찰에서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하룻밤이 그들에게 ‘쉼’이 되고 좋은 기억으로 남는다면 그걸로 제 역할을 다한 것 아닐까요.”

최근 김 팀장은 참가자들이 직접 선택하고 참여하는 것을 선호하는 트렌드 변화에 따라 새로운 체험 프로그램 개발에 주목하고 있다. 싱잉볼 테라피와 호흡명상, 하타요가 등 웰니스를 접목한 프로그램을 비롯해 사찰림을 활용한 걷기 명상, 지역 연계 프로그램 등. 선택지가 다양할수록 사찰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템플스테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애정 어린 쓴소리도 허심탄회하게 내놨다. 김 팀장은 “템플스테이가 시작된 지 20년이 지났으니 이제는 양적 성장보다 질적 성장이 필요한 때”라며 “템플스테이에 대한 포럼 등을 확대해 노하우를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스로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꾸준히 하고 있다. 김 팀장은 매년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진행하는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행정, 예약관리, 회계, 트렌드, 서비스 등을 익히고 있다.

“이왕 템플스테이와 인연을 맺었으니 할 수 있는 순간까지 항상 최선을 다해 임하고자 합니다. 템플스테이 실무자 1급 자격에 도전해 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실무경력 20년을 채우면 서류 · 면접을 통해 템플스테이 실무자 1급 자격이 주어지거든요, 제가 지금 2급인데 아직 1급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1급은 아무래도 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았다는 의미에서도 상징적이니까요. 먼 훗날 제가 퇴직하더라도 템플스테이 기반을 만들어 놓고 간 선배가 이곳에 있었구나 하면서 자부심을 느끼면 좋겠습니다.”

“행복 인생 2막 템플 봉사로 열었죠”

조계사 템플스테이 봉사단


참가자들과 연꽃등을 만들고 있다.


조계사 템플스테이 봉사팀은 경내를 누비며 한국불교 알리기에 나서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정진행 · 관득행 · 묘련화 · 일도심 봉사자.

요일마다 인력 나눠 활동 진행
서로 묻고 배우며 영어 공부도
외국어 · 대화 기술 등 교육 절실
‘하심’으로 한국불교 알리기 최선


외국인 참가자들에게 사찰을 소개하고 있다.

서울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조계사는 외국인들에게 한국사찰 탐방 1번지로 손꼽힌다. 북적이는 인파 속 높은 빌딩 숲을 지나 일주문에 들어서면 마치 다른 세상인 듯 고즈넉하게 펼쳐진 특유의 공간이 매력적이라는 평가다. 또 한 가지, 외국인들이 조계사를 1번지로 꼽는 이유는 바로 소통의 원활함이다. 낯선 문화를 향한 호기심과 설렘을 안고 조계사 경내에 들어선 외국인 관광객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활기찬 목소리, 바로 ‘조계사 템플스테이 봉사단’이 있기 때문이다.

“Hello, Welcome Jogyesa Temple.”

밝은 미소로 건넨 인사 한 마디에 낯선 공간이 주는 어색함도 무장해제된다. 외국인들이 느끼는 낯설음을 친근함으로 바꾸고, 한국불교를 향한 호기심까지 척척 해결해주는 이들. 10여 년간 봉사단을 이끌어 온 ‘템플스테이 화요일팀’ 관득행(70) 팀장과 묘련화(67) 총무, 정진행(67) 봉사자, 일도심(56) 봉사자다.

“재적사찰인 조계사에 도움이 되고자(관득행)” “그저 봉사가 좋아서(묘련화)” “불교를 친숙하고 쉽게 알리기 위해(정진행)” “불교에 의지해 번아웃(업무에 대한 신체적 · 정신적 피로가 극심한 상태)을 극복한 경험으로 퇴직 이후 봉사로 회향(일도심)” 등 각기 다른 이유로 불교와 인연을 맺은 후 매주 화요일마다 조계사 경내를 누비며 한국불교 알리기에 나서고 있다.

조계사 템플스테이 봉사단이 정식으로 꾸려진 건 2005년이다. 연간 1만 명 이상 국내외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이 조계사를 찾는 만큼 부족한 일손을 거들 인력이 절실했다. 자원봉사자들이 하나둘 마음을 내준 덕분에 현재 20여 명이 함께하고 있다. 이들은 요일에 따라 평일 3~4명, 주말 5~6명으로 나눠 오리엔테이션과 사찰 안내, 연꽃등 만들기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특히 화 · 수 · 목요일은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도 진행돼 영어에 능숙한 봉사자가 필수로 참여해야 한다.

외국인 참가자들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템플스테이 화요일팀도 영어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봉사자들을 위한 지원과 교육은 현저히 부족한 탓에 모르는 건 서로에게 묻고 배우며 어떻게 불교 용어를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을지 늘 고민하고 있다. 영어뿐만이 아니다. 한국불교와 문화유산에 깃든 우리나라의 역사와 전통을 올바르게 전달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습득력이 느리다 보니 항상 공부가 필요합니다.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배울 수 있는 기회도 많지 않거든요. 대화의 기술이나 외국어 능력을 향상하는 교육의 기회가 마련된다면 봉사자들이 전문성을 갖추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들의 열정 덕분일까. 템플스테이를 경험한 외국인들의 긍정적인 평가도 잇따르고 있다. 2주 전 조계사를 찾은 싱가폴 출신의 조부모, 손주 등 3대는 아시아 불교와 차이점을 짚어가며 한국불교에 큰 관심을 보였고, “조계사에서 평생 중 가장 아름다운 시간을 보냈다”는 후기를 남겼다. 새벽 4시에 시작되는 예불과 도량석도 큰 인기다. 잠을 이겨내고 도량 곳곳을 거닐며 “비로소 나를 되돌아볼 수 있었다”는 참가자도 여럿이다.

“조계사를 찾는 외국인들과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게 저희 봉사자들입니다. 사찰의 첫 이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은 거죠. 한국의 불교문화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데 일조하고 있다는 자긍심과 보람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가끔은 참가자들의 무리한 요구에 당황스러울 때도 있다. 그럴 때마다 ‘하심’을 강조한 부처님 가르침을 되새기며 감정을 다잡곤 한다. 한국불교 일선에서 일한다는 사명감으로 미소를 잃지 않는 매 순간이 봉사자들에겐 수행과도 같다.

굴곡진 삶에 ‘쉼’이 되는 템플스테이. 한국불교의 진가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일은 그들에게 남겨진 제2의 인생이다.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에게 템플스테이는 종교를 넘어 건전하고 건강한 삶의 방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나도, 남도, 지구도 모두 생명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과정이죠. 짧지만 강렬한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김내영 기자

임영애 동국대 교수 “불교미술은 성보”

제13회 반야학술상 시상식 11월 5일 열려

저서 〈금강역사상〉 등 높이 평가
수상자에 상패와 상금 1000만원
임 교수 “성보 가치 더 알리겠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불교미술은 성보(聖寶)입니다. 성보는 단순히 미술품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입니다. 불교미술을 심미적 관점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불교경전을 바탕으로 부처님 말씀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대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제13회 반야학술상을 수상한 임영애 동국대 교수는 11월 5일 사단법인 반야불교문화연구원이 통도사 반야암에서 개최한 시상식을 통해 불교미술의 가치를 강조하며 이같이 소감을 밝혔다.

시상식에는 반야불교문화연구원장 지안 스님과 김성태 반야불교문화연구원 이사장, 강경구 부원장, 구자상 동의대 교수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반야연구원은 연구 공로와 학술 성과로 불교 학술 발전에 이바지한 임 교수에게 상패와 함께 상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임영애 교수는 “저의 연구 기준은 한국 불교미술의 정체성, 불교조각과 왕릉조각의 관계, 성보의 가치를 가진 불교미술이었다”며 “불교미술이 좋아 한눈팔지 않고 달려온 것밖에 없는데 큰 상을 주시니 몸 둘 바를 모르겠다. 성보의 가치를 알리는데 더욱 정진할 것”이라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수상자 임영애 교수는 이화여대 미술사학과에서 석 ·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경주대 교수와 중앙아시아학회장, 각 지역 문화재위원을 역임했다. 현재 동국대 문화재학과 및 대학원 미술사학과 교수로 활동 중이며, 동국대 박물관장과 불교학술원 문화재연구소장도 맡고 있다. 또한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문체부 전통사찰운영위원회 위원, 조계종 성보보존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임 교수는 중앙아시아와 통일신라 불교조각의 관계성에 대해 연구해왔으며 올해 발간한 〈금강역사상-간다라에서 신라로의 여정〉은 동국대 저서출판지원사업에 선정돼 출간한 연구서다. 책에 실린 160여 장의 간다라, 중앙아시아, 중국, 한국의 금강역사상은 임 교수가 직접 촬영했으며, 학술내용도 간다라에서 신라에 이르기까지의 긴 여정을 살펴 학술적으로 깊이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국제저명학술지에 실은 연구 성과는 한국 불교미술, 특히 석굴암을 비롯해 경주 남산 등 신라 불교미술의 우수성을 세계 학계에 널리 알리는데 이바지했다.



제13회 반야학술상을 수상한 임영애 교수와 연구원장 지안 스님.

원장 지안 스님은 “수상한 임영애 교수를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반야불교문화연구원은 창립 이후 연구 발전과 일반 재가자를 위한 강좌를 열고 지성화에 앞장서왔다. 이렇게 결실을 맺고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 온 것은 모두의 성원과 도움 덕분”이라고 인사말을 했다.

김성태 이사장은 “반야학술상은 불교문화 연구 분야에서 업적이 뛰어나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학자를 격려하기 위해 제정됐다”며 “앞으로도 반야학술상이 불교문화 연구 발전에 기폭제가 되고 불교문화의 수승함을 찬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상식에 이어진 강연에서 임 교수는 ‘석굴암의 유마거사’를 주제로 “유마거사는 재가자인데 경전의 주인공으로 등장한 보살의 반열에 함께 자리를 갖춘 분”이라며 “석굴암 감실에 있는 유마상은 경전 내용과 일치하고, 국내에서 유일하게 석굴암에서만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청소년합창제 ‘장안제일고’ 대상

부산파라미타협회, 11월 5일 부산문화회관서

(사)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협회장 백명숙)는 11월 5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제14회 대한민국 청소년합창제’를 개최했다. 합창제에는 본선을 통과한 금정중 ‘금정쇼콰이어’, 장안중 ‘벨라보체’, 서면중 ‘더블에스’, 장안제일고 ‘장안제일콰이어’, 항도중 ‘항도쇼콰이어’가 경연을 펼쳤다. 합창제 대상은 장안제일고의 ‘장안제일콰이어’가 수상했으며, 금상은 장안중 ‘벨라보체’가 수상했다.〈사진〉

‘장안제일콰이어’는 2017년부터 고등학교 합창발표회 및 교문합창제전에 참여했으며 제6회 부산청소년열린축제에서 대상을 수상한바 있다. 아울러 부산광역시 주최 2019년 부산 V-Festival, 지역주민을 위한 제1회 예술의 밤 합창페스티벌 등 지역문화 축제에서 초청공연을 펼쳤다. 장안제일고는 학생들의 감성적 역량 및 공동체 의식을 위해 합창단 활동을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학생들의 예술적 재능을 꽃피우도록 교육하고 있다.



백명숙 부산파라미타협회장은 “합창은 학생들에게 화합과 공동 성취의 즐거움을 누리도록 돕는 하모니의 장”이라며 “우리 청소년들이 성장의 시기에 예술과 우정을 익히고 풍요의 삶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축사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부산 금용사, 국운융창 기원 천도재

11월 7일, 부산영산재보존회 초청해 지역민 안녕 기원

부산 금정산 금용사(주지 동암)가 11월 7일 금용암 경내에서 산신재 및 천도재를 봉행했다.〈사진〉 금용사는 부산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보존회를 초청해 지역민의 안녕과 국운융창을 발원했다.

금용사 주지 동암 스님은 “부산영산재보존회 스님들께서는 평생 진언과 작법으로 수행하신 분들”이라며 “이런 귀한 자리 함께한 공덕으로 부처님의 복덕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인사했다.

부산영산재 보유자 경호 스님은 ”아무리 세상살이가 힘들어도 입가에 웃음만 잃지 않고 산다면 모든 업이 사라지고 복이 들어오게 된다“며 항상 즐거운 마음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한편 행사에는 부산영산재 후보 보암 스님, 작법 전수조교 원산 스님, 바라 전수조교 혜화 스님, 이수자 무진 스님, 보현 스님, 주원 스님과 장학생 혜광 스님, 천상 스님, 지승 스님, 교육생 스님들이 함께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사찰 후원 덕에 5급 공무원 시험 합격

부산대 후원하는 천불정사
행정 · 기술고시 합격자 축하

인재불사도량 천불정사(회주 고담)가 후원하는 부산대 ‘신목정’과 ‘고담 기맥정’(행정 · 기술고시 준비생을 위한 공간)에서 공부하던 3명이 5급 행정 · 기술고시에 합격했다. 천불정사는 11월 4일 경내에서 법회를 열고 합격자들을 초청해 축하했다. 이 자리에서 합격자 김종원(12학번), 윤혜원(13학번), 김성목(16학번) 씨는 회주 고담 스님과 주지 법경 스님을 비롯해 신도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했다.

천불정사는 꽃다발을 전달하고 합격자들을 격려했으며 강재호 · 박희정 담당교수가 후원에 대한 감사인사를 했다. 아울러 합격자뿐만 아니라 ‘신목정’과 ‘고담 기맥정’에서 5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을 초청해 만찬을 제공했다.



부산대 5급 공무원 시험 합격자들을 위한 축하의 자리를 마련한 천불정사.

최근 새롭게 주지로 취임한 법경 스님 “인재불사를 위해 앞장서신 회주 고담 스님의 뜻을 이어 앞으로도 천불정사는 나눔과 자비의 도량으로 성장할 것”이라며 “행정고시에 합격하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전하며 여기 오신 모든 학생들도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회주 고담 스님은 “오늘 오신 모든 분들의 삶이 풍요롭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공양과 선물을 마련했다”며 “합격자와 공부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이 건강하고 앞으로도 노력한 결과로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축원했다.

윤혜원 학생을 비롯한 합격자들은 “오랜 기간 힘겹게 준비를 했고 마침내 좋은 결과를 얻었다”며 “신목정과 고담 기맥정 후원 덕분에 효율적으로 시간을 쓸 수 있었고, 어려울 때마다 힘이 됐다”고 인사했다.

천불정사는 지난 2006년부터 16년간 신목정과 고담 기맥정 학생들에게 숙식을 제공해왔다. 매년 장학기금 1000만원을 후원해 총 1억6000만원을 부산대에 기탁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제10회 부산기장 국체茶문화축제

허황후대상 고선희 · 김수로대상 박희준 수상

(사)향기로운문화동행(이사장 보혜)이 11월 5일 부산 정관 중앙공원 일원에서 ‘제10회 부산기장국체차(茶)문화축제’를 개최했다.〈사진〉 아름다운 찻자리 심사대회를 비롯해 시민을 위한 세계 6대 다류 시음찻자리도 이어졌다.

(사)향기로운문화동행은 차문화 발전에 이바지한 차인을 선정해 허황후차인대상과 김수로문화대상 등을 수여했다. 올해 허황후차인대상은 고선희 문경차문화연구원장이, 김수로문화대상은 박희준 다유락차문화원 대표가 수상했다. 또한 동행복지대상은 이순희 기장군장애인협회장, 동행공로상은 (사)향기로운문화동행 이사 서인 스님이 받았다.

이사장 보혜 스님은 “10회를 맞이하여 앞으로 더 열심히 할 것을 약속드리며 모두 행복하시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한다”고 대회사를 전했다.



범어사 방장 정여 대종사는 “다도 문화가 더욱 발전하고 기장지역이 품격 높은 문화도시로 거듭나는데 일조해 전국을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행사에는 범어사 주지직무대행 정오 스님, 영도구불교연합회장 호법 스님, 사상구불교연합회장 성림 스님, 안병윤 부시장, 하윤수 교육감, 정동만 국회의원, 정종복 기장군수 등이 함께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김해 불인사, 청소년 장학금

중학생 · 그룹홈 가정 지원

김해 불인사(주지 송산)가 11월 5일 경내 2층 미소마당에서 ‘장학금 전달식 및 작은 음악회’를 개최했다. 장학금 전달식에는 불인사 주지 송산 스님, 원담 스님, 김재호 경남파라미타 회장, 고불학당 총동문회 회원 및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장학금은 유태희 학생(율하중) 외 13명에게 각 30만원과 그룹홈 가정에 70만원 등 총 490만 원이 전달됐다. 행사는 △개회 △한우리합창단 축하곡 △환영사 △축사 △음악회 △장학금수여식 △기념촬영 및 회향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진 작은 음악회는 이병영의 대금독주와 석동호의 톱연주, 이수정 소프라노의 무대 등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졌다.

송산 스님은 “이 자리가 꿈을 이루기 위한 디딤돌이 돼 희망의 날개를 펼칠 수 있길 바란다”며 “학생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열심히 노력해 목표가 실현될 때 까지 용기를 잃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사명대사 발자취 탐방 떠나는 중학생들

밀양 홍제중 ‘홍제원정대’
11월6일, 일본탐방 출정식

동국대 사범대학부속 밀양 홍제중학교(교장 김정우)가 11월 6일 교내 홍제관에서 ‘밀양 얼 프로젝트-홍제원정대 일본 탐방’ 출정식을 개최했다. 홍제원정대는 밀양의 3대 얼 중 하나인 사명대사의 국내외 행적을 탐방하면서 그 정신을 잊지 않고 이어가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이번 프로젝트는 ‘사명대사의 발자취를 따라서’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홍제원정대의 국외 탐방을 위해 홍제중학교는 홍제골든벨 행사를 개최했다. 골든벨에서 수상한 초등학생 3명은 홍제원정대 대원으로 추가 선발됐다. 홍제원정대는 홍제중 학생 29명과 골든벨 수상자 초등학생 3명을 비롯해 지도교사 및 스님 등 총 39명으로 구성됐다. 아울러 이번 홍제원정대 후원을 위해 밀양 표충사 500만원, 오선암 600만원, 지역민 후원금 400만원, 삼랑진양수발전소 1300만원 등 후원이 이어졌다.

출정식에는 표충사 주지 진각 스님, 오선암 일연 스님, 김정우 홍제중 교장, 차경자 삼랑진중 교장, 최진관 동명중고교장, 골든벨 수상자 미리벌초 배지호 외 학생 및 학부모 등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밀양 홍제중학교가 11월 6일 교내 홍제관에서 ‘밀양 얼 프로젝트-홍제원정대 일본 탐방’ 출정식을 개최했다.

표충사 주지 진각 스님은 “학생들의 목소리에서 사명대사의 충혼이 느껴졌다”며 “적군 앞에서도 백성을 구하기 위한 애민의 정신과 자세를 배워 당당함과 큰 포부를 안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정우 교장은 “밀양을 빛낸 영웅들을 알고 역사를 바로 알아 지혜를 갖추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며 “사명대사의 정신을 잇는 마음으로 출정식과 행사에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제원정대 일본 탐방 일정은 11월 14일부터 17일까지 교토, 오사카, 나라 지역 등을 방문한다. 이 지역은 사명대사가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회담하고 조선인 포로 3000여 명을 구출해 온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옥천암, 산신재 · 자비의 쌀 나눔

주지 대각 스님 “어려운 경제에도 뜻깊은 후원”

자비나눔실천도량 부산 황련산 옥천암(주지 대각)이 11월 4일 옥천암 경내에서 ‘2023 산신재 및 행복 쌀 나눔 잔치’를 개최했다.〈사진〉 행사에는 옥천암 주지 대각 스님, 관음사 주지 천웅 스님, 오은택 남구청장, 박수영 · 박재호 국회의원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옥천암은 행사에서 자비의 쌀 10kg 108포, 총 1080kg을 오은택 남구청장에게 전달하며 이웃과 함께하는 행사 의미를 더했다. 주지 대각 스님은 “세계가 혼란스럽고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아낌없는 후원을 해주신 신도님들 덕분에 뜻 깊은 행사를 할 수 있게 됐다”고 인사했다.

오은택 구청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매년 나눔행사를 하시는 옥천암 스님과 신도님들 덕분에 우리 남구가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고 있어 스님과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옥천암 산신재는 1985년 7월 5일 문현동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영가들을 위한 위령재다. 옥천암은 2014년부터 매년 산신재를 봉행하고 자비의 쌀을 지역민에게 전달하면서 지역민의 건강과 화합을 기원하고 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성철 대종사 가르침을 되새깁니다”

해인사, 성철 대종사 열반 30주기 추모다례

방장 · 원로대덕 스님들 동참
인도불교 삼장법사 추대패
의현 스님이 문도회에 전달

성낙두 경남지사장

조계종 종정을 역임하고 청빈한 삶과 철저한 계행으로 추앙받은 퇴옹당 성철 대종사 열반 30주기 추모다례재가 봉행됐다.

해인총림 해인사(주지 혜일)는 11월 3일 대적광전에서 방장 원각 스님, 팔공총림 방장 의현 스님, 前원로의장 대원 스님, 금정총림 방장 정여 스님, 안국사 회주 수불 스님, 백담사 유나 영진 스님, 백련문도회장 원택 스님을 비롯한 제방 선원의 스님과 불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다례재를 봉행했다.

원로대덕 스님들의 헌향과 헌다에 이어 사부대중은 “이 땅에 설파하신 부처님 교리는 생황처럼 다양하게 맑은 음색으로 화음을 이루고, 항상 그릇됨을 고쳐주셔서 올바른 도를 드러내어 부처님 법에 돌아가게 하셨다”며 “탐진치 삼독으로 상처와 번뇌의 업과에 쌓인 저희들에게 진여의 차를 찾아 보여주시고 감로미를 맛보게 해달라”고 대종사를 추모했다.

참석대중은 조계종 종정 재임 당시인 1982년 부처님오신날 법어 ‘자기를 바로 봅시다’ 를 합송하며 생전 성철 대종사의 가르침을 되새겼다. 다례재에서는 팔공총림 방장 의현 스님이 인도 불교 샤카싱아 종단 삼장법사 추대패를 문도대표 원택 스님에게 전달해 불전에 봉정했다. 삼장법사 추대에는 스바흐리띠대학의 불교대학 개설에 기여한 의현 스님이 대학교 측으로부터 성철 스님을 샤카싱아 종단 삼장법사로 사후 추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철 대종사 추모다례재에서 헌향 · 헌다한 원로스님들. 왼쪽부터 대원 대종사, 원각 대종사, 의현 대종사, 정여 대종사.

원택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인도에서 큰스님을 삼장법사 지위에 추대하는 증명패를 해인사에 전해주시고 그 영광을 돌려주신 데 문도로서 감사인사를 드린다”며 “저희 문도들도 성철 종정예하의 가르침에 더욱 정신을 가다듬어 공부를 성취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철문도회와 불자들은 10월 28일 스님의 사리탑 앞에서 3000배 정진을 진행한 데 이어 해인사 백련암에서 나흘 동안 ‘4일4야 4만8000배 참회법회’ 철야정진을 통해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참회의 시간을 보냈다.

2025 여래종 창종 60주년 대작불사 돌입

11월 5일, 총본산 대약사사 개산 38주년 기념법회 봉행

(재)한국불교여래종(총무원장 명안)이 개산 38주년을 맞아 종단 발전을 위한 대작불사에 돌입했다. 여래종은 11월 5일 여래종 총본산 옥천 대약사사에서 개산 38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하고, 2025년 창종 60주년 기념사업을 위한 불사를 선포했다.

여래종 총무원장 명안 스님은 “창종주 인왕 대종사께서 종단 총본산인 대약사사를 옥천에 건립한지 38년이 됐다. 그동안 종단 발전을 위해 힘써준 종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인왕 스님께서 생전 말씀하신 여래종의 전국화, 세계화와 구병 구호 구도 유훈을 이어 청동약사대불 건립을 진행하고자 한다. 여래종 7대 서원인 ‘중생이 곧 보살이고 보살이 곧 여래다’ 는 취지로 약사대불을 모시고자 하니 많은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불교여래종 대덕 스님들과 종도들이 창종 60주년을 앞둔 대작불사 중 하나인 청동약사대불 건립을 시삽하고 있다.

청동약사대불은 옥천 대약사사 인근 산에 조성되며 높이 27m 규모다. 이와 함께 대약사사 또한 3층 높이 건평 500평으로 증축불사에 들어가 3층에서 약사대불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창종 60주년과 창종주 인왕 대종사 열반 10주기를 맞아 여래종은 종단 산하에 학교법인 인왕학원과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약사여래 구병기도를 전개, 총 50억원에 달하는 기금을 모연한다는 방침이다.

명안 스님은 “학교법인을 통해 불교지도자와 국가에 꼭 필요한 구성원을 배출하고 종단과 나라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여래종 발전 계획이 발표된 법회에는 총무원장 명안 스님을 비롯해 종회의장 일연 스님, 불교인권위원장 진관 스님, 문도회장 묘선 스님, 최정례 신도회장, 이창호 여래구도봉사단 이사 등 5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한편 여래종은 11월 20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되는 제29회 불교인권상 시상식에서 해외 포교 및 소외계층 돌봄을 실천한 공로로 단체상을 수상한다.

노덕현 기자

‘佛法마당’ 펼친 진주불교회관 개관 30주년

11월 5일 기념법회…“모범 신행단체 발전 노력”

경남 진주에서 불법마당이라는 전법도량으로 개관한 (사)진주불교회관(이사장 홍수승)이 개관 30주년을 맞아 11월 5일 도원외식에서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홍수승 이사장을 비롯해 연암난야 도현 스님, 무불관 철현 스님, 기원정사 성각 스님, 평안사 지현 스님, 북천사 재연 스님, 사천왕사 능륜 스님, 청련암 원명 스님, 선연사 희묵 스님, 도정사 도정 스님, 양천사 허경 스님 등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기념법회에서 홍수승 이사장은 기원정사 성각 스님과 하귀만 8대 이사장, 이가은 10대 이사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또 가야불교대학 학장 지현 스님은 진주고교 3학년 박시언 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이어 지난 30년 역사의 진주불교회관을 회고하고 앞으로의 100년을 전망한 ‘걸어온 길 30년, 걸어갈 길 100년’ 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다.

홍수승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30년 동안 진주불교회관을 후원하고 부처님 지혜와 자비를 실천하며 한 길만 걸어갈 수 있도록 지도해준 모든 분께 감사하다”며 “신심 있는 불자 양성, 스님들을 외호하며 보현행원을 실천하는 모범적인 신행단체로 발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11월 5일 도원외식에서 열린 진주불교회관 개관 30주년 기념법회.

승려시인 도정 스님은 축시로 축하의 뜻을 전했다. 스님은 “지난 30년의 공양은 새로운 300년의 공양이 되리니. 초발심의 원력만 정녕 놓지 않는다면 너와 내가 함께 부처님도 되고 불법도 되고 승가도 되어 이바지하여 기를 주체도 원만하리니. 일체가 극락이요, 자타가 성불이며 지금 이 자리가 무여열반일로라”고 개관 30주년을 축하했다.

이어진 2부에는 지리산 토굴 ‘연암난야’ 에서 수행 중인 도현 스님의 축하법문이 이어졌다. 스님은 길상초를 주제로 “남방불교는 아라한을 추구하고 북방불교는 보살이 되는 것을 추구한다. 한국불교는 관음신앙이 주된 신앙으로 발전해왔지만 미래는 보현행원이 일상화돼야 한다”며 “인구도 줄고 신도수도 줄어드는 요즘 불교회관과 같은 도량에서 전법할 수 있는 인재를 길러내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광주발전 · 시민행복, 무등산 산신께 기도”

광주동구불교협의회 ‘2023 무등산 산신대재’

광주의 성산인 무등산 산신에게 공양을 올리는 산신대재가 열렸다.

광주동구불교협의회(회장 중현, 증심사 주지)는 11월 5일 수자타 2층 강당에서 ‘2023 무등산 산신대재’ 를 봉행하고 광주의 평안과 시민의 행복을 기원했다. 올해 17회째인 산신대재는 당초 무등산 입구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우천으로 인해 실내에서 진행됐다. 행사는 광주시무형문화제 23호로 지정된 광주영산재 이수자 호산 스님의 집전으로 산신불공과 작법 등이 진행됐고, 축문과 기념식, 축하공연이 이어졌다.

중현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는 무등산에서 오랜 기간 산신을 모시고 기도를 올리며, 이를 통해 마을을 지키고 화합해 살아가는 지혜를 얻었다”며 “산신대재는 민족이 살아온 지혜를 되살려 광주의 풍요와 발전을 기원하고 시민의 행복을 기원하는 소중한 전통문화”라고 강조했다.


광주동구불교협의회장 중현 스님과 임택 동구청장의 헌다.

광주불교연합회장 도성 스님은 “수천년을 이어온 산신신앙의 의미를 살려 정성스런 기도를 통해 광주 발전과 시민행복을 기원한다”고 축사했다.

임택 동구청장은 “우리가 소망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계묘년에도 광주시민과 가족 모두가 만복이 깃들기를 산신님께서 보살펴 주옵소서”라고 축원했다.

행사에는 중현 스님과 도성 스님을 비롯해 지역 사암스님, 이병훈 국회의원, 김재식 동구의회의장 등 300여 사부대중이 참여했다. 기념식 이후 증심사, 관음사합창단과 이영애 국악예술단과 나빌레라무용단의 축하공연이 이어졌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晩秋로 물든 고찰서 ‘음악여행’

부안 내소사 ‘2023 문화여행 산사음악회’ 열어

가을이 깊어가는 전북 부안의 천년고찰 내소사에서 지역민들과 관광객들이 한데 어우러지는 문화여행 산사음악회가 열렸다.

부안 내소사(주지 진성)는 11월 4일 가을이 짙어가는 고색창연한 산사에서 마음의 위안과 평화를 얻을 수 있는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다. 음악회는 내소사 주지 진성 스님과 부안 개암사 주지 종고 스님, 이동배 정광중 교장,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이 함께했다.

우천으로 인해 야외가 아닌 우화루에서 진행된 음악회는 KBS 탑밴드 시즌2 준우승 팀인 로맨틱 펀치가 첫 무대를 장식했다. 이어 현악 4중주 ‘아르떼’ 는 클래식 악기로 ‘가을편지’ ‘옛사랑’ 등을 아름다운 선율로 연주해 대중의 마음에 평안을 선사했다. 또 포크가수 정태춘 · 박은옥 부부는 ‘탁발승의 하루’ ‘시인의 마을’ ‘촛불’ 등 히트곡을 선보였다.



진성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내소사는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빼어난 경관으로 ‘신해정승’ 으로 불린다”며 “아름다운 자연과 전통문화를 만끽하면서 몸과 마음의 치유를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한동일 관광복지국장이 대독한 축사에서 “만추가 아름다운 내소사에서 열리는 음악회를 축하드린다. 주변 경관과 문화재, 음악회를 마음껏 누리고 행복하시기 기원한다”고 전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도심사찰 자비행 20년 ‘지역사회 귀감’

광주 소원정사, 11월 3일 창립 20주년 법회

광주 도심 속 나눔사찰 소원정사(주지 도계)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광주 남구에 위치한 소원정사는 11월 3일 주지 도계 스님, 목포 반야사 주지 진각 스님, 관음사 소운 스님, 광덕사 주지 상진 스님, 빛고을포교원 연성 스님 등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20년간 이어온 나눔의 시간을 축하했다.

도계 스님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20년 전 만행을 왔다가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며 살아야겠다는 소망으로 조그마한 인법당인 소원정사를 개원하게 됐다”며 “지난여름 폭풍으로 일부 소실된 부분 공사를 마치고 선보이게 됐다.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소원정사는 그동안 부설 연꽃자비나눔본부를 통해 광주 대인동 쪽방촌 어르신을 위한 음식나누기, 어려운 환경에 있는 스님들 의료비 지원, 매년 3000만원 상당의 쌀을 지역사회에 전달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공무원 불자를 위한 떡 나누기를 비롯해 어린이 구호물자 전달, 독거노인 삼계탕 공양 등 의 자비행을 펼쳤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베트남에 전한 약사여래 손길

태고종 전북종무원 등 닥랑성 연합 의료봉사

태고종 전북종무원과 마이산 탑사, (사)붓다, 진안군자원봉사센터, 대구중구청 자원봉사센터가 베트남 닥락성에서 연합 의료봉사활동을 펼쳤다. 봉사활동은 11월 2일부터 3일간 부온마투옷 의과대학 및 약학병원과 함께했으며, 닥락성 끄므까르현 지역주민 1000여 명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봉사활동에는 태고종 전북종무원장 진성 스님, 전주 천지사 현진 스님, 대구중구청 자원봉사단 약사 유규하 청장 등 34명이 동참했다. 부온마투옷 의과대학 및 약학병원에서는 의사와 간호사, 의대생 자원봉사자 50여 명이 참여했다.

해외봉사단은 건강검진, 진료상담 외에도 효과적인 피임 방법, 감염 예방 조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교육 활동도 진행했다. 봉사단은 또한 한복체험, 메이크업, 네일아트 등 다양한 한국 문화교류 활동과 음악공연을 선물했다. 건강검진을 받은 지역주민에게는 5kg의 쌀과 의류, 각종 생활용품 등을 지원했다.



지역 인민위원회 위원장 부흥낫 씨는 “의료지원이 큰 도움이 됐다. 한국인의 연대 정신에 감동받고, 건강관리에 더 힘써야겠다고 느꼈다”며 “동시에 우호교류로 전북과 닥락성의 인적 외교 강화에도 기여했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대한불교종정협의회 법계품서식 봉행

15년 만에 대종사 31명 · 명사 8명 · 종사 20명

(사)대한불교종정협의회(회장 월인)는 11월 8일 양산 불광사 금강계단에서 대종사 · 명사 · 종사 법계품서식을 봉행했다. 총 59명의 품수자들은 가사를 수하고 수행과 전법에 진력할 것을 서원했다.

종정협의회장 월인 스님은 “금란가사는 한평생 수행한 수행자가 최고 지위의 올랐다는 증표”라며 “최고의 지도자들만이 수할 자격이 있는 만큼 앞으로 성불할 때까지 부처님 법을 지키고 수행과 전법을 위해 정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5년 만에 봉행한 종정협의회 법계품서식에서 법계를 품수한 스님들은 (사)대원불교조계종 청봉 스님을 비롯한 대종사 31명과 (사)대한불교승가종 무착 스님을 비롯한 비구니 명사 8명, (사)대한불교승가종 선조 스님을 비롯한 종사 20명이다. 이날 월인 스님은 대원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법경 스님과 대한불교승가종 무착 스님에게 종정협의회 발전에 노력한 공로를 인정해 표창패를 수여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인생 2막’ 은퇴 출가…일본서 ‘인기’

日 묘신지파, 제2 인생프로젝트
2013년 본격 가동…문의 줄이어
스님 없는 사찰 증가 대한 대책
희망자들 1년 합숙 중 의례 익혀

박영빈 객원기자



점차 증가하는 ‘정년 후 출가자’가 일본에서 화제다. 사진출처=빅글로브뉴스

50년 넘게 100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인생 100년 시대’가 도래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법적으로도 오는 2025년부터는 기업의 65세 이상의 고용 확보가 의무화된다. 한편 일본에선 정년퇴직 후 ‘제2인생’으로 출가자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도 늘고 있어 화제다.

지난 10월 29일 일본의 ‘빅글로브 뉴스’는 최근 증가하는 ‘정년 후 출가’의 현황에 대해 보도했다.

일본에서 정년 후 출가자 프로그램을 가장 활성화하고 있는 종단은 임제종 묘신지파(妙心寺派). 종문활성화 추진국의 고문 쿠시 쇼코 스님은 “2012년부터 ‘제2의 인생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준비를 시작해 1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기동했다. 그동안 살아왔던 생활을 바꾸어 새로운 자신을 찾고 싶다는 분들의 문의가 많다”며 정년 후 출가에 대한 문의가 점점 늘고 있다고 밝혔다.

종단차원에서 출가자의 모집과 지원을 하는 이유에 대해 쇼코 스님은 두 가지로 설명했다. 스님은 “첫째는 우리 종단인 묘신지파의 사찰이 일본 전국에 약 3300개소가 산재해 있지만, 그 중 약 1300곳의 절에는 상주하는 스님이 없다”면서 “젊은 출가자가 감소하면서 앞으로도 이런 사찰이 늘어날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사찰을 지켜나가면서 지역과 교류를 이어갈 수 없을까 하는 고민에서 시작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번째는 지난 세대는 고속 경제성장을 이끌어오며 자기 자신은 돌아보지 못한 분들이 많다”면서 “이런 분들이 종교적인 가치관을 통해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가꾸는 인생을 보낸다면 어떨까? 하는 제안으로부터다”라고 설명했다.

묘신지파 측은 정년 후 출가를 희망하는 자에게 1년에 몇차례 교토의 본산에서 실시하는 연수회의 참가, 혹은 특별히 마련된 도량에서 1년간의 합숙하며 기본적인 수행과 의례를 익힐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마련해 두었다.

쇼코 스님은 “경을 읽거나 좌선을 하는 교학과 수행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일상생활 속에서의 행동을 제대로 확립해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단순히 종교적인 수행만을 생각하거나 속세와 다른 삶으로의 도피를 생각하고 출가 프로젝트에 들어온 참가자는 오래가지 못했다고 전했다.

제도 활성화 추진국 측도 “스님이 되면 괴로운 삶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오해해서 오시는 분들도 많다”면서 “출가하기 위한 연수회비, 승복이나 법구의 구입 등은 각자 개인의 실비 부담으로 부탁드리고 있다. 승적을 얻더라도 종단 측에서 100% 모든 경제적인 부분을 지원하는 일도 없다”며 사회로부터의 도피가 목적으로 출가를 선택하지 말아 달라 부탁했다.

지난 10년간 진행돼 온 출가 프로젝트에는 약 600명 정도가 문의해왔고, 이중 끝까지 수료한 이는 약 200명, 이 가운데 실제 출가해 승적을 취득한 이는 60명, 주지로 부임한 이는 10명, 이외에 주지는 아니지만 거주지역의 사찰을 관리하는 형태로 절을 지키는 이도 10여 명이다. 이외는 각각 포교사나 좌선지도 등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13년도의 프로젝트로 출가하여 나가노시에 소재한 사찰을 관리하고 있는 한 스님은 “정년 후의 평안한 삶이 아닌 진정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는 진지한 마음으로 출가하는 것이 좋다. 수행은 수행, 생활은 생활이 아닌 지난 인생을 재검토하면서 남은 인생을 찾아가는 길이 바로 정년 후의 출가”라며 “다시 새로운 삶의 굴레에 들지만 마음은 자유롭다”며 웃어 보였다.

한 구덩이서 불상이 대량 나온 까닭은?

中 허베이성 업성 유적, 발굴 비화
온전 불상 2895점 · 파편 3000점



업성유적지에서 출토된 ‘담부조석가상’. 신체에 채색과 개금의 흔적이 뚜렷하다. 사진출처=중국신문사

중국 허베이성(河北省) 한단시(邯鄲市) 린창현(临漳県)은 한때 업성(鄴城)으로 중국 북부의 고대사에 매우 중요한 대도시였다. 지난 2012년 실시된 고고학 조사를 통해 업성유적에선 대량의 불상이 출토돼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10월 30일 ‘중국 신문사’는 업성유적 출토 불상군에 대해 보도했다.

업성은 한나라 말기인 3세기 초부터, 남북조시대인 6세기 말까지 중국 북부의 중요한 도시다. 특히 〈삼국지연의〉의 조조가 자신의 본거지로 삼은 도시다. 또 이곳은 중국 불교의 중요한 초기 거점으로 3세기경 서역 출신 스님인 불도징이 이곳 업성을 중심으로 불교를 포교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2012년 중국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조사팀은 업성 유적지를 발굴하던 중, 대량의 불상이 매장된 구덩이를 찾았다. 구덩이는 가로세로 약 3.3미터, 깊이 1.5미터의 사각형 흙구덩이로 3000점이 넘는 불상과 불상편들이 발굴됐다. 허리쥔 부주임은 “이번 업성에서의 발굴된 불상들은 중국불교사의 절반을 말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16일간의 발굴작업에서 비교전 온전한 모습으로 출토된 불상이 2895점, 파편으로 출도된 불상은 3000점 전후로 이 가운데 명문이 확인된 출토품은 약 300점이다. 출토품은 대부분 업성이 수도였던 동위로부터 북제에 걸쳐 있지만, 그보다 앞선 시대의 불상이나 후대인 당나라 때의 불상도 소수 출토됐다, 허 뤼쥔 부주임은 “업성에서의 출토는 불상을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시대에 따른 불상조상의 특징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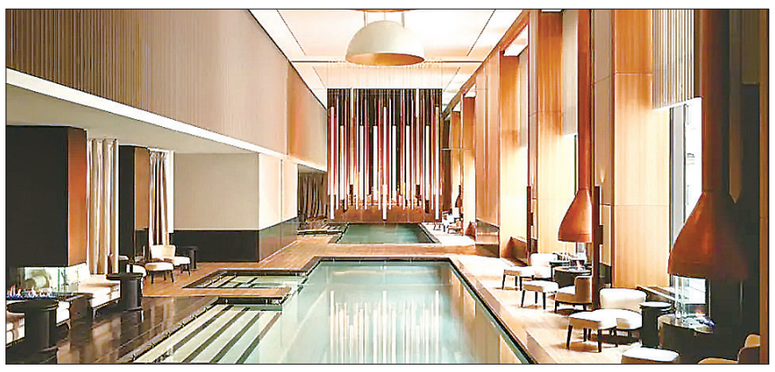
발굴된 불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불상은 5세기 중후반 북위시대의 작품인 ‘담부조석가상(譚副造釈迦像)’으로 전체 높이 1.28미터의 대형 석불로 불상을 조성한 공양자인 담부의 이름을 따 이름 지어졌다. 석가상에는 전체적으로 채색층이 남아있고 금박을 입힌 흔적이 명확하다. 또 광배에는 공양자인 담부의 가족이 표현돼 있어 주목을 끈다. 특히 불상 양식에서 간다라 미술 양식도 두드러져 중국 북방의 불상변천사에 중요한 자료로 꼽힌다.

허리쥔 부주임은 “업성은 북주의 무제(560~618)때 한차례 폐불탄압이 있었고, 이후 6세기 말 수나라때 한번 복원되었다가 당나라 때 또 몇 차례 불교의 탄압이 가해졌다. 이 불상군들은 분명 최소한 당나라 때의 폐불로 인해 매립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뉴욕 도심 호텔서 스님과 명상수행을…

맨해튼서 웰니스 가능한 곳 입소문
티베트 스님, 마음챙김 직접 지도



스님과 영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아만 뉴욕호텔 모습. 사진출처=포브스

“나는 전형적인 맨해튼의 교통체증 때문에 2분 늦은 시각인 7시 32분에 아만 뉴욕 호텔(Aman New York)에 도착했습니다. 이른 아침 출근길 교통 체증으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만 뉴욕의 명상 스튜디오에 들어서자마자 뉴욕에선 들을 수 없는, 고요한 침묵을 맞이했습니다.” (스펜서 웨일리)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내려다보면 느껴지는 도시의 분주함, 그 창을 뚫고 들어오는 아침 햇살, 그리고 햇살이 비추는 금귤나무 한 그루. 아만 뉴욕은 복잡한 뉴욕에서 이질적이면서도 ‘공존’이란 단어가 참 잘 어울리는 공간이다.

미국의 경제 매체 포브스(Forbes)는 11월 1일 “맨해튼에서 도시 생활을 하며 웰니스를 접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바로 이곳일 것”이라며 아만 뉴욕의 웰니스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한 스펜서 웨일리(Spencer Whaley)의 기고문을 실었다.

아만 뉴욕의 웰니스 프로그램은 크게 명상, 마음치료, 육체적 운동, 스파 등으로 나뉜다. 각 프로그램이 3층에 각 층마다 2322㎡ 규모로 구성돼 있다.

명상 지도는 캐나다에 티베트 불교센터를 설립한 게세 용동(Geshe YongDong) 스님이 맡고 있다. 게세 용동 스님은 가부좌 자세로 앉아 대중에게 “손끝에 감각을 집중하라”고 주문한다. 그리고 주위가 분산되는 게 느껴질 때면 ‘쉿’ 소리를 내며 집중시켰다. 그렇게 30분 간 명상을 이어간 뒤 스님은 대중에게 “차분해지고, 평안해지고, 의식을 깨었습니까?”라고 물었다.

스펜서 웨일리는 “처음엔 집중하기 어려웠지만 안절부절 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면서 나는 점차 잡념들이 내 무릎 위에 부드럽게 놓이는 것을 느꼈다”며 “주변을 보니 아침 햇살과 도시의 격자무늬가 동시에 눈에 들어왔다. 진짜 아름다운 게 무엇인지 그제야 깨달았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그는 “스님은 내 집중이 흐트러질 때마다 단호하고 분명한 어조로 정신을 집중시켰다며 ”깨달음은 하루아침에 얻을 수 없다는 걸 알지만 신기하게도 앉아있을수록 힘들기 보단 더 감각이 살아나는 느낌이었다“고도 했다.

아만 뉴욕은 뿐만 아니라 하버드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기능의학 전문가 로버트 그라햄 박사와 크리스토버 치아 박사가 함께 만든 의료 및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마음챙김 및 스트레스 관리, 체중 관리 및 해독, 스포츠 성능 향상 등이 포함된다.

이밖에 아만 브랜드의 글로벌 웰니스 홍보대사인 테니스 선수 마리아 샤라포바(Maria Sharapova)와 함께 만든 반나절 운동 프로그램도 인기를 끌고 있다.

박정현 객원기자

인도-스리랑카, 불교 교류 MOU

인도, 스리랑카에 1500만 달러



사진출처=adaderana

인도가 스리랑카에 양국 간 불교 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1500만 달러를 지원했다.

지난 11월 3일 비즈니스스탠다드닷컴 등 외신에 따르면 양국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는 라닐 위크레마싱헤 스리랑카 대통령과 니르말라 시타라만 인도 재무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콜롬보에 위치한 대통령 관저에서 이뤄졌다.

1500만 달러 보조금으로 시작될 첫 번째 프로젝트는 스리랑카 전역의 종교 유적지에 태양광 전기를 공급하는 것으로 1000만 달러가 할당됐다.

나머지 보조금은 불교 사찰의 건설 및 개조, 역량 개발, 문화 교류, 고고학 협력, 유물 및 기타 상호 관심 분야의 상호 전시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양국은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인도와 스리랑카 간 불교 교류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이 보조금은 인도와 스리랑카 사이의 오랜 불교 관계를 강화하고 두 나라를 하나로 묶는 깊은 역사적, 문화적 유대를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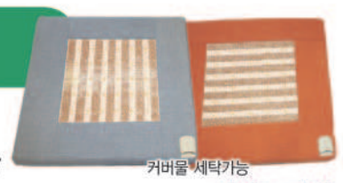
박정현 객원기자

김오곤 한의사가 강력추천



그린에너지 전속모델 한의사 김오곤

온열요법 건강매트 · 방석



커버물 세탁가능

일반황토보다 187배가 넘는 고농축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는 게르마늄 황토알파토(사계절용)

36.5 체온이 올라가면 면역력을 높여주고 면역력이 올라가면 자연치유력을 강화시킵니다.

2만개의 게르마늄황토알파토 볼이 촘촘히 박혀있어

체온을 올리고 세포를 활성화하며 독소를 배출함으로써 체온이 1도 상승하면 림프구 계통인 세포, NK세포가 활성화되고 면역력은 5~10배 강해져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 세균을 없애고 모세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과 세포조직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노화방지, 신진대사 촉진, 만성피로 등 각종 성인병 예방에도 큰 효과를 보입니다.

매트 99만원(SS사이즈 : 1100×2000)



게르마늄황토알파토 건강매트 · 방석의 효능

- 혈액순환개선, 피로회복, 면역력강화
- 근육통완화, 세포활성화, 퇴행성협착증 개선
- 교통사고후유증, 디스크치료에 도움
- 혈액순환촉진, 신진대사 원활
- 통증완화(신경통, 관절통, 견통예방)
- 숙면(불면증, 피로회복, 좌골신경통) 효과
- 생체의혈류개선(고혈압, 저혈압)
- 암예방(온열에 의한 악성종양 사멸) 효과

방석 35만원

황토알파토 수제약제 비누

★ 코로나 예방 효과 증명 ★

피부질환 건조한 피부에 효과가 큽니다.

- 주요성분 : 천연식물성오일, 포졸란, 피톤치드, 히아루론산, 비타민E 등이 함유된 천연 수제비누로 계면활성제와 경화제, 인공향료 등을 첨가하지 않은 수제비누 입니다.

기능성 약제비누
한박스(3개) 3만원
식약처 허가 업체 제조

“황토알파토”란? 백악기 시대의 화성암으로 고농축 미네랄을 함유하여 세계에서 주목하는 고급미용재료 입니다.
아주 가벼운 광물로 다공성의 공기 구멍을 갖고 있어 피지 및 각질의 흡착 및 제거 효과가 뛰어나고 천연 무기질의 미네랄 성분이 풍부하여 젊고 생기 있는 건강한 피부로 가꾸어 줍니다.
민감성 피부에 효과, 오래 사용해도 무르지 않아 단단하고 좋습니다.

황토알파토 건강베개

- 수면의 질이 높아지면 삶의 질도 높아집니다.
- 경추척추통증개선
- 코골이 개선
- 목디스크 효과
- 지압효과
- 거북목 통증완화

베개를 선택할 때, 보통 6~9cm 높이의 베개가 가장 적당하다. 옆으로 누웠을 때 목뼈가 위나 아래로 휘지 않고 등뼈와 일직선으로 유지되어야만 목에 무리가 가지 않기 때문이다. 성인 남자의 경우 바로 누운 자세에서 7.9cm, 옆으로 누웠을 때는 9.5cm의 높이가 적당하다. 여자는 바로 누웠을 때 6.3cm, 옆으로 누웠을 때 7.3cm가 적당하다. 너무 낮은 베개를 베 면 몸이 불편하고 일자목이 될 수 있다. 한편, 베개를 뺄 때는 머리를 받치기보다는 목을 받친다는 느낌으로 베는 것이 좋다. 목의 근육이 이완돼 편안한 느낌을 주며 목뼈가 정상적인 C자 곡선을 유지할 수 있어야 숙면을 취할 수 있어서다.



베개 20만원

그림액자난로

공기오염 NO! 탄소배출 NO!
전자파 NO! 전기요금 걱정 NO!
난방비는 내리고!
건강난방은 올리고 인테리어 효과까지!!

원적외선 대류 복사열 건강난방



실내 · 외 활용도 높음, 보조난방
★ 열효율이 높아 화장실 동파예방 ★

탄소에너지 난로 국내산입니다.
최고온도 105℃
원적외선 대류 복사열 난방으로 90%이상 절감

공기중 산소를 태우지 않고 수분을 데우는 방식으로 가까이 사용해도 전자파 발생이 없어 인체에 무해하며 빛이 공기를 투과하지 않고 직접 물체에 도달합니다. 음이온 공기정화 기능으로 인체 살균작용, 향균 및 곰팡이 제거효과 ※ 야외화장실 추천(화장실 냄새제거) 음이온발생※

무색 표면 온도가 100도 넘어도 색깔이 없습니다.
무취 공기중에 산소와 음이온이 잡냄새를 잡아줍니다.
무음 전기 돌아가는 소리가 전혀 없습니다.

액자난로 15만원

그 린 에 너 지
GREEN ENERGY COMPANY

제품문의 031-542-2735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319-16 (무봉로 15)

계 좌 : 농협 1186-02-058581
예금주 : 그린에너지(이도연)

전제품 국내산

환지본처 오대산 사고본, '조선왕조실록박물관'서 만난다

11월 11일 개관식…12일 정식 개관
실록 110년 만에 오대산 품으로
월정사 기부가 결정적 계기 작용
왕조실록 전시되는 유일 박물관
실록 연구 · 지역문화 활성화 기대

강원도 평창=신중일 기자


조선왕조실록, 왕실의궤 오대산사고본 환지본처와 함께 새롭게 문을 연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 전경.

강원도 평창 월정사가 수호했던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이 110년 만에 제자리로 돌아온다. 환지본처된 오대산 사고본은 새롭게 조성된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 에서 만날 수 있게 됐다.

문화재 국립고궁박물관(관장 직무대리 노명구)은 11월 9일 강원도 평창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실록박물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선왕조실록과 조선왕조의궤의 오대산 사고본 원본을 원 소장처였던 강원도 평창군 오대산으로 돌려보내기로 하고, 실록과 의궤를 보관 · 전시하는 실록박물관을 설립해 11월 12일 정식 개관한다" 고 밝혔다.

일제 반출…불교계 중심돼 환수운동

조선시대 지방 외사고 중 하나인 오대산사고에 보관 중이던 실록과 의궤는 당대 기록유산의 정수를 보여주는 문화유산이다. 월정사는 오대산사고의 수호사찰로서 주지가 수호총섭을 맡고 승병 20명이 주둔하며 실록을 지켰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인 1913년 오대산사고 실록 전량과 의궤 일부가 일본으로 반출됐고, 줄곧 일본에 수장돼 있었다. 2006년 불교계를 중심으로 '조선왕조실록, 의궤 환수위원회' 가 출범해 환수운동을 펼쳤고, 결국 일본 도쿄대가 서울대에 오대산사고본 실록 47권을 기증했다.

2011년에는 모든 오대산사고본을 되찾기 위해 '조선왕조실록, 왕실의궤 제자리찾기 추진위원회' 가 창립됐고, 그해에 의궤 44종 81책이 한국으로 돌아왔다. 나머지 오대산 사고본 실록들은 2017년에 환수됐으며, 이에 따라 현재 오대산 사고본 실록은 75책, 환수된 의궤는 82책이 전해진다.

환수된 실록과 의궤는 줄곧 서울 종로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돼 왔지만, 월정사와 강원도를 중심으로 '범도민환수위원회' 가 창립되며 본래 소장처인 오대산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22년에는 오대산사고본 환지본처에 대한 국회 결의안이 본회의 통과하고, 월정사가 실록과 의궤 영인본을 전시하던 왕조실록 · 의궤박물관을 국가에 기증하며 실록박물관 개관이 급물살을 탔다. 이후, 실록박물관은 리모델링 작업 등을 거쳐 개관이 이뤄지게 됐다.


조선왕조실록박물관 전시관 모습. 실록과 의궤 원본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국립박물관이다.

실록, 의궤 원본 전시 유일 박물관

12일 공식 개관하는 실록박물관은 무엇보다 실록의 원본을 상시로 직접 볼 수 있는 유일한 박물관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실록과 함께 오대산 사고본 의궤 원본도 전시된다. 박물관은 총 면적은 3,537㎡로, 지상 2층 규모로, 관련 유물 1207여 점을 보존하고 전시하는 수장고와 상설전시실 · 기획전시실 · 실감형 영상관 등 다양한 공간들로 구성됐다.

이번에 우선 개관하는 공간은 상설전시실이다. 총 3부로 구성돼 있으며, 오대산 사고에 보관했던 실록과 의궤의 편찬과 일제강점기인 1913년에 반출된 후 110년 만에 본래의 자리인 오대산으로 돌아오기까지의 여정을 살펴보면서, 국외 반출 문화유산 환수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짚어 볼 수 있는 전시로 꾸며졌다. 기록의 나라였던 조선왕실의 실록과 의궤의 역사적 의미와 내용, 오대산 사고본의 특징, 사고 수호 사찰들의 역할 등을 세세하게 정리해 조명하고 있다.

특히, 오대산 사고본만의 특징인 교정쇄본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오대산사고 실록 중 〈성종실록〉 9책과 〈중종실록〉 50책은 다른 사고본 실록과 달리 교정을 보았던 흔적이 남아있다. 원래 실록은 몇 차례 원고를 인쇄해 교정을 본 뒤 새롭게 인쇄해 정본을 만들고 교정쇄본 폐기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임진왜란 이후 유일하게 남은 전주사고본을 기준으로 실록을 다시 편찬하는 과정에서 물자가 부족해 교정쇄본을 남겨 오대산사고에 봉안했다.

실록박물관은 "오대산 사고본 실록은 교정지의 가장자리를 잘라 제본하였기 때문에 다른 실록에 비해 책의 크기가 작고, 글자를 교정했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다"며 "오대산 사고본 〈성종실록〉과 〈중종실록〉은 최종 교정쇄본을 정본 대신 봉안한 유일한 사례이며, 실록의 제작 과정과 조선시대의 교정 체제를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라고 설명했다.

'문화분권시대'를 여는 박물관으로

문화재청은 실록박물관을 실록 상설전시와 더불어 실록과 의궤를 통합 연구하는 기관이자 지역 문화 향유 중심지로 발돋움시킨다는 계획이다.

노명구 국립고궁박물관장 직무대리는 "실록박물관이 여러 곳에 나눠 소장되어 있는 실록과 의궤의 통합 연구의 중심 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실록, 의궤의 체계적 보존 및 관리와 조사 연구,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세계기록유산의 가치 확산, 환수 문화유산 관련한 국제 교류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일본에 있던 오대산 사고본 실록과 의궤를 환지본처시키고, 다시 오대산으로 모시기까지 많은 부침이 있었지만, 비로소 제자리에 모실 수 있어 감회가 새롭다. 이는 월정사를 비롯한 불교계와 강원도민의 염원이 한데 모여 이뤄질 수 있었다"면서 "이제는 문화분권의 시대다. 제자리를 찾은 문화유산이 생명력을 갖게 되면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실록박물관의 입장료는 무료이며, 매주 화요일은 휴관일이다. 11~4월에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하며, 내년 5~10월부터는 관람시간을 오후 5시 30분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인터뷰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

"제자리 찾은 실록…지역 활성화 기대"

오대산 사고본 환수운동 산증인
의궤博 기증으로 환지본처 견인
"문화재는 제자리에서 가장 빛나
오대산사고본 환수, 영혼의 회복"



"오대산 사고에 있던 조선왕조실록 · 왕실의궤 원본이 아닌 영인본이 있는 박물관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영혼이 없는 박물관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종단과 상의해 월정사 실록 · 의궤박물관을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 으로 새 단장해 운영하는 것을 조건으로요."

11월 9일 만난 조계종 제4교구본사 주지 정념 스님〈사진〉은 오대산사고본 환지본처의 결정적 계기가 된 월정사 실록 · 의궤 박물관의 국가 기증에 대해 이같이 밝히며 말머리를 풀었다.

정념 스님은 2006년 시작된 조선왕조실록 · 왕실의궤 오대산 사고본 환수운동의 산증인이다. 2006년 3월 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출범한 조선왕조실록 환수위원회에서 정념 스님은 철안 스님(당시 봉선사 주지)과 공동의장을 맡아 실록 환수를 주도했다.

이후 이어진 의궤 환수에도, 오대산 환지본처를 위한 범도민 운동에도 그 중심에는 항상 정념 스님이 있었다. 이는 월정사가 역사적으로 오대산 사고를 지켰던 수호사찰이었고, 현재 그 정신을 이어가는 후학으로서의 책임감에서 이뤄진 것이다.

"월정사는 1606년 조성된 오대산 사고의 수호 사찰이었습니다. 당시 월정사 주지는 수호총섭이었고, 승병 20여 명이 주둔하며 사고를 지켰죠. 사고를 지키는 수호신장의 책임은 지금도 월정사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으로부터 실록과 의궤를 찾아오고, 오대산으로 환지본처시키는 일은 월정사의 의무였습니다."

그런 만큼 110년 만에 오대산을 다시 찾은 실록과 의궤를 바라보는 정념 스님의 소회는 남달랐다.

"'환지본처는 '본래 자리로 돌아왔다' 는 의미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고향에 돌아왔을 때 편안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문화유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유산은 제자리에 있을 때 가장 빛납니다. 실록과 의궤는 본래 자리인 오대산으로 돌아옴으로써 그 영혼과 역사가 회복된 것입니다. 이 같은 성과에는 무엇보다 불교계의 원력과 강원도민들의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오대산 사고 수호총섭으로서 책임을 마무리한 정념 스님의 얼굴은 편안해 보였다. 이제는 개관하는 실록박물관이 지역 문화 중심지로 활용 · 발전되기만을 바라고 있었다.

"실록박물관에 수장된 실록과 의궤는 굉장히 큰 문화 자산입니다. 이를 박물관과 지역이 함께 교육프로그램, 문화콘텐츠를 만들어 관광 · 경제 등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50돌 한국불교학회 "정법 밝히는 학회 되겠다"

한국불교학회, 창립50주년 기념식
권기종 명예교수 등 공로패 수여
탄허학술상에 이원석 교수 수상
11월 4일 국제학술대회 이어져


한국불교학회는 11월 3~4일 동국대 일원서 창립50주년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동국대 팔정도광장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참가자들.

창립 50주년을 맞은 한국불교학회가 부처님 정법을 밝히는 학회가 될 것을 다짐했다.

한국불교학회(회장 백도수)는 11월 3일 동국대 중강당에서 학회 창립 5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창립 50주년 기념식에는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을 비롯해 제22대 학회장 성운 스님을 비롯한 역대 학회장, 백도수 현 학회장, 이평래 창립 50주년 기념사업 집행위원장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했다.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은 축사를 통해 학회 창립 50주년을 축하하고 세계 학계를 선도하는 학회로 발전하길 기원했다. 돈관 스님은 "근대 이후 서양문물이 쏟아지며 한국불교는 오래된 사상으로 취급받기도 했지만, 현대에 들어와서 한국불교는 세계로 나아가고 있다. 이는 한국불교 학자들의 연구 성과가 축적돼 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치하했다.

백도수 한국불교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학회 운영 지표로 △정법을 보편화하는 학회 △교단을 빛나게 하는 학회 △불교를 세계화 하는 학회를 제시하고 새로운 50년을 열겠다는 포부를 내놨다.

백 학회장은 "운영 지표를 현실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회원 상호간의 긴밀한 유대를 모색하고, 이를 통해 불교에 관한 효율적인 연구 및 학술활동에 관한 제반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올해로 50주년을 맞이한 한국불교학회는 반세기 동안 쌓아올려 탄탄해진 대외적 위상을 굳건히 하고, 연구의 양과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함께 배우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학회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학회 발전에 앞장선 故윤용숙(실상화) 보덕학회 설립자와 권기종(제15대 학회장) · 김선근(제18대 학회장) · 김용표(제19~20대 학회장) · 권탄준(제21대 학회장) · 성운 스님(제22대 학회장) · 혜거 스님(한국불교학회 명예고문)에게 공로패가 수여됐으며, 자현 스님(월정사, 중앙승가대)과 김영미 부산대 교수에게 감사패가 전달됐다.

또한 제3회 탄허학술상 시상식도 진행됐다. 올해 수상자로는 이원석 동국대 다르마칼리지 조교수가 선정됐다.

기념식 이후에는 이평래 충남대 명예교수가 '한국불교학회의 반세기 회고, 그리고 나아갈 길' 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했다.

한국불교학회는 11월 4일 동국대 만해관 2층에서 창립 5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를 이어갔다. 학술대회는 김용표 명예교수의 '종교불학의 학문적 성격과 해석학적 과제-문명전환기의 불교연구 지평 확대를 위한 시론'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세계 석학들의 초청 강연이 진행됐다. 특히 김 명예교수는 '종교불학(宗教佛學, Buddhology of Religions)' 이라는 새로운 연구 방법론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김 명예교수는 " '종교불학' 은 종교학과 세계종교 이해를 기반으로 한 불교의 새로운 인식 방법으로, 종교에 대한 불교학적 해석들도 해당된다"며 "종교불학은 '불교에 대한 종교학적인 이해' 및 '종교에 대한 불교학적 이해' 를 목표로 하는 '불교적 종교학' "이라고 강조했다.

학술대회에서는 △초기불교와 부파불교 △유식불교 △불교인식론 △현대사회 윤리와 계율 △한국불교학의 나아갈 방향 등 9개 분과에서 44명의 학자들이 다양한 연구논문들을 발표했다.

신중일 기자

인류무형유산 '연등회', 이탈리아 장엄한다

연등회보존위, 로마서 특별전
'빛의 우주, 연등회'를 주제로
11월 10일부터 12월 1일까지
연등회 역사, 장엄등 등 선봬


11월 10일 이탈리아 로마 소재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빛의 우주, 연등회' 특별전에서 현지인들이 연등 아래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연등회' 가 이탈리아에서 선보인다.

연등회보존위원회(보존위원장 진우, 이하 연등회보존위)는 "주이탈리아 한국문화원과 함께 2023 로마 한국주간(11월 5일~11월 12일)의 주요행사로 '빛의 우주, 연등회' 특별전을 11월 10일부터 12월 1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전시는 K-문화의 원류이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연등회를 이탈리아 최초로 소개하는 자리로 22건 205점의 연등회 관련 작품들이 전시된다.

주요 전시 작품은 실상사 백장암 석등(국보 제10호), 불전사물(佛殿四物)인 범종, 법고, 목어, 운판을 형상화 한 장엄등이다. 이탈리아 로마의 상징이자 세계적인 문화유산인 콜로세움을 모티프로 제작한 장엄등도 이번 전시를 통해 새롭게 선보인다.

또한, 연등행렬을 재현한 닥종이 인형과 행렬등 120여 점을 이용해 한국문화원 테라스에 행렬등 터널을 제작하고 이탈리아 현지인들이 한국 연등회의 아름다움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전시를 구성했다.

조계종 문화부장 혜공 스님은 11월 9일 열린 특별전 개막식 축사를 통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연등회를 유럽 문화의 중심인 이탈리아에서 소개하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연등회가 세계인들이 향유하는 국제적 페스티벌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 하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신중일 기자

창녕 광룡사 일원, 명승 지정된다

문화재청, 10일 지정 예고
"고찰과 풍광 어울림 탁월"


창녕 관룡산 광룡사 일원.

창녕 관룡산 광룡사 일원이 국가지정 유산 명승으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창녕 관룡산 관룡사 일원과 곡성 함허정 일원을 국가지정유산 명승으로 지정 예고했다"고 11월 10일 밝혔다.

'창녕 관룡산 관룡사 일원' 은 신라시대 고찰로 알려진 관룡사와 그 뒤쪽에 병풍처럼 둘러진 기암괴석의 산봉우리 등 산세가 어우러져 수려한 경관을 이루고 있다. 또한 반야의 세계로 향하는 용이 이끄는 배라는 뜻의 '반야용선(般若龍船)' 을 재현한 듯한 불상인 용선대(龍船臺)와 관룡사의 많은 불교 문화유산이 자연과 서로 조화를 이루는 독특한 경관적 가치를 지녔다.

명승으로 같이 예고된 '곡성 함허정 일원' 의 함허정은 조선 중기 문사 제호정 심광형(沈光亨, 1510~1550)이 섬진강(순자강) 일대 구릉지에 건립한 정자다.

함허정 일대는 풍수상 거북이가 용궁을 향해 입수하는 형국으로, 거북이의 등 위에 함허정(涵虛亭)이 자리하고 절벽 아래의 깊은 웅덩이인 용소(龍沼)와 구암조대(龜巖釣臺)라 불리는 하중암도가 있으며, 거꾸로 '용(龍)' 자를 새긴 용암(龍巖) 관련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문화재청은 창녕 관룡산 관룡사 일원, 곡성 함허정 일원에 대해 3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국가지정유산 명승으로 최종 지정할 계획이다. 신중일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1/8~11/14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시리즈1)육체의 한계를 넘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2	초기불교입문:초기불교 그 핵심을담다	각묵스님 지음	초기불전연구원
3	어싱:땅과의 접촉이 치유한다	클린턴 오버/김연주	히어나우시스템
4	무비스님 직지강설(상)	백운 화상/무비 스님	불광출판사
5	원각경 현담	규봉 종밀 현담	운당문고
6	초기불교이해	각묵 스님 지음	초기불전연구원
7	철학으로서의 불교(대원불교학술총서09)	마크 시더리츠	운주사
8	못다갚을 은혜(월운스님회고담)월운당도중사	월운해룡/신규탁 엮음/혜성 감수	운당문고
9	미얀마아라한의 수행:9위빠사나 선사들의 법문모음	강종미 편역	해장각
10	보리도차제광론2(나란다불교 학술원총서2)	쫑카파	도서출판나란다

책세상

‘신여성·수행자’ 일엽 스님 삶·사상 조명하다



김일엽, 한 여성의 실존적 삶과 불교철학

박진영 지음 / 김훈 옮김

김영사 / 2만5000원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수덕사 견성암에 주석하고 있을 당시 일엽 스님(1869~1971)의 모습.

1세대 신여성이자 구도자 ‘일엽 스님’
삶과 사상 등 조명한 철학적 평전
가부장적 사회 구조에 저항하다가
내면의 깨달음 추구…바탕엔 ‘자유’

김일엽 스님(1869~1971)은 한국 근현대사에서 그 스펙트럼이 다채로운 인물이다. 그는 한국 최초의 여류화가 나혜석, 현대적 글쓰기와 연기로 성공한 한국 최초의 작가 김명순과 더불어 1세대 자유주의 신여성으로 세간의 이목을 받았다.

신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성장해 신식교육을 받았던 김일엽 스님은 언론인이자 작가였지만,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1933년 수덕사로 출가해 구도자의 길을 걷는 비구니 스님이 됐다.

그간 김일엽을 연구한 학자들은 신여성으로서의 김일엽과 스님으로서 김일엽을 별개의 인물로 놓고 연구하거나, 출가 이후 김일엽은 여성문제를 포기한 인물로 평가하기도 했다. 하지만 박진영 미국 아메리칸대학교 종교철학과 교수는 김일엽 스님을 이해하는데 있어 둘을 나눠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김일엽 스님은 ‘자아와 자유에 대한 끈질긴 추구’라는 한 가지 일관된 주제를 삶을 통해 보여주고 있어서다. 이를 학문적으로 입증한 것이 최근 김영사를 통해 발간된 〈김일엽, 한 여성의 실존적 삶과 불교철학〉이다.

격동기의 한국 근현대를 치열하게 살아낸 김일엽 스님의 생애와 사상에 관한 평전 형식의 연구서인 이 책은 김일엽문화재단의 후원과 박진영 교수의 11년간의 원력,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진흥사업단의 지원을 통해 미국에서 영문으로 먼저 출간돼 화제가 된 후 이번에 번역·출간됐다.

책은 전체 7개 장을 크게 1부(1~3장)와 2부(4~7장)로 나눈다. 1부는 김일엽이 1933년에 출가하기 전까지 생애를 다루었다. 김일엽은 기독교 신자인 부모 아래서 태어나 한국과 일본에서 교육을 받았다. 그런 성장 과정을 거쳐 그녀는 신여성 운동의 대표적인 인물이자 한국의 1세대 페미니스트에 속하는 인물이 되었다. 김일엽은 문학잡지를 비롯해 나중에는 불교신문에도 글을 기고했다. 그 과정에서 점차 기독교에 대한 믿음을 잃었고, 백성욱 박사의 영향을 크게 받아 불교 수행을 시작했다.

1장 ‘빛과 어둠 사이(1896~1920)’는 김일엽의 어린 시절과 청춘기를 다룬다. 이 시기 김일엽은 한국의 진보적 여성들과 20세기 한국 사회 전체에 역사적인 업적을 남겼다.

2장 ‘보는 것과 보여지는 것(1918~1927)’은 당시 1세대 신여성 김일엽, 나혜석, 김명순의 삶을 제시하고, 당시의 대중이 그들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살피며, 3장 ‘반항의 의미와 무의미(1924~1927)’은 김일엽이 사회적 반란에서 실존적 불교로 넘어가는 과정을 다룬다.

2부(4~7장)는 김일엽이 출가한 1933년부터 사망한 1971년까지의 생애를 다룬다. 수덕사로 출가한 김일엽은 한국 비구니계의 대표적 인물이 됐다. 김일엽은 출가한 이후 20년 동안, 스승 만공 선사의 가르침에 따라 펜을 들지 않았다. 1960년에 이르러서야 다시 문학계로 돌아와 자신의 삶과 불교철학에 관한 세 권의 책을 썼다. 2부에서는 이 세 권의 책을 통해, 철학이자 종교로서 김일엽의 불교에 관해 다룬다.

4장 ‘나를 잃어버린 나(1927~1935)’는 적극적인 사회운동가에서 비구니 수행자로 변모하는 김일엽의 여정을 담았다. 5장 ‘화해의 시간: 어느 수도인의 회상(1955~1960)’은 〈어느 수도인의 회상〉(1960)에 나타나는 김일엽 스님의 불교관을 다룬다. 5장은 김일엽 스님은 자아를 ‘소아(小我)’와 ‘대아(大我)’를 구분하고, ‘대아’를 ‘무아(無我)’와 같은 것으로 보았다. 스님은 ‘대아’의 개념을 통해 여성과 남성 같은 성적 정체성을 비롯한 사회에서 만들어진 다양한 정체성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또한 김일엽 스님은 불교의 세계관을 ‘창조성’과 ‘문화’라는 용어로 특징지었다. 김일엽은 부처를 ‘위대한 문화인’으로 정의했고, 출가자의 수행을 문화인이 되는 훈련이라고 말했다.

6장 ‘여행의 끝: 행복과 불행의 갈피에서(1960~1971)’는 김일엽 스님을 비판하는 이들에게 응답하고, 불교와 사회의 관계, 성(聖)과 속(俗)의 관계를 살폈다. 또한 저자는 김일엽 특유의 철학적 사유 방식이 어떻게 ‘서사 철학’으로 나타나는지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7장 ‘살아낸 삶: 여성과 불교철학’은 젠더, 내러티브(서사), 불교, 철학, 의미 창조가 한데 어우러진 김일엽 스님의 삶이 남긴 유산에 관해 깊이 생각해보게 한다.

박진영 교수는 “김일엽의 삶의 두 국면, 즉 작가이자 여성운동가로서 김일엽과 승려로서 김일엽은 한 가지 일관된 주제를 보여준다. 바로 자유에 대한 끈질긴 추구”라며 “김일엽 스님의 삶과 철학을 통해 우리는 여성들이 어떻게 불교를 만나고 또한 철학을 만나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저자와의 만남 | 박진영 아메리칸대 교수

“주변인으로서 일엽 스님 고민들 내 자신이 마주한 문제 맞닿아”



2004년 국제학술대회 발표 후
김일엽 스님 관심…11년 연구
한계 넘기 위한 모습에 공감대

“김일엽 스님에 대해 연구하면서 2014년 스님의 저서 〈어느 수도인의 회상〉을 영어로 번역해 출간하게 됐어요. 당시 제가 살고 있던 미국 워싱턴에서 지인들과 조촐한 출판기념회를 열었는데, 할머니 한분이 손녀와 함께 참석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할머니께서는 김일엽의 책이 영문판으로 출간됐다는 소식을 듣고 기념회에 참석했답니다. 심지어 할머니는 영어를 읽을 줄도 모르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김일엽은 자신이 살고 싶었지만 살 수 없던 삶을 살았던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김일엽이라는 인물이 갖는 파급력이 엄청났음을 알게 됐습니다.”

11월 7일 만난 박진영 아메리칸대 종교철학과 교수는 당시 김일엽 스님이 가졌던 파급력에 대해 이와 같은 일화를 들었다.

김일엽 스님이 살았던 당시는 한반도에 근대가 태동되던 시기였지만, 여성들은 전근대적 가부장제의 굴레에 억압받았고, 그 틀 안에서 살아야 했다. 작가로서 페미니스트로서 이 같은 틀에서 벗어나기 위해 끊임없이 저항했던 인물이 김일엽이었고, 자유를 향한 갈망은 종국에는 내면의 깨달음으로 이어졌다. 이런 스님의 삶에 박 교수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김일엽 스님과 박진영 교수 둘 다 주변인으로 삶을 살았고, 살고 있어서다. 김일엽 스님은 신식교육 받은 엘리트 신여성이었지만, 가부장적 사회에서는 주변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밖에 없었고, 박 교수 역시 미국 학계에서 동양철학자, 그것도 비주류 한국 간화선 전공자이자 여성 학자로서 늘 한계를 마주해왔다.

“2004년 ‘한국의 비구니’를 주제로 열린 한마음선원 국제학술대회에서 ‘김일엽: 한국 불교와 근대성의 또 하나의 만남’을 발표했는데, 이후 11년 동안 연구해서 지금의 책을 발간할 수 있었습니다. 김일엽 스님을 꾸준히 연구할 수 있던 것은 제 문제와도 맞닿아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제가 한국 여성으로서 겪는 모습, 미국사회에서 동양 여성, 한국계 여성 동양철학자로서 겪는 모습들이 100여 년 전 김일엽 스님이 고민했던 문제들이기도 합니다. 김일엽 스님의 연구는 학문적 탐구과정이면서도 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기에 박진영 교수는 〈김일엽, 한 여성의 실존적 삶과 불교철학〉을 만나는 독자들이 자신에 대해 고민하고 사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랐다.

“김일엽 스님은 다양한 스펙트럼 안에서 이를 포용하려 했습니다. 신여성으로서, 수행자로서 자기 자신을 찾으려는 노력들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나는 어떤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신중일 기자

▲저자 **박진영 교수**는?

미국 아메리칸대 철학·종교학과 교수이자 학과장을 맡고 있다. 아시아인 최초로 미국종교학회 회장에 선출됐다. 동아시아 선불교와 화엄불교, 근대 한국 불교철학, 여성 철학, 동서비교철학을 중심으로 연구하고 있다.

최고의 『화엄경』 주석서, 『화엄경소론찬요』!
혜거 스님의 군더더기 없는 직역으로 만나다!

『화엄경소론찬요』
(華嚴經疏論纂要)
13~16권 출간





인류사에서 가장 위대한
『화엄경』의 가르침

『화엄경』은 부처님 세계에 대한 참모습을 밝히며
‘진정한 삶이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준다.
우리는 누구이며, 이 세계는 어떤 곳이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해답이
바로 이 『화엄경소론찬요』에 명쾌하게 펼쳐져 있다.

• 2016년부터 출간된 『화엄경소론찬요』는 총 25권 분량으로 완역될 계획입니다.

편저 혜거 스님 _ 탄허 스님을 은사로 득도. 평생 공부와 참선을 통해 자기 수행을 강조해온 스님은 경전 번역에 매진하는 한편, 1988년 도시 한가운데 금강선원을 열고 대중들에게 참선을 가르치고 있다. 현재 동국역경원장, 한국전통불교연구원 원장, 대원정사 회주, 탄허기념박물관 관장 등을 맡고 있으며, 2018년 제30회 포교대상 대상을 수상하였다.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

조선왕실 원찰 흥천사 성보 면면 살피다



대흥천사 불교미술
문명대 외 지음
한국미술사연구소 출판부
3만원

신덕왕후 능침사원으로 조성돼
조선 초기 최대 불교사찰 명성
불화, 불상 등 5개 분야 연구
전문가 참여…28편 논문 담아
"흥천사 대종 환지본처" 주장도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서울 성북구 흥천사(興天寺)는 태조의 비 신덕왕후의 능침사원으로 1397년에 조성된 후 왕실 원찰, 조계종 본사, 선종 수사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조선 초기 최대의 불교 대찰로 너무나 유명했다.

흥천사의 능침사원 기능은 태종 때 신덕왕후 능인 정릉이 성북구로 옮겨지면서 새로운 흥천사인 신흥사에 계승됐고 연산군 때 황화방 흥천사가 소실되면서 왕실 사원의 기능까지 계승돼 명실상부 성북구 흥천사(신흥사) 시대가 된 것이다. 그 후 숙종 때의 중창을 거쳐 고종 때 대원군의 흥천사 사명(寺名)의 복원으로 흥천사는 완전히 옛 흥천사 왕실사원의 모든 기능을 복원하게 된다.

흥천사가 다시 옛 사격을 복원한 것은 흥천사 회주 금곡 스님의 원력 때문이다. 특히 금곡 스님은 (사) 한국미술사연구소와 함께 흥천사의 역사와 불교미술에 대한 학술대회를 5년간 개최해 흥천사의 역사적 중요성을 심도 있게 조명하고 대중들에게 알렸다. 밝혔고 널리 알리는데 힘써왔다. 이를 통해 흥천사 비로자나불 삼신괘불도, 42수 금동천수관음보살상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되기도 했다.

이번에 발간된 〈600년 왕실원찰 대흥천사 불교미술〉은 지난 학술대회에서 발표됐던 논문들이 수정 · 보완된 것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흥천사의 역사와 사상(4편), 흥천사의 불교조각(6편), 흥천사의 불교회화(8편), 흥천사의 불교공예(6편), 흥천사의 불교건축(4편) 등 5개 분야, 총 논문 수 28편의 방대한 양이다.

이중에는 현재 진행형인 사안도 있다. 바로 보물 '흥천사 동종(대종)' 의 환지본처다. 주요 저자인 문명대 동국대 명예교수(한국미술사연구소장)는 '흥천사 대종 명문으로 본 흥천사의 성격과 대종의 보존' 을 통해 종에 새겨진 명문을 분석하고 향후 종의 보존 방향에 대해 제안했다.

문 명예교수에 따르면 대종에 새겨진 명문은 세조의 상서로운 치세를 천명하고, 이로 인해 회암사 석가여래사리가 분신(分身)하고 세종 때의 분사리가 다시 분사리해 그 수가 102과가 됐음을 기술하고 있다. 이에 세조는 크게 기뻐해 대사면을 내리고 손수 능엄경을 번역했으며, 불보살상 4구를 조성해 흥천사 사리각에 안치했다. 세조와 왕후는 사리각에 안치된 부처님께 예배하고 대종을 조성해 중생을 잘 인도할 것을 명령했다고 한다.

문 명예교수는 "흥천사 대종의 조성은 회암사 탑 사리의 분신이 계기가 됐음을 알 수 있다"면서 "부왕을 도와 훈민정음 창제에 기여한 세조가 〈능엄경〉을 번역한 것은 선종 흥천사의 기본 경전인 〈능엄경〉을 한글로 번역해 보급하는 것이야말로 불교 중흥과 국운융창을 여는 지름길로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보물로 지정된 흥천사명 동종.

흥천사 대종은 연산군 10년(1504)에 흥천사가 전소되고 중종 5년(1510) 공식적으로 폐사되면서 방치되다가 영조 23년(1747)에 경복궁 정문인 광화문에 걸리게 됐다. 이후 일제강점기에 광화문이 다른 곳으로 옮겨짐에 따라 덕수궁으로 이운됐다. 하지만 2006년 보물로 지정될 때까지 노상에 노출되면서, 관람객이 종에 낙서를 하는 등 제대로 된 보존이 이뤄지지 못했다. 현재는 보존처리를 마친 상태며, 수장처를 논의 중에 있다. 본래는 국립고궁박물관 앞에 보호누각을 만들어 전시하려 했으나, 흥천사와 불교계가 반대 입장을 피력해 중단됐다.

이에 대해 문 명예교수는 "흥천사 대종을 국립박물관으로 이안하는 방안도 있지만 모든 유물은 원 장소로 환지본처하는 것이 원칙이자 대세이기 때문에 좋은 방안은 아니다"라며 "이 방안보다는 원래의 흥천사로 이안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다. 정성을 다해 예경하고 보존하는 곳이 사찰 이상은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대흥천사 불교미술〉은 사찰의 불교미술을 면면을 조명하고 나아갈 방향을 조명하고 있다. 이는 한국불교미술사 연구에 중요한 모범사례로 평가된다.

한국미술사연구소는 "흥천사의 역사와 불교미술이 이 한 권의 저서로 모두 밝혀질 수 없겠지만, 그 실체에 대해서는 이번 연구서를 통해 어느 정도 조명해냈다고 본다"고 자평했다.

삶의 격을 높여 주는 영성의 모든 것



영성이란 무엇인가
필립 셸드레이크 지음
한윤정 번역
불광출판사
1만 6000원

영성이란 무엇이며, 그것이 삶에 어떤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지 분명하게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한마디로 정의하기 힘들 만큼 긴 역사를 가졌으며 광범위한 영역에 걸친 개념이 바로 영성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수 세기 동안 지속 · 발전해 온 '영성' 의 개념과 정의,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아우른다. 나아가 영적 태도 또는 영적 수행이 개인의 삶과 사회의 번영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 짚어본다. '왜 영성이 필요한가?' '최첨단 과학기술 시대에 영성은 왜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유행처럼 번지는가?' 이러한 물음에 대한 답을 주는 책이다.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영성을 특정 종교의 개념 정도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이는 넓고 깊은 영성의 스펙트럼에서 작은 부분일 뿐이다. 이렇게 좁고 제한적인 관점으로 영성을 이해하면 그것이 가진 진정한 가치를 파악하기 힘들다. 조금만 주의 깊게 들여다보라. 삶 전반에서 영성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금세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다. 사회과학 · 심리학 · 철학 · 젠더연구 같은 학문 분야는 물론이고, 보건의료와 심리치료 같은 의료 분야, 경제 · 경영, 예술과 스포츠 영역에서도 영성은 점점 더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처럼 오늘날 영성이 주목받는 이유, 인간 삶과 행복을 이루는 데 핵심적인 자질로 각광받는 이유를 저자는 "인간으로서 우리는 육체적 만족이나 정신적 우월감을 넘어선 목표들에 자연스럽게 끌리면서 더 깊은 의미와 성취를 추구한다"고 말한다.

영성이 무엇인지 몰라도, 그것을 삶의 도구로 가지지 못하더라도 사는 데 문제는 없다. 그러나 지금보다 나은 삶, 어제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고자 한다면 영성에 대한 이해와 영적 삶을 향한 노력이 필수적이다. 영성은 가장 깊은 차원에서 일상을 변화시키는 방식에 관한 것이며, 성장과 변화와 진보로 나아가는 자기 성찰의 토대이기 때문이다. 각자가 가진 영적 능력 또는 영적 성장의 가능성만큼 삶은 풍요로워질 것이다. 임은호 기자

책 속의 밑줄 긋기

영적 수행은 사람들이 삶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는 무언가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해 준다. 그러나 영적 수행을 실천하는 일은 쉽지도 편안하지도 않다. 훈련을 위해 즉각적인 즐거움을 가져다주는 활동에 쓸 시간과 에너지를 양보한다는 점에서 영적 수행에는 어느 정도 자기희생이 필요하다. – 56쪽

대체로 영성은 무엇이 인간 존재의 중심이거나 중심이어야 하며, 어떻게 인간 정신이 최대의 잠재력에 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의미한다. 영성은 인간이 최대의 삶을 영위하려면 순수한 물질적 향상 이상의 목표가 요구된다는 사실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야심 찬 개념이다. – 172쪽

가을에 읽을 불교시집들

잉크와 염불, 산채비빔밥 같은 시



우물에 빠진 은하수 별들
여태동 지음
달아실출판사
1만 원

계간 〈시와 세계〉 겨울호에 '어매의 어매' 외 5편으로 신인상을 받으며 등단한 여태동 불교신문 논설위원이 첫 시집 〈우물에 빠진 은하수 별들〉을 펴냈다.

시집에는 기쁜 일도 많고 곡절도 많은 우리의 일상을 활달하게 노래한 시 65편이 실렸다. 상념은 감추지 않고 상념 그대로 드러나고 그러면서 선취와 파격이 있다. 또 자연의 시은에 감사하는 소박한 농심이 있고, 고향의 언어는 실감나고 따뜻하다.

언론인으로서 세상을 바라보는 비판적 시선, 불교의 자비와 이타심 그리고 농부로서 생태와 환경에 관한 고민이 어우러졌다.

여태동 시인은 시를 통해 인간이 농사를 짓는 원초적인 물음을 던진다. '직업으로 농부' 가 아닌 지구를 살고 있는 '인류의 일원' 으로서의 농사가 공생하고 있는 동식물과 연관성을 따져본다. 20년 넘게 '도시농부' 의 삶을 살아가며 세상과 소통하고 있는 자신의 아름다운 삶의 일부분을 표현한 것이 인상적이다.

여태동 시인은 "시랍시고 끄적거리기를 30여 년, 첫 시집을 내고 우두커니 서서 나를 본다"면서 "학가산 바라다보이는 고향 막지고개에 초가삼간 지어 구들 놓고 군불 지피며 살며, 바지게에 활자 가득 지고 질밤재와 달밤재 오르내리며 시밭(詩田) 일굴 날 기다린다"고 출간 소감을 전했다.

▲시인 **여태동**은?

소백산과 태백산이 켜켜이 드리운 경북 영주 막지고개 산골마을에서 태어났다. 경북대 영문학과 졸업 후 동국대에서 사회복지학 석사,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불교신문 기자로 재직 중이다. 사찰과 전통 한옥 고택, 동화, 고승인터뷰, 도시농부 일기 등 10여 권의 책을 출간했고 법정 스님 관련 등 10여 편의 논문을 썼다.

일상 도처서 감지하는 아픔과 슬픔



지독한 설득
진효성 지음
도서출판 애지
1만 2000원

2014년 〈시와경계〉로 등단한 진효정 시인의 두 번째 시집 〈지독한 설득〉이 도서출판 애지에서 출간됐다.

이번 시집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아픔과 슬픔이다. 일상의 도처에서 아픔이나 슬픔을 감지하는 시인의 감각은 집요하고 예민해서 아픔이나 슬픔이 감상이나 비애로 추락하지 않고 긴장감을 획득하면서 아름다운 시로 빚어진다. 이를테면 빗물 속에 떨어진 칸나꽃을 보면서 "바닥에 떨어진 자기 혓바닥을/물끄러미 내려다보고 있다" 거나 바람에 밀쳐진 빨래를 보면서 "구겨진 빨래가 젖은 얼굴로 포개져 있었다"고 표현하는 식이다.

동료 시인으로부터 "자기 내면의 풍경을 집요하게 응시하고, 깊이 있는 통찰과 객관적인 언어로 그 풍경을 묵직하고 날렵하게 그려낸다"는 평가를 받아온 시인답게 이번 시집은 불필요한 치장이나 수다가 없고 자신의 아픔을 미화시키려는 어떠한 제스처도 보이지 않는다. 세계와 맞서는 시인의 눈빛은 가차 없다. 이처럼 직시의 힘으로 길어 올린 웅숭깊은 사유가 그의 시집을 더욱 묵직하게 만든다.

진효정의 시는 아픔과 슬픔으로 빚어내는데도 속으로 가두고 우려낸 탓에 곰삭은 맛이 우러난다. 이원규 시인은 추천사를 통해 "진효정의 시는 참 맛있다. 곱씹어볼수록 깊은 맛이 계속 우러난다. 슴슴하다가 문득 얼큰하고, 시큼 달콤하다가도 쓴맛이 확 돈다"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불교학술서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도서출판 운주사의 〈프라즈냐 총서〉



성철선사상
도대현/448쪽/23,000원

인도불교사
정순일/726쪽/35,000원

주역선해 연구
청화/510쪽/25,000원

율장의 승단분열 연구
자현/280쪽/15,000원

불성론 연구
최현민/368쪽/18,000원

불교의 마음챙김과 사상의학
불교와 사상의학 연구회 편/416쪽/23,000원

천수경 연구
정각/500쪽/28,000원

역경학 개론 우수학술도서
최종남 외/454쪽/23,000원

현수 법장 연구
계환/252쪽/15,000원

유식삼십송 풀이
후카우라 세이분 저/500쪽/25,000원

불교사회복지개론
조보각 외/408쪽/20,000원

한국 고대 정토신앙 연구
현송/320쪽/17,000원

경봉 선사 연구
정도/304쪽/17,000원

화엄경의 문학성 연구
도업/360쪽/18,000원

정토 수행관 연구
법상/524쪽/25,000원

정토불교의 역사와 사상 우수학술도서
현송/436쪽/23,000원

동산의 불교계 정화운동 연구
진관/242쪽/15,000원

한국불교 의례체계 연구
이성운/454쪽/23,000원

불교세시풍속
오인/446쪽/23,000원

삼계교 사상 연구
법공/424쪽/23,000원

범망경보살계본휘해
이원정 편/목정배 역/556쪽/28,000원

심오한 중도의 새로운 문을 여는 지혜의 등불
게쎄 텐진 남카/484쪽/24,000원

중국불교사상사
김진무/496쪽/25,000원

숭산행원의 생애와 사상
최용운/292쪽/17,000원

불상점안의식 연구
해사/488쪽/25,000원

불교사회사상의 이해
이병욱/364쪽/18,000원

분황 원효의 생애와 사상
고영섭/464쪽/25,000원

삼계교 연구 우수학술도서
서본조진 저/박부자 역/716쪽/35,000원

대각국사 의천 연구
무원·진관 공저/272쪽/16,000원

티베트 돈점 논쟁 연구
박건주/364쪽/20,000원

중국 불성론
라이용하이 저/법지 역/696쪽/33,000원

송시의 선학적 이해 우수학술도서
박영환/536쪽/27,000원

대행선사의 수행법 연구
청강/312쪽/17,000원

불교교육론
이송곤/528쪽/27,000원

균형의 마음, 우뻬카
박재은/328쪽/18,000원

한국의 죽음 의례의식 연구
탄탄/384쪽/20,000원

불교학의 사회화 이론과 실제 우수학술도서
박경준/824쪽/37,000원

경량부 연구 세종학술도서
카토 쥰쇼 저, 김재현 역/576쪽/37,000원

붓다의 법담학 연구
이광준/448쪽/25,000원

생전예수재 연구
승범/280쪽/18,000원

일본불교를 세운 고대 한국 승려들
이윤옥/372쪽/22,000원

불교 시간론 원전 연구 세종학술도서
정은해 역해/696쪽/35,000원

대승불교 흥기시대 인도의 사원생활
임은정 역/384쪽/23,000원

불교와 사회윤리
차차석/304쪽/18,000원

환성지안 선사
무각/344쪽/22,000원

문명전환과 불교의 응답
이명호/224쪽/17,000원

반야경의 사상 개설
이광준/336쪽/20,000원

불교사회경제사상
박경준/436쪽/25,000원

용성 사상 연구
진관/296쪽/20,000원

신자유주의와 상생의 불교경제학
김광수/284쪽/20,000원

불타의 대승선맥
오형근, 박화문/316쪽/22,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주문 (02) 3672-7181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백금남 소설 **아디카야의 검** 41 보석을 찾는 이 1



▶한줄 요약
이 기자 일행은 이석원이 남긴 글을 보게 된다. 글에는 찢어진 '춘다의 공양도'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칼에 찢긴 '춘다의 공양도'

봄이면 라일락 향기가 자우룩했을 큰 라일락 나뭇가지가 방 앞까지 늘어진 곳에서 스님이 걸음을 멈추고 방문을 열었다. 먼저 방 안으로 들어간 스님이 벽장 속에서 책을 꺼내는 것 같았다.

-이 책입니다. 제가 간직해 둔 겁니다.

네 사람의 시선이 책으로 쏟아졌다. 경전이 아니었다. 사무엘 다커스의 불의 제전이었다. 소설이었다. 드륵하고 책갈피를 넘겼다. 책 중간쯤 종이쪽지 하나가 끼워진 것이 보였다. 종이쪽지를 집어 보다가 멈칫했다. A4용지 몇 장을 네 겹으로 접은 것이었다.

-뭡니까?

오오스마 기자라고 생각하며 그제야 뒤를 돌아보았다.

-모르겠습니다. 무슨 글을 써 놓은 것 같은데…….

-글?

-그래요. 아마도 그가 썼을 글 같긴 한데…?

-내려가려면 지금 가야 할 것 같은데….

밖을 내다보던 송 서화가가 말했다. 더 늦어지면 길이 보이지 않을 것 같다는 말이었다.

-그렇다고 자고 갈 수도 없고….

-이곳 거리가 워낙 험한 곳이 돼놔서…. 웬만하면 내일 날이 밝으면 떠나세요. 내 그러잖아도 아랫사람에게 일러 놓았으니. 그래 뭐 좀 나왔습니까?

송 서화가가 중얼거리는데 저쪽에서 원주스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그는 이미 소설책 속의 이석원의 글을 읽은 것 같았다.

가까이 다가오는 원주스님을 향해 내가 돌아섰다.

-예, 뭐 이런 것이 나오긴 했는데….

-아 이석원의 글 저도 보았습니다. 그럼 이 방에서 묵으세요. 잠자리를 보게 할 터이니.

-그럼 하룻밤 신세를 지겠습니다.

송 서화가가 재빨리 대답했다.

-부처님의 도량에서는 신세란 없다오.

네 사람은 스님의 뒤태를 쳐다보고 섰다가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았다. 참으로 낯설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디선가 그 낯설음을 부채질하듯 풀벌레 소리가 들려왔다. 한동안 적막한 침묵이 주위에 감돌았다. 잠시 후에야 나는 접힌 종이쪽지를 펴들었다. 배고픈 자가 소중한 음식을 아껴 먹듯이.

승가사 뒤뜰에 가면 공양각이란 전각이 하나 있다.

이석원의 필체가 맞았다. 역시 맞춤법도 맞지 않는 글이었다. 거기에다 문맥도 맞지 않았다. 문맥을 맞춰가며 읽을 수밖에 없었다.

신장 탱화를 부탁하는 바람에 머물게 되었는데 한동안은 뒤뜰에 공양각이란 전각이 있는지도 몰랐다. 어느 날 우연히 그 전각을 발견했고 그에 대한 전설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

다포로 지어진 다섯 평 남짓의 작은 전각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면 단 위에 열 폭이 넘는 장엄한 화폭 한 점이 보인다.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부처의 모습은 아니다. 그렇다고 눈을 부라린 신장이나 나한의 모습도 아니다. 그저 평범한 늙은이 하나가 석가모니 부처님에게 공양물을 높이 쳐들어 머리를 조아린 모습이다.

사람들은 그 그림을 춘다의 '공양도(供養圖)'라고 불렀다. 춘다(純陀)라고 한다면 부처님이 살아 계실 당시 그분에게 마지막 공양을 올린 사람이다. 천축 파봐 성에 살던 대장장이의 아들로서 부처님께 독이 든 찬다나(栴壇木)의 버섯 요리를 대접함으로써 부처님을 돌아가시게 한 장본인이다. 아버지가 만행할 때 이곳에 들려 그려 모신 것이라고 했다.

하루는 한 젊은 납자가 바랑을 메고 그 전각을 찾아왔다. 헝클어진 머리는 어깨를 덮었고 때 절은 법복은 헤어져 살랑이는 바람결에도 너풀거렸다. 수염이 성성이 자라난 얼굴은 백지장처럼 희었다. 눈이 시퍼렇게 살아 있어서 섬뜩한 모습이었다. 그는 바랑 속에서 칼을 꺼내 전각 안으로 들어갔다. 달빛이 유난히 밝은 밤이었다. 그는 칼을 들고 그림 앞에 한동안 무서운 눈길을 하고 서 있었다.

그가 가고 난 뒤 대중들은 말들이 많았다. 말들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 우선 그가 누구냐는 것. 그리고 왜 공양각을 찾아왔다가 그대로 떠났냐는 것.

그가 누구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바로 나였다. 한때 그와 생활을 함께했던 내가 그를 알고 있었다. 그날부터 그를 기다리기 시작했다. 때로 온종일 방안에 틀어박혀 고열과 기침에 시달린 적도 있었다. 그를 기다리느라 얻은 감기 때문이었다.

신장 탱화를 마치던 날 밤 어쩐지 기분이 좋지 않았다. 느낌이 이상했다. 그동안 오지 않았던 그가 기다렸다는 듯이 나타날 것만 같은 생각이 자꾸만 들었다. 하지만 그럴 리가 없었다.

그런데 아니었다. 어스름이 지고 날이 어두워지기가 무섭게 기다렸다는 듯이 밖에서 다급한 부름 소리가 들려왔다.

-스님! 스님!

벌떡 일어났는데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후닥닥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왜 그래요?

행자가 얼추 얼이 빠진 모습으로 말을 잇지 못하고 공약각만 자꾸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신발을 꿰차고 공양각으로 내달렸다. 공양각의 문을 열려 있었다 들어서기가 무섭게 눈에 들어온 것은 갈기갈기 찢어진 공양도였다. 나는 그가 칼질해 버리고 간 탱화를 멀거니 내려다보았다. 성스럽게 그려진 붓다가 칼을 맞았다. 그를 중심으로 모여든 보살들도 칼을 맞았다. 붓다에게 독이 든 공양을 올릴 수밖에 없었던 춘다도 칼을 맞았다. 그들을 옹위하듯 눈을 부라리고 서 있는 신장과 금강역사들도 칼을 맞아 제 모습을 잃었다. 금어 제일로 추앙받는 아버지가 그린 공양도가 그렇게 칼을 맞아 널브러져 있었다.



삽화 · 김상규

내가 그를 처음 만난 것은 24살 무렵이었다. 하루는 필통을 멘 내 또래의 청년이 하나 암자로 들어섰다. 불화를 공부하기 위해 만행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유명한 금어승(金魚僧)들을 찾아 이절 저 절 다닌다는 것이다. 그때 한국에는 아버지인 스님 말고도 내로라하는 금어 몇 분이 있었다. 나중에 안 사실이었지만 그의 스승 조산 스님도 부처의 모습을 그리는 금어승이었다. 그 역시 매도를 위해 그림을 그리는 화승이 아니었다. 그는 민속공예의 기능 근처를 맴도는 단순한 단청장이 아니었다. 도에 근거해 부처의 모습을 그리는 금어승이었다.

청년을 만난 아버지는 단번에 고개를 내저어 버렸다. 모방과 기교만이 현란한 그의 솜씨가 눈에 들 리 없었다. 아버지는 오늘날까지 전승 발전되어 온 도제 방식에서 과감히 탈피한 사람이다. 자신만의 독특한 양식과 기법을 터득하고 있는 그로서는 그의 그림이 눈에 찰 리 없었다.

-이게 그림이냐?

그의 그림을 본 아버지의 첫 물음이었다.

그가 뜨악한 표정을 지었다.

-이것은 그림이 아니다. 모든 이가 그렸고 너 또한 본을 떴을 뿐이다.

그러니까 스승이 제자에게 물려주는 그림본에 의한 그림이라는 것이다. 본시 불화의 세계에는 불통에 의해 엄격하게 통제된 체형과 격식이 있기 마련인데 그런 스승에게서 그림을 배웠기에 도식적인 그림일 수밖에 없다는 말이었다.

금어의 법통을 정면으로 거부했던 아버지다운 말이었다. 내가 봐도 아버지의 그림은 전통적인 기법에서 완벽히 탈피한 것이었다. 부드럽고 장엄하기보다는 오히려 거칠고 난삽하기 이를 데 없었다.

아버지가 그림을 개봉하는 날이면 그림 앞에 촛대나 향 그릇 대신 시퍼렇게 간 소도 한 자루를 놓았다. 웬 칼이냐고 물으면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 이유를 알 때쯤 다시 오시지요.

사람들이 아버지를 비웃었다. 칼과 그림. 알 수 없는 그림 주인의 말.

어느 날 미술계의 거두가 아버지 앞에 앉았다.

-그림이 살아 있지 않는다면 그 칼로 찢으라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칼을 들어 빈틈이 보인다면 찢어보시지요.

미술계의 거두가 칼을 들고 벌벌 떨다가 그대로 돌아갔다.

아버지가 단숨에 자신을 내쳐 버리자 그는 막무가내로 버텼다.

-스님 자자거리의 하찮은 중생도 배고픈 거지에게 밥을 적선하거늘 어찌 중생을 구제하는 스님으로서 부처의 얼굴을 그리겠다는 사람을 이렇게 박대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저를 제도해 주십시오.

-금어도 금어 나름인 것. 매도를 일삼는 단청질이나 하겠다면 잘못 찾아온 게야. 난 자네를 제도할 힘이 없는 사람이야.

-스님, 제도할 힘이 있으면서 제도하지 않는다고 함은 그 또한 중생구제를 외면한 부처의 미망이 아닐는지요.

-허어, 입만 살아서는, 고약한!

그는 그렇게 암자를 떠나지 않았다. 나는 그때쯤 금어로서의 자세를 얼추 갖추어 가고 있었는데 그에게서 가끔 한 서린 일면을 엿볼 수 있었다. 하기야 내 지나온 과거를 되돌아보지 않더라도 그 역시 뼈를 깎는 인고의 세월을 견디었을 것이었다. 버드나무를 깎아 유탄을 만드는 작업에서부터 종이에 풀물을 들여 홍두깨로 다듬는 법, 묵위에서 등긁기 모사를 하는 법, 갑옷 입은 천왕초와 보살초, 여래초…. 그 무엇 하나 쉬운 게 없었을 것이었다.

우리는 자주 산길을 거닐었다. 어느 날 나는 그의 과거를 알고 말았다.

-아버지는 한 신문사의 주필이었습니다.

그의 말을 종합해 보면 이런 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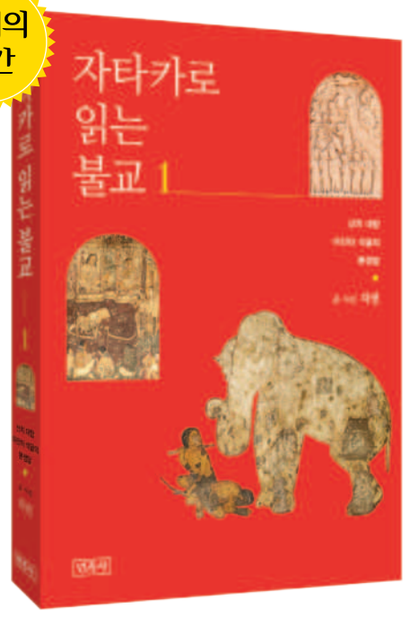
아버지의 덕망과 인품은 세상이 인정하는 바였다. 무엇보다 정직하고 무엇에나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의 글은 당대 최고의 명문장으로 인정받았다. 그는 그 무서운 필력으로 사회 암적 존재로 떠오른 인사에 대해 통렬한 비판을 가하였다. 그것이 발단이었다. 그 글로 인해 세상은 벌컥 뒤집혔고 그 인사는 죽음으로써 자신의 결백을 증명했다.

그 인사의 결백이 법에 의해 증명되던 날 아버지는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었다. 한 무고한 시민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다. 아버지의 죽음은 어머니나 내게 엄청난 충격이었다. 어머니는 나를 데리고 아버지의 영혼을 달래듯 절로 올랐다.

아아, 전생의 나는 무엇이었을까. 어머니의 뒤를 따라 법당으로 들어섰을 때 내 시야를 덮쳐 오던 장엄한 모습들. 이상스러운 느낌으로 인해 나는 미술대학에 진학했고 단청에 미쳐서는 이 절 저 절을 돌아다녔다. 그러다 그녀를 만났다. 라일락 피는 도량에서 우연히 마주친 사람. 그녀의 자태, 그녀의 향기, 그녀의 손길, 그녀의 모든 것을 가슴속에 안았다. 그녀의 웃음도, 그녀의 눈물도, 그녀의 번민도, 그녀의 희망도…. 갈새소리 들리는 강변에서 서로를 느끼며 바라보던 석양, 그 석양의 빛기둥들, 바닷가를 거닐면서 속삭이던 그녀의 음성. 절에 들러 부처님께 절을 올리면서 그녀는 말하고 있었다.〈계속〉

산치 대탑과 아잔타 석굴의 본생담 자타카로 읽는 불교 1

화제의 신간



부처님의 본생담을 통해 마음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책!

"2021년 불교출판문화상 대상 수상 도서"
《인도 네팔 순례기》의 저자 각전 스님의 역작!

"산치 대탑과 아잔타 석굴의 석벽에 그려진
본생담의 내용에 환희와 기쁨에 젖어들었습니다.
본생담의 스토리텔링의 힘은 대단해서 저를 변화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자 서문 중에서-



글·사진 각전 | 350쪽 | 23,0000원

각전 스님 서울대 정치학과와 동 대학원(정치철학 전공)를 졸업하였다. 39회 행정고시 합격, 해양수산부에서 근무하다 궁극적 진리에 대한 갈망으로 출가를 단행하였다. 범어사 강원을 졸업. 직지사 선원 등에서 정진하였으며, 대장경 천년 축전 해인사 준비위원, 〈해인〉지 편집장을 잠시 맡아 활동하다가 다시 선원으로 돌아와 수행, 국제적 안목을 넓히기 위해 미얀마의 쉐우민 국제명상센터에 다녀왔다. 현재 동화사, 통도사, 범어사, 쌍계사, 법주사 등 제방 선원에서 정진하고 있으며, 수행의 여가에 법보신문에 '각전 스님의 본생담으로 읽는 불교', 월간 불교문화에 '각전 스님의 부처님 성지 순례'를 연재하고 있다. 저서로 2021년 불교출판문화상 대상 수상 도서 《인도 네팔 순례기》가 있다.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

구미래의 새롭게 만나는 불교의례 21 불교 혼례



▶한줄 요약
근대 초 불교 혼례가 처음 선을 보인 뒤 불자들에게 널리 수용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다. 기독교 혼례에 비해 불교혼례는 새롭게 만든 내용인데다 이를 전파할 적극적인 주체가 부족했기에 단시일에 확산되지 못했으나 꾸준히 성장한 것으로 보인다.

합리성 추구 불교혼례…'스몰웨딩' 트렌드 닮아



불광사 불교 혼례 ©마인드디자인



강원도 삼운사 사찰벽화에 그려진 선혜선인과 구리 선녀 ©삼운사

최초의 화혼식(花婚式)

근대 최초의 불교 혼례는 1918년 2월 조계사의 전신인 각황사(覺皇寺)에서 치러졌다. 처음 행하는 불교식 혼례라 장안의 화제가 되어, 몰려든 구경꾼이 일천 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신문에는 사모관대를 갖춘 신랑, 족두리에 장삼을 입은 신부가 경건한 표정으로 부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의 사진이 실렸다. 이 혼례는 역사학자 이능화(李能和)가 1917년에 만든 '의정불식화혼법(擬定佛式花婚法)' 에 따라 처음 행한 것이었다.

당시 혼례를 둘러싼 상황은 개항 이후 기독교 문물의 본격적인 유입과 함께, 이른바 '예배당결혼식' 이 혼례 간소화를 위한 방편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비용이 많이 들고 절차가 까다로운 전통 혼례는 계몽운동가들로부터 타파해야 할 구습으로 여겨졌으며, 1888년 정동교회에서 아펜젤러의 주례로 치러진 기독교식 혼례는 신식결혼의 시발점이 되었다.

혼례개혁의 하나로 가난한 이들의 복수결혼(福手結婚) · 작수성례(酌水成禮) 방식을 따르는 이들도 많았다. 복수(福手)는 '복을 부르는 손' 이라는 말로, 머리를 얹어주고 상투를 틀어주는 이를 일컫는다. 따라서 복수결혼이란 친지가 지켜보는 가운데 신랑은 신부 머리의 쪽을 지어주고, 신부는 신랑 상투를 틀어줌으로써 서로 복수가 되는 것을 뜻한다. 정화수를 떠 놓고 서로 머리를 올려줌으로써 혼례를 치른다고 하여 '작수성례' 라고도 불렀다.

이능화는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의례를 신속히 정비해야 불교가 타 종교와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음을 간파하고, 몸소 불교 혼례를 제정하여 실천해나가고자 한 것이다. 그는 부처님 본생담인 '연등불 수기' 설화를 비롯해 〈대방광불화엄경〉에서 위덕 태자와 묘덕 동녀가 혼인해 부처님께 예배드린 설화, 태국의 혼례 등을 참조해 절차와 내용을 구성한 것이라 밝혔다.

'의정불식화혼법' 에 담긴 불교 혼례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살필 수 있다. 첫째, 불교에 귀의하는 가운데 부처님께 혼례를 고하고 증명을 청하는 구도를 지녔다는 점이다. 이는 삼보의 가피 속에 부부인연을 맺으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삶을 살리라 맹세하는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오분향 · 삼귀의 · 사홍서원 · 발원문 · 찬불게 등을 염송하는 가운데, 주례법사가 부처님께 두 사람의 혼인을 고하는 설송(說頌)이 의례의 핵심을 이룬다.

둘째, 신랑 · 신부가 부처님께 꽃을 바치며 부부의 전생 인연을 새기도록 한 점이다. 이는 본생담에 근거한 것으로, 석가모니가 아득한 전생의 선혜선인(善慧仙人) 시절에 연등불께 바칠 연꽃을 애타게 구하던 중, 구리 선녀와 내생의 혼인을 언약하고 연꽃 공양을 한 설화에서 비롯되었다. 선인은 자신의 다섯 송이와 선녀가 부탁한 두 송이 꽃을 연등불께 바치고, 내세에 부처가 되리라는 수기를 받은 것이다. 아득한 세월이 지나 선혜선인은 태자 싯다르타, 구리 선녀는 태자비 야소다라로 만나게 된다.

따라서 불교에서는 혼례를 '화혼식(花婚式)' 이라 부른다. 부처님께 고하는 고불문(告佛文)에서도 "두 사람은 부처님의 옛 고사를 본받아 위 없는 도를 성취하기를 다짐하였고, 일곱 송이 꽃을 바쳐 영원한 인연을 약속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을 담게 된다. 이처럼 부처님께 꽃을 바치는 것은, 전생의 인연을 현세에서 꽃피우며 불교의 가르침을 따르리라는 다짐이 담긴 것이라 할 수 있다.

> 1917년 '의정불식화환법' 시행
> 용성 스님, 남녀평등 의식 소개
> 불전 반배례 등 합리성 추구도
> 전통 · 개혁 중간이었던 불교혼례

남녀평등의 관점에서

불교 혼례는 1917년 – 1927년 – 1935년에 이르기까지 십 년 남짓의 간격을 두고 근대불교 선각자들에 의해 지속적인 첨삭이 이루어졌다. 이능화의 '의정불식화혼법' 을 기본 틀로 삼아, 이를 재편한 불교 혼례를 1927년에 백용성(白龍城) 스님과 1935년에 안진호(安震湖) 스님이 각각 〈대각교의식(大覺敎儀式)〉과 〈석문의범〉에 소개한 것이다.

그런데 이들의 불교 혼례 내용에서, 남녀의 '차별' 과 '차이' 의 문제가 어떻게 담겨 있는지 들여다보는 일이 흥미롭다.

이능화의 불교 혼례에서 당시 부부는 독특한 혼인 서약을 해야 했다. 이에 따르면 주례법사는 신부에게 먼저 묻는다. "신랑의 원을 따르며, 선행을 함께 닦으며, 무위도를 구하며, 부모를 존중하며, 스승을 공경하며, 친족과 화목하며, 가난한 이를 구하며, 외로운 이를 불쌍히 여겨 크게 자비로우며, 보시에 힘쓰며, 삼세공불의 일을 이어받아 물러섬 없이 게으르거나 싫증내지 않을 수 있겠느뇨?"

신부가 답하면 신랑에게 묻는다. "보살의 성품은 본래 사음하지 않으니, 그대는 신부를 아내로서 자족하게 여기며, 달리 아내를 구하지 않으며, 다른 이의 아내 · 첩이나 수호하는 여인, 친족이 보호하거나 약혼했거나 법으로 보호하는 여인에게 탐하는 마음을 먹지 않겠느뇨?"

명백한 불평등서약이다. 신부에게는 남편과 부모 · 스승 · 친족에 대한 의무, 가난하고 외로운 이에 대한 자비, 삼세공불(三世供佛)에 이르기까지 불자로서 총체적인 덕목을 요구하였다. 이에 비해 신랑에게는 다른 여인을 탐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내용으로 일관되어, 가부장적 관념에 깊이 젖어있는 봉건사회의 시대상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그렇다면 백용성 스님은 남녀평등의 문제를 어떻게 담아냈을까. 놀랍게도 1백여 년 전의 그는 완벽한 남녀 평등주의자였고, 몇 가지 의식 속에 그러한 뜻을 거듭 담았다. 우선 부처님께 헌화하는 것을 혼인 서약으로 삼아, "부부간의 맹세 변치 아니하기를 서로 굳게 발원하오니 불보살께서 증명하옵소서"라 맹세함으로써 남녀 구분을 없애고 부부의 도리를 함께 지키도록 하였다.

아울러 신랑 · 신부가 부처님께 각각 꽃을 바치되 신부의 꽃은 신랑의 손을 거치도록 했으나, 이를 신부가 직접 바치도록 하였다. 따라서 본생담에 충실하기보다는 여성을 독립적 존재로 인정하는 데 초점을 맞춘 셈이다. 아울러 신랑 · 신부의 연꽃 색깔을 청색 · 홍색으로 구분하여 음양의 차이는 부각함으로써 '차별' 과 '차이' 를 분명하게 구분하였다.

안진호 스님은 남녀평등에서 중간지점을 택했다. 남녀차이를 부각하는 가운데 남녀평등에 가까운 내용으로 바꾼 것이다. 신랑에게는 나랏일에, 신부에게는 남편의 뜻에 따르도록 다짐케 함으로써 사회생활을 하는 남편에게 여필종부의 미덕을 강조하는 시대상을 반영하였다. 신부의 헌화 또한 신랑의 손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본생담을 충실히 따르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다양한 모색의 시간

근대 초 불교 혼례가 처음 선을 보인 뒤 불자들에게 널리 수용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다. 기독교 혼례에 비해 불교 혼례는 새롭게 만든 내용인데다 이를 전파할 적극적인 주체가 부족했기에, 단시일에 확산하지는 못했으나 꾸준히 성장한 것으로 보인다.

불교 혼례의 추이를 알 수 있는 자료로, 당시 월간지 〈불교〉에는 1928년부터 불교계의 소식을 전하는 난에 전국 각지에서 거행한 불전 화혼식을 소개하였다. 이에 따르면 경성의 불교 혼례는 각황사에서 전담했고, 각황교당(覺皇敎堂)에서 치르면서 당시 중앙포교사로 있던 김대은(金大隱) 스님이 주례법사를 주로 맡았다. 아울러 1930년 1월호에는 경성을 비롯해 함북 · 경남 · 충남 등 전국 대찰에서 치른 불교 혼례 5건을 소개하였다.

당시는 전통 혼례에서 벗어나 다양한 개량 혼례가 등장하던 시절이었다. 1930년대에 안진호 스님이 불교 혼례를 정립하면서 현대적 요소를 대폭 수용한 점은 이러한 사회 분위기를 잘 보여준다.

불교 혼례에서도 화동 · 화녀가 꽃을 흩뿌리며 식장에 들어오고, 중요한 순간마다 피아노를 연주하는가 하면, 식을 시작할 때 종을 치고 폭죽을 터트려 축제 분위기와 장엄함을 돋보이게 한 것이다. 아울러 예물교환보다 염주 등의 신물(信物)을 교환하도록 이끌고, 불전에 큰절 대신 반배례로 바꾸는 등 합리성과 의미를 추구하였다.

따라서 불자들만이 아니라 간소하게 혼례를 치르고자 하는 이들 또한 불교 혼례를 선택할 수 있었다. 모든 일을 직접 준비하고 처리하는 대신 사찰에서 여러 가지 일을 대행해주니 편리할뿐더러 음식 대접도 손쉽게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예배당결혼식은 기독교 신자가 아니라면 낯선 외래문화였기에 선택하기 힘들지만, 불교 혼례의 경우는 전통과 개혁의 중간쯤에 있었던 셈이다.

개량 혼례는 교회 · 사찰뿐만 아니라 신문사 강당이나 대형식당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1950년대를 전후해 신부 화장부터 음식 접대까지 모든 것을 대행해주는 전문예식장이 등장하기에 이른다. 이 무렵부터 여러 주체에 의해 다양한 모색이 따르던 혼례는 점차 전문예식장에 자리를 내주면서 혼례풍속이 크게 바뀌게 된 것이다.

그러나 마을마다 예식장이 들어서지 않았던 1970~1980년대까지, 농촌에서는 전통 혼례와 불교 혼례를 치르는 이들이 많았다. 속리산 법주사 아랫마을처럼, 사찰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살아온 이들에게 불교는 삶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어서 일생의 중요한 마디마다 사찰을 찾게 마련이었다.

이에 법주사 사내리에 사는 한 할머니는, 젊은 시절 이 마을로 시집을 오게 되어 약혼식을 마친 날 분홍색 한복을 차려입고 남편을 따라 큰스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다. 혼인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일가를 이루는 것이기에, 마을 어른이자 정신적 지도자인 스님을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일이 그들에겐 자연스러운 일상이었던 것이다. 그 뒤 날짜를 잡아 법주사에서 혼례를 치르고 조촐하게 스님들께 음식을 대접하며 부처님 품에서 가정을 꾸렸다.

오늘날 예식장 결혼문화가 대세를 이루는 가운데, 한편에서는 이에 염증을 느낀 젊은이들이 '스몰 웨딩' 을 추구하고 전통 혼례를 찾는 등 혼례의 다변화 또한 이루어지고 있다. 사찰에서도 불교 혼례를 새롭게 모색하는가 하면, 경내를 혼례장소로 개방하거나 다문화가정을 위한 혼례를 치러주는 등 새 삶을 출발하는 부부들에게 문을 활짝 열어둔 지 오래다. 부부의 소중한 인연을 새기며 함께 불성을 활짝 피우기를 바라는 부처님의 마음이다.

〈불교민속연구소 소장〉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겨우살이환

재료명: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둥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나무열매, 맥아
비염이 있습니까? 숨이 차십니까? 기침,가래가 힘드십니까? 천식에 힘드십니까?

여 주 환

재료명: 여주, 돼지감자, 산수유열매, 복분자, 오미자, 구기자, 복령, 옥수수수염, 천문동, 맥문동, 감초뿌리줄기, 뽕나무뿌리껍질, 창출뿌리줄기, 작약, 황기, 칡뿌리, 산사나무열매, 맥아
당뇨 있으신 분 혈당수치관리를 위해 여주환을 드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전복껍데기환[석결명 스틱]

재료명: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민들레, 엉겅퀴,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나무열매, 맥아
간과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석결명으로 해결하세요. (본초강목) 세종대왕께서도 드셨다고 세종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도 제주도 유배시 석결명환을 드셨다고 방송되었습니다.

윤인수원장의 경혈자극요법을 소개합니다
불면증, 어지럼증, 이명(귀울림), 두통, 고혈압, 저혈압, 동맥경화, 만성설사, 목이 쉬었을때, 건망증, 협심증, 위염, 변비, 안면신경마비, 졸음병, 실어증, 삼차신경통, 간경화, 황달, 대상포진, 피부가려움증, 생리통, 생리불순, 다이어트, 귀머거리, 녹내장, 갑상선 이외 총 287종이 수록되어 있음.


전화주시면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골담초환

재료명: 골담초분말, 쇠무릎뿌리, 황칠나무, 두충, 가시오가피, 참당귀, 울금, 덩이뿌리, 쇠비름, 독활뿌리, 개다래열매, 천마뿌리, 율무, 질경이, 음나무줄기, 왕느릅나무껍질, 엉겅퀴, 산사나무열매, 맥아
허리,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래 걷기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기 힘드십니까?

산수유환

재료명: 산수유열매, 옥수수수염, 복분자, 오미자, 구기자, 토사자, 사상자, 복령, 마가목열매, 뽕나무뿌리껍질, 참당귀, 천궁, 우슬, 오갈피, 두충, 질경이, 산사나무열매, 맥아
소변때문에 밤에 몇번씩 일어나십니까?

어성초환

재료명: 어성초, 적하수오, 측백나무, 자소엽, 서목태, 복분자, 삼백초, 참당귀, 마가목열매, 뽕나무뿌리껍질, 솔잎, 녹차잎, 산사나무열매, 맥아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하지 · 아이케어센터 |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 예금주 : 윤제하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 루 자 죽 염 125g 45,000원
가 루 자 죽 염 230g 82,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125g 50,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230g 90,0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20,000원
250g 10,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 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

강소연 교수의 깨달음의 미학 ㉑ 육도윤회도(1)



▶한줄 요약
지옥 세상에 떨어져 고통 받는 사람들을 위해 그 원인을 붓다께서 통찰한 결과, 그 원인은 스스로 지은 악업이었다. 그리고 업 속에는 업행 또는 업력이 작용해 그것이 쉽게 멈추어지지 않고 계속 고통을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 '業行' 때문

불교에서 나를 윤회하게 만드는 '이것'을 '업(業, Karma)'이라고 한다. 업이란 무엇일까? 업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대장엄경론〉 속 어느 바라문의 질문을 살펴보자.

"친교 바라문이 (붓다의) 무아(無我)의 설을 듣고 의심이 나서 물었다. '만약 나라는 것이 없다고 하면, 윤회에 있어서 누가 후세에 태어난단 말입니까?' 제석천은 '과거세의 번뇌로 말미암아 여러 업을 지은 까닭에, 그 '업'에서 '현재의 몸'이 생겼거니와, 현재에 있어서도 다시 여러 업을 짓는다면, 내세에서 다시 거기에 해당하는 몸을 얻게 될 것이다. (중략) 자아가 없으면서도 업보(業報)의 어김없음이, 이 씨와 싹의 관계와 같다'라고 대답했다."

붓다는 "존재의 실체는 없다, 즉 무아"라고 밝히셨다. 이에 당시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브라만교의 입장은 이렇다. 브라만교에도 불교처럼 윤회를 말한다. 하지만, 브라만교의 경우는 '아트만'이라는 생명의 근원이 있다.(아트만은 '숨쉰다'라는 뜻으로 이것은 자아 또는 아(我)로 번역된다.) 몸(육신)이 죽어도 아트만이라는 자아가 사라지지 않고 이것이 윤회의 주체가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붓다 말씀대로 만약 무아라면 윤회할 것이 무엇이 있냐는 질문이다. 당시 신흥종교였던 불교의 교리, 무아를 말하면서 또 윤회를 말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는 지적이다.



그림① 〈육도윤회도〉의 원판. 원판 외곽의 무수한 항아리처럼 보이는 것은 중음기간을 표현한 것이다.



그림② 〈화엄경〉 권제37 변상도, 감색 종이에 금으로 그림, 고려 14세기 중엽, 호림박물관 소장

씨와 싹의 관계, 인과의 원리

대부분의 불교 이외 타종교가 아트만 또는 영혼이 있다는 것까지는 인지를 한다. 즉, 물리적 신체와 별도로 '마음'이 있다는 것인데,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자의식(또는 에고)이라고 한다. 대승불교에서는 영가(또는 영식 · 靈識)라고 부른다. 유식(唯識)사상에서는 말라식(제7식)이라고 하고, 유교에서는 혼백(魂魄)이라고도 한다. 어떻게 불리던 몸이 사라져도, 사라지지 않는 마음 덩어리를 말한다. 죽어도 죽지않는 마음 덩어리를 어찌하지 못해,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구원을 신(God)에게 의탁한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주여, 내 영혼을 구제해 주소서"는 발원이 기도의 핵심을 이룬다. 대중적인 아미타 신앙에서도 영가의 (극락으로의) 천도를 아미타에게 의탁해 천도재는 "나무아미타불(아미타부처님께 귀의한다)"이라는 장엄염불로 대미를 장식한다.

그렇다면, '영혼' 또는 '아트만'이라는 용어 대신에 붓다는 '업'이라는 용어를 썼을 뿐인가? '죽지 않는 에고의 마음'을 일컫는 또 다른 말일 뿐인가? 물론 아니다. 여기서 위에 인용한 제석천의 대답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 그는 업에 대해 "과거세의 번뇌로 말미암아 여러 업을 지은 까닭에, 그 '업'에서 '현재의 몸'이 생겼거니와, 현재에 있어서도 다시 여러 업을 짓는다면, 내세에서 다시 거기에 해당하는 몸을 얻게 될 것이다. 자아가 없으면서도 업보의 어김없음이, 이 씨와 싹의 관계와 같다."라고 말한다. 업을 설명할 때의 표현에 주목하자. 그것은 난데없이 덩그마니 있는 또는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의 덩어리가 아니라는, 업의 원리를 말한다.

그 원리는 '씨와 싹의 관계" 즉 '인과(因果)'라는 것이다. 타 종교에서 '(사람이) 어쩔 수 없는 영혼'이라서 신에게 그 구원을 요청했던 이것을, 꿰뚫어(통찰해) 그것이 만들어지는 구성 원리를 본 것이다. 몸이 죽어도 없어지지 않고 남는 마음 덩어리(개체의식 또는 자의식)를 해체해 보니, 그 안에는 '원인과 결과'라는 에너지가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다. 이에 '업에서 몸이 생겨난다'라고 말한다. '업에서 몸이 생겨나는 과정'은 '12연기의 과정'으로 붓다에 의해 통찰된다. 이렇게 덩어리로 인식되는 '에고의 마음(유신견)'을 통찰해 분해해 버리는 순간, 무아(無我)가 드러났다. 씨와 싹의 관계, 즉 '씨'가 '업'이고 '싹'이 '몸'이라면, 씨라는 원인 덩어리는 분해해 버려 공(空)이 드러나 버렸다는 논리이다. 이제 공을 바탕으로 생겨날 싹(몸)도 없어진다는 원리이다. 원인을 제거하면 결과도 제거된다. 이렇게 '존재의 원인

'업', 우리가 윤회하는 원인
업보, 씨와 싹 관계와 같아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수행
업 속엔 업행 · 업력 작용해
멈춰지지 않고 고통만 초래

제거법'을 붓다께서 스스로 체득하고 또 설파한 사성제와 팔정도가 불교의 핵심이자 모든 것이라고도 하겠다.

청정업과 부정업

그런데 업은 크게 둘로 나뉜다. '청정업(淸淨業)과 부정업(不淨業)'이다. 쉽게 표현하자면, 마음은 두 종류가 있는데, 착한 마음과 나쁜 마음이 있다는 것이다. "(붓다께서) 일체 중생을 관찰하기를 거울 속 모양 보는 듯하니, 중생의 삶과 나고 죽음 그리고 귀천과 부귀는 (자신이 지은) 청정업과 청정하지 않은 업, 그것에 따라 고통과 즐거움(苦樂)의 과보를 받네."

다시 말해 사람들이 각자 지은 청정업과 부정업의 비율과 내용에 따라, 각기 천차만별로 다양한 양태의 결과를 받는다는 것. 그래서 세상에 똑같은 사람 하나 없이, 제각각 다른 모습에 다른 삶을 산다는 것. 하지만, 원인과 결과를 보는 통찰지(혜안 · 慧眼)가 없는 사람들은 내가 왜 여기에 이런 모습으로 이러한 삶을 사는지 도통 알지 못한다. 그저 난데없다고 생각하고 운명 또는 팔자로 치부하거나, 부모나 환경 또는 신을 탓한다.

붓다는 '청정업과 청정하지 않은 업'이라고 했다. 맑고 깨끗한 업과 그렇지 못한 (탁하고 더러운) 업으로 나누어 말씀하셨다. '청정업과 그렇지 않은 부정업'은, 후대에 '선업(善業)과 불선업(不善業)'으로 표현되고, 더 나중에는 알기 쉽게 '선업과 악업'으로 칭하게 된다. 탁하고 더러운 업, 즉 악업 에너지의 비중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 윤회를 해도 6개의 흐름 속으로 나뉘어 과보를 받게 된다. 이 6개의 흐름을 '6도(6개의 세상)'라고 한다. '육도윤회'라는 용어를 익히 접해보았을 것이다. 6도 중에 가장 밑의 3개의 세상을 삼악도(三惡道)라고 하는데, 이는 악업이 무거운 사람들이 윤회하게 되는 곳으로 지옥 세상(지옥도), 아귀 세상(아귀도), 축생 세상(축생도)을 말한다.

"(붓다께서) 나쁜 업(惡業)을 지은 이 관찰할 때 반드시 나쁜 갈래(惡趣)에 태어나고 좋은 업(善業)을 닦아서 익힌 이 인간이나 천상(人天)에 태어난다. 만일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은 한량없는 갖가지 고통 받나니 (중략) 이런 지극한 고초를 받지만 '업행(業行)'은 그를 죽게 하지 않는다."

–'부처가되다(阿惟三菩提品第)14'〈불소행찬〉

지옥 세상에 떨어져 고통 받는 사람들을 위해 그 원인을 붓다께서 통찰한 결과, 그 원인은 스스로 지은 악업이었다. 그리고 업 속에는 업행 또는 업력이 작용해 그것이 쉽게 멈추어지지 않고 계속 고통을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지내는 천도재는 영가가 육도윤회를 벗어나 극락왕생하게 해달라는 취지인데, 육도 중에서도 특히(또는 적어도) 삼악도에만은 부디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강한 염원이 담겨 있다.

악업중생 구제 경전, 〈지장경〉

그렇다면, 지옥 중생에게도 구원은 있을까? 삼악도의 중생은 각성(스스로가 스스로를 알아차리는 힘)이 없어, 자기 힘으로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누군가 도와주어야 또는 구해주어야 한다. 이 시점에서 등장하는 보살이 바로 '지옥 구제의 신'인 지장보살이다. 〈지장경〉에는 악업 중생들이 받는 업보와 업보로서의 무수한 지옥들이 등장한다. 이러한 경전의 내용을 바탕으로 무수한 지옥 불화가 그려졌다.

〈지장경〉에는 "미래의 미륵불이 출현하기까지 육도(六道: 지옥 · 아귀 · 축생,아수라 · 인간 · 천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중생을 남김없이 제도한 후, 성불하겠다"는 지장보살의 서원이 나온다. 지옥이 너무 많고 지옥에 떨어지는 중생도 너무 많아, 백천만 억의 분신을 나투어 그들을 구제하는 신통을 보이는 지장보살. 하지만 악업을 끊임없이 되풀이해 다시금 삼악도로 물밀 듯 밀려드는 중생. 그런 중생이 너무나 많기에, 사천왕은 질문한다.

"세존이시여, 지장보살은 오랜 겁을 지내오면서 그와 같은 큰 원(大願)을 발했는데, 어찌해 지금에 이르도록 아직도 중생들을 다 제도하지 못하고 또 광대한 서원을 발하옵니까? 원컨대 저희들을 위해 말씀해 주옵소서."

즉, 지장보살이 중생 구제의 서원을 오래 겁 동안 거듭해도 악업 중생들이 (너무 많아) 도무지 줄지를 않으니, 도대체 어떻게 저 많은 중생들을 모두 구한단 말입니까라는 것이다. 이에 세존께서는 지장보살이 어떻게 중생을 구제하는 지 그 방편을 말씀 주신다. 지장보살의 지옥중생 구제의 방편, 과연 무엇일까?

〈중앙승가대 문화재학과 교수〉

현대불교신문
法보시 신청

부처님 가르침인 '佛法'을 보시하는
법보시 공덕은 보시 공덕 중 으뜸입니다.

부처님법을 전하는 현대불교신문 법보시는
독거어르신, 교도소 재소자, 군 장병, 병원 환우들에게
현대불교신문을 보시하는 공덕입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1만원으로 2부 보시.
02-2004-8212



이안의 Media In Buddha ㉗ 영화 〈바시르와 왈츠를〉



▶한줄 요약
이스라엘 출신 다큐멘터리 감독 아리 폴만의 〈바시르와 왈츠를〉은 이스라엘-레바논 전쟁에 참전한 감독이 자신의 잃어버린 전장의 기억을 찾는 과정을 담았다. 그 기억들은 민간인 학살과 테러에 대한 공포로 점철돼 있다.

현재 윤회되는 폭력은 우리 모두의 '공업'



몸, 입, 뜻으로 짓는 말과 동작과 생각, 그리고 그로부터 생겨나는 인과를 업(業)이라고 한다. 석가모니께서는 중생이 의지와 실천 대신 어떤 상황에 대한 노력도 하지 않고 숙명이니 운명이니 하는 말로 업의 핑계를 삼으려할 때, 업력이란 서로 주고받는 인연화합(因緣和合)과 상의상관(相依相關)의 관계에서, 마음의 주체의지에 의해 그 강약이 나타난다고 일깨우셨다. 특히, 행위에 결과로서의 업은 자연법칙적인 인과만이 아니라 인간사회의 윤리성에 직결된다고 가르치셨다. 업이란 선악을 짓는 것이고, 그 행위의 결과가 과보다. 업장으로 이어지는 과보는 모든 개별적 존재가 스스로 짓고 스스로 받는 개업(個業)과 공동으로 선악의 업을 지어 함께 인과응보를 받는 공업(共業)으로 나뉜다.

그런데 사회적 존재인 우리 인간들은 개업이 공업으로, 공업이 개업으로 이어지는 인연으로 사회업(社會業)을 함께 짓는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업을 통해 사회와 개인이 결코 무관한 관계가 아니기에 업은 자연법칙적인 인과이자 일상생활의 굴레이며, 역사와 문화를 함께 하는 사회의 윤리성에 바로 닿는다고 가르친다. 이런 공업 가운데 가장 오래되고, 무거우며, 벗어나기 어려운 것이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사이에서 벌어지는 전쟁일 것이다. 그 공업을 짓는 개인들 하나하나가 지을 책임은 국가적 명분이나 종교적 신념 아래 죄의식을 묻어버린다.

가령 〈바시르와 왈츠를〉(2008년, 아리 폴먼 감독)이라는 영화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묻어버린 죄업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감독은 영화를 통해 도대체 묻어버린 것이 무엇이었는지 찾으려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밤마다 개들에게 쫓겨야 하기 때문에.개들이 달려온다. 사납게 달려온다. 거리를 가로질러 사람들을 제치고 무리지어 달려온다. 필사적으로, 처절하게, 그러면서 집요하게. 하나, 둘, 셋, 넷, 모두 스물여섯 마리. 개들이 찾아낸 것은 한 사내가 사는 집.

창을 열고 개들의 무시무시한 눈빛에 소스라친 남자는 불현듯 깨닫는다. 개들이 자신을 찾아낸 이유를. 오랫동안 비워두었던 기억이 불길하게 귀환하고 있음을. 그것은 전쟁, 학살, 그리고 죄의식이다.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던가.

개들의 추적은 레바논 전쟁에 참여했던 이스라엘 사내들의 망각을 악몽으로 일깨우고,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던가, 그들은 거기서 무얼 겪었던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감쪽같이 지워버린 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인가를 묻고 답을 찾아 나서도록 한다.

친구 보아즈가 영화감독 아리 폴만에게 개들에게 쫓기는 악몽에 시달리는 고통을 털어놓는 데서 영화가 시작한다. 보아즈는 그 개들은 레바논에서 한밤중에 마을 하나를 공격하려던 때, 마을 사람들을 깨우지 않으려고 자신이 쏘아죽여야 했던 바로 그 개들이라는 것을 기억했노라고 고백한다.

막상 감독에게는 그 당시 기억이 전혀 없다. 자신도 분명 병사로 전장에 나갔는데 도무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 오직 하나의 영상, 학살의 바다에서 일어서는 벌거벗은 젊은 날의 자신과 친구들의 모습만이 환상처럼 남아있을 뿐. 그래서 감독은 망각의 이유를 찾기 위해 사람들을 만나 참혹한 기억을 되살리는 과정을 영화로 만들었다.

감독은 묻는다. "거기 나도 있었어?" 그러면 옛 친구들은 대답한다. "그럼, 바로 옆에 있었잖아."

각자 지닌 전쟁의 기억을 꺼내어 털어놓는 동안 감독의 영상은 점점 또렷해진다. 꿈과 현실, 과거와 현재가 서로 교차하면서 〈바시르와 왈츠를〉은 감독과 관객을 이끌고 한 장소를 향해 간다.

그 기간이 무려 4년. 다큐멘터리 감독이었던 아리 폴만 감독은 사람들을 만나 인터뷰하고, 지워진 기억을 되살리는 과정을 먼저 카메라로 찍었으나 영화는 정작 실사가 아니라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졌다.

사건이 벌어졌다가 기억에서 지워지고 나서 다시 생생한 장면으로 현실을 관통한 것처럼, 〈바시르와 왈츠를〉을 만들어낸 과정도 한번 카메라로 찍은 필름을 꿈과 환상과 실제의 기록 영상을 거쳐 온전한 전쟁의 실상을 고발하는 영상이 돼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팔레스타인의 고통을 관통한다.

바시르는 1982년 9월 14일, 레바논 대통령에 당선돼 취임식을 아흐레 앞두고 폭탄 테러로 죽은

이스라엘 감독 '바시르와 왈츠를'
잃어버린 戰場 기억 찾기 그려내
바사르 암살로 시작된 이-레 전쟁

민간인 학살, 테러 등 서로 맞불
결국 헤즈볼라 탄생으로 이어져
이스라엘 진군가 '한국 폭격했네'
폭력의 연쇄가 끝이 없음을 상징

친이스라엘 기독교 팔랑헤당 당수의 이름이다. 1943년 독립한 이래, 레바논은 줄곧 정치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친서구적 기독교 세력과 급진적 이슬람교 원리주의 세력의 오랜 갈등과 대립으로 늘 불안정하고 위태로운 나라였다. 1958년, 기독교도 대통령이 헌법을 개정하면서까지 재선을 노리자 이슬람 세력이 국민통일전선을 결성하고 대규모 반란을 일으키면서 내전에 돌입하게 됐다.

미군 1만5000명이 수도 베이루트에 상륙하면서 표면적으로 내전은 끝났으나, 1970년 팔레스타인 게릴라들이 레바논 남부 지역에 난민촌을 건설하고 이스라엘과 무장투쟁을 시작한데다가,1972년 베이루트에 팔레스타인해방기구 본부를 설치하자 다시 내전에 돌입하게 된다. 1978년부터 이스라엘이 여러 차례 레바논을 침공하면서 레바논 내전은 이슬람 게릴라 세력들과 이스라엘 사이의 분쟁으로 확대됐다.

그러다가 1982년 8월 이스라엘과 레바논 사이에 휴전이 성립되고, 1만 명에 달하는 팔레스타인 게릴라가 축출되는 불안한 정국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됐던 친이스라엘 성향의 바시르 제마엘이 폭사했다. 그리고 바로 그 시점에서 감독의 기억이 멈추어버린 것이다.

그토록 큰 사건이었고, 자기 자신이 바로 그 당시 베이루트에 있었는데 아무 것도 기억하지 못하며, 그렇게 기억을 가둔 채 26년 동안 살아올 수 있었다는 것은 그저 죄의식 때문이 아니라 더 깊고 오래된 학살, 아우슈비츠로부터 비롯된 망각인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순간의 충격을 기억에서 지워버리고자 한 것이며, 학살의 방조자 내지 조력자로서의 자신을 부정하고자 한 것이다. 마침내 충격의 수용소 사브라와 샤틸라가 또렷이 떠오르고 애니메이션은 통곡소리와 함께 생생한 기록영상으로 바뀐다.

바시르가 죽던 당시, 팔레스타인 해방전선이 레바논에 설치한 미사일 기지를 색출하려고 이스라엘은 대규모 군대를 보내 레바논 남부를 점령하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바시르의 죽음으로 광분한 기독교 팔랑헤당 민병대가 이스라엘군이 포위하고 있던 팔레스타인 난민수용소 사브라와 샤틸라에 팔레스타인 테러범을 잡겠다는 구실로 난입해서 사흘 동안 3000여 명에 이르는 난민을 마구잡이로 학살했다.

정작 게릴라들은 이미 떠난 곳에서 기독교 팔랑헤 민병대원들이 노인과 여자들, 심지어 아이들까지 도살당하는 동안 감독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공포와 절망을 사브라와 샤틸라 난민수용소에 고스란히 되돌리는 유태인의 모습을 온전한 정신으로 감당하기 어려워서 망각의 그림자에 묻어버렸던 것이다. 〈바시르와 왈츠를〉의 인물들은 이 전쟁에서 어린 게릴라를 죽이기도 하고, 민간인이 탄 차에 대고 총을 난사해 일가족을 몰살시키기도 하고, 자신들도 팔레스타인 게릴라들에게 공격당해 공포에 떨기도 하고, 기습을 당해 동료들이 픽픽 쓰러지는데 혼자 살겠다고 도망도 가고, 죽은 자들의 시체를 밟고 서서 총질을 하기도 하고, 난민촌에서 벌어지는 학살을 돕기 위해 어두운 밤하늘에 밤새 조명탄을 쏘아 올리기도 한다.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미 죽은 바시르의 포스터가 붙어있다. 바시르는 피를 피로 갚도록 하는 주문이고, 이 주문에 홀려 쏘아대는 총질은 인간성을 상실한 왈츠가 된다.

〈바시르와 왈츠를〉은 전쟁과 학살의 비인간적인 상황을 애니메이션과 음악을 통해 기묘한 비현실로 그려낸다. 그 가운데 베이루트로 진격하는 병사들이 부르는 노래는 '나는 한국을 폭격했네(I bombed Korea)' 라는 곡을 바탕으로 했다고 한다. 한국전쟁 당시 폭격기 조종사의 입장에서 전쟁이 인간 자체와 무관하게 생명을 앗아가는 상황의 부조리함을 노래하는 원곡에서 이제 폭격 대상이 레바논으로 바뀐 것이다. 엔딩 크레딧에서 'Korea' 라는 글자를 보는 순간의 섬뜩함이라니. 코리아가 레바논이기도 하고, 레바논은 광주이기도하고, 가자지구이기도, 팔레스타인 장벽 안 모든 곳이기도 하다.

사브라와 샤틸라 난민수용소에서 사람이 사람에게 저지른 끔찍한 도살은 반이스라엘 투쟁의 중심세력이자 자살폭탄테러의 원조와 헤즈볼라를 탄생시켰다. 장벽이 점점 높아가고, 업에 업이 보태지면서 하마스도 생겨났다. 이스라엘은, 그리고 감독은 그날 그곳에서 자신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변명한다.

그러나 그 모든 참극의 배후에 바로 이스라엘과 자신이 있었다는 엄연한 사실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 폭탄을 쏟아 붓고 있다. 팔레스타인에 대한 학살이 지속되는 지금, 사브라와 샤틸라에서 유태인 청년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 벌어지는 학살에 대해 그 실체를 제대로 알려하지도, 바로잡으려 하지도 않는다면 우리 역시 밤마다 꿈속에까지 따라붙는 처절한 눈빛의 개들에게 쫓기게 될까봐,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방조자로서의 죄책감으로 공업에 짓눌려 사무치는 나날을 맞이하게 될까봐 정말 두렵다.

〈영화평론가〉





여래 자리 돌아가면 시방세계 없어진다



지안 스님의 〈능엄경〉 강해

㊷ 치애와 허공

〈원문〉 부처님이 아난과 여러 대중에게 고하셨다. "너희들은 마땅히 알아야 한다. 유루세계의 12류 중생의 본각묘명(本覺妙明)과 각원심체(覺圓心體)는 시방 부처님으로 더불어 둘도 없고 다름도 없건만 너희들 망상으로 진리에 미혹한 것이 허물이 되었기 때문에 어리석은 애욕(痴愛)이 발생하고 그리고는 두루 미혹해졌기 때문에 허공이 생겼으며, 변화되면서 미혹이 쉬지 아니하여 세계가 생겨남이 있게 되었으니 이 시방의 미진국토는 무루(無漏)가 아니라, 모두 미혹과 완고한 망상으로 안립된 것이니라. 마땅히 알라. 허공이 너의 마음 안에서 생긴 것이 마치 구름 한 조각이 맑은 하늘에서 생긴 것과 같으니 하물며 허공에 있는 모든 세계야 더 말할 게 있겠느냐? 너희들 한 사람이 진(眞)을 발하여 근원(根元)에 돌아가면 이 시방의 허공이 다 모두 소멸해 없어질 것이니 어떻게 허공 가운데 있는 국토가 남아 있겠느냐?"

〈강해〉 이 장(章)에서 부처님 하신 말씀은 파격적으로 특별하다. 먼저 유루세계의 12류 중생의 각원심체(覺圓心體)가 부처님과 똑같다 하였다. 유루세계(有漏世界)란 번뇌가 있는 세계라는 말이지만 동시에 생사가 있고 생멸이 있는 세계라는 말이다. 각원심체란 깨달음의 결핍이 없는 마음 그 자체를 말한다. 12류 중생이 똑같다는 것은 〈열반경〉에 설한 "일체중생이 모두 불성(佛性)이 있다"는 말과 같은 뜻이다. 모든 존재의 근원이 본질적으로 보면 각(覺)이란 말이다.

그런데 중생은 이 각에 미혹하여 치애(痴愛)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치애란 망상을 말미암아 진리를 미혹한 허물을 일컫는 말인데 구상차제(九相次第)에서 업상(業相), 전상(轉相)이 나오는 단계다. 각(覺)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각을 모르는 것도 미혹으로 인한 치애 탓이다. 이 치애(痴愛)의 발생으로 허공이 생기게 되었다는 매우 비약적인 설명이 덧붙여진다. 이는 회매위공(晦昧爲空)이라는 말과 같은 뜻으로 미혹이 꽉 찬 공간적 상황을 나타내는 말이다. 쉬지 않고 미혹(迷惑)이 확대되어 생긴 허공에 세계가 있게 되었다고 이어 말하고 있다. 결국 허공을 의지하여 생긴 세계가 미진수 국토로 확장되어 번뇌로 꽉 차게 되었다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예토(穢土)가 되었다는 것이다. 극락세계와 같은 정토는 유루세계(有漏世界)가 아닌 무루세계(無漏世界)다. 유루세계는 완고한 망상으로 안립된 세계인데 망상은 유정세계이고 완고함은 무정세계이다, 곧 정보(正報)와 의보(依報)를 합하여 한 말이다.

부처님은 다시 아난에게 허공이 너의 마음 안에서 생긴 것이 조각구름이 맑은 하늘에서 생긴 것과 같다고 일러준다. 이 역시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의 도리에 해당되는 말이다. 〈화엄경〉의 대의와 〈능엄경〉의 대의가 같다. 그래서 〈능엄경〉을 소화엄(小華嚴)이라 불렀다. 허공을 의지해 세계가 생겼으나 허공 자체가 조각구름과 같은 것이므로 보잘것없는 것이니 허공 안에서 생긴 미진국토야 더 말할 게 있느냐고 하였다. "한 사람이 진(眞)을 발해 근원(根元)에 돌아가면 이 시방의 허공이 다 없어진다(一人發眞歸元 此十方空皆悉銷殞)"는 이 말씀이 엄청난 말씀이다. 진여의 성을 발해서 본래의 여래장묘진여성 자리로 돌아가면 시방세계가 없어진다는 말이다. 이는 미혹이 없어지면 이 세상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말이다. 중생의 쪽에서 볼 때 모든 존재의 차별상이 나타나 보이는 것은 미혹 때문이라는 것이다. 중생이 성불하면 부처의 세계가 되고 그 부처의 세계에서는 일체의 차별 경계가 송두리째 없어진다는 말이다. 본래무일물(本來無一物)의 경지가 현현(顯現)하여 모든 세계를 벗어난다는 말이다. 허공 가운데 있던 모든 세계가 무너져버린다는 이 말은 중생은 상상도 할 수 없지만 부처의 경지에서는 그렇다는 것이다.

불교를 복귀사상(復歸思想)을 가지고 있는 종교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다. 깨달음을 이루면 본래로 돌아간다는 말이다. 본래로 돌아간다는 것은 각(覺), 곧 깨달음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그래서 선수행에서는 깨달은 이들을 본래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표현을 쓰기도 하였다. 한 번 본래 마음 등져버리고(一從違背本心王) 몇 번이나 삼악도 들어가고 태(胎), 난(卵), 습(濕), 화(化) 사생을 겪었던가?(幾入三途歷四生), 오늘 번뇌의 때 깨끗이 씻어내고(今日滌除煩惱染), 인연 따라 옛 그대로 제 고향에 돌아가누나(隨緣依舊自還鄕). 〈반야불교연구원장〉

다겁생 지식들 활용하려면…



구선 스님의 〈묘법연화경〉 강의

㊷ 12개의 기점

여덟 번째로 세워지는 단(壇)이 명문 기점이다. 요추 2번과 3번 사이에서 세워지는 기점이다. 쿤달리니 에너지가 내장된 자리이다. 오장과는 충맥을 통해 연결되어 있고 머리와는 독맥을 통해 연결되어 있다. 쿤달리니 에너지는 본성에서 생성되는 밝은성품과 선천혼이 생성해내는 선천기, 육체의 자율신경이 생성해 내는 에너지가 하나로 합쳐진 것이다.

세포의 텔로미어를 충전시켜주고 오장의 진기를 보강해 주는 기능을 한다. 쿤달리니가 소진되면 육체 생명의 수명이 다하게 된다. 미심 단과 옥침 단을 세웠던 호흡법과 발성법을 활용해서 명문 기점을 자극해 준다.

코숨 호흡으로 미심, 중황, 옥침을 거쳐 척추를 타고 요추 2번 끝까지 내려온다. 그런 다음 혀끝으로 입천장을 자극해서 미심을 울려준다. 미심이 진동하면 그 진동을 꼬리뼈에서 느껴본다. 꼬리뼈가 진동하면 그 진동을 명문에서 느껴본다. 명문에서 후끈한 열기가 느껴지면 단(壇)이 세워진 것이다. 중심 기점과 연결해서 후천기를 받아들이게 되면 쿤달리니에너지가 활성화된다. 중심과 연결할 때는 옴자 발성법이 활용된다.

아홉 번째로 세워지는 단(壇)이 하단전 기점이다. 배꼽 아래 세치 지점(약 5cm)이다. 연수에서 시작된 미주신경이 종지하는 자리이고 천골에서 시작된 부교감신경이 종지하는 자리이다. 하단전 기점이 세워지면 머리 쪽과 천골 쪽으로 분리되어있던 부교감신경이 하나로 통합된다. 그러면서 임독양맥이 소통되고 앞기둥과 뒤기둥이 서로 연결된다.

검지손가락 끝을 손바닥에 닿도록 한 상태에서 나선 호흡으로 백회에서 중황까지 들이쉰다. 그런 다음 혀끝을 아래 이빨 뒤쪽에 살짝 대고 기~~~!하고 길게 발성한다. 턱 떨림이 턱관절을 울리도록 하고 턱관절의 떨림으로 뒤통수를 울려준다. 뒤통수의 떨림을 시상 3뇌실로 끌고 와서 3뇌실과 대뇌변연계를 함께 울려준다.

의식이 몽롱해지면 발성의 진동을 중뇌, 교뇌, 연수로 내린다. 연수에서 미주신경을 타고 목 옆선, 쇄골, 식도를 거쳐서 중심을 울려준 다음 하단전까지 끌고 내려간다. 하단전에서 후끈한 열기가 생겨나고 그 열기가 명문과 이어지면 단(壇)이 세워진 것이다. 4선정에서 한물건이 형성되는 자리이고 육부 순화의 중추점이다.

열 번째로 세워지는 단(壇)이 황정 기점이다. 요수 2번과 3번 사이에 세워지는 기점이다. 중추신경이 최초로 형성된 자리이고 최초의 식업이 내장된 자리이다. 천골신경과 다리신경이 시작되고 명문과 연계되어서 선천원기를 내장하고 있다.

꼬리뼈 순화와 채약이 이루어지는 자리이고 5선정이 행해지는 중추점이다. 엄지손가락으로 3지, 4지를 강하게 눌러준다. 나선 호흡으로 백회에서 황정까지 길게 들이쉰다. 혀 중간부위로 입천장을 자극하면서 이~~~!하고 길게 발성한다. 중황을 울려주고 그 울림으로 중간 기둥 전체를 자극해 준다.

뇌줄기를 거쳐서 중극을 울려주고 황정까지 내려온다. 후끈한 열감이 느껴지면 단(壇)이 세워진 것이다. 중황, 중극, 황정이 하나로 연결되면 선천영과 유전영, 습득영의 정보가 하나로 통합된다. 그렇게 되면 수많은 생을 통해 체득한 지식들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세 기점의 단(壇)이 활성화되면 중추신경 전체에 세포재생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면역력도 극대화된다.

〈영양 연화사 주지〉



지흐 스님의 〈능가경〉 강설

㊷ 닦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찾는 마음, 어리석음으로 생긴 것

"그대는 앉아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부처가 되려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남악 회양 선사가 기왓장을 들고 와서는 좌선하고 있는 마조 스님 앞에서 기왓장을 갈고 있었다.

우리는 무엇을 참구하려고 할 때, 그 알려는 마음으로 인해 자신이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돌이켜 보지 않고, 자신이 부처가 되려고 하는 욕망 때문에 자신이 놓은 덫에 걸려들고 만다. 아마도 대부분은 무엇이 덫인 줄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걸려든다. 그리고 또 어떤 대상을 찾는다고 말하지만 정작 그 대상이 무엇인지 이해할 틈도 없이 출발부터 하기도 한다. 수행에서 대부분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인데, 이 어려움은 수행하면서 생겨나는 어려움이 아니라 수행이 무엇인지를 몰라 일으키는 사소한 실수들이다. 우리는 아주 가까이에서 이런 경험을 하고 있다. 특히 남자가 특별한 요리를 한다고 할 때 많이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요리를 잘하지 못하면서 꺼내 놓는 것은 엄청 많다. 요리 하나를 하고 나면 온갖 그릇들이 밖으로 나오고 양념들도 나오고 부엌 전체가 아주 많이 어수선해진다. 그에 비해 요리된 음식은 몇 가지가 되지 않는데 설거지할 그릇은 산더미처럼 쌓이게 된다. 시간도 아주 많이 허비한다. 요리하는 일도 힘들었지만 어지러운 그릇을 정리하는 시간도 힘들다.

삶이나 수행에서 겪는 능숙하지 못한 일들은 나쁜 일도 아니고 좋은 일도 아니다. 모른다는 것도 나쁜 일도 아니고 좋은 일도 아니다. 그런 일을 접하는 지혜가 중요하다. 지혜는 순수함이다. 어떤 상태를 어디에도 전가하지 않아야 한다. 지혜는 그때의 인연의 들음에서 현재의 인연을 배우는 것이다. 옳고 그름을 배우는 것이 아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인연을 있는 그대로 알 수 있는 상태이다. 인연은 누구에게도 백퍼센트 만족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어렵다. 조금만 불만족스러워도 마음이 움직여버린다. 마음이 움직이고 나면 수행을 하는 마음이나 인생의 진로를 변경하는 일이 생겨나는 것이다. 그때의 수행은 수행이 아니라 마음의 위안을 받으려는 행위일 뿐이다. 태어남은 개체의 태어남이 아니라 인연의 태어남이다. 그러니 실체가 없다. 지금 있는 그대로의 인연에 간택이 없다면, 그는 따로 부처가 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기왓장을 갈아서 어떻게 거울이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대가 좌선을 한다고 어찌 부처가 되겠는가?" "좌선을 하여 부처가 되지 않는다면 어찌해야 합니까?" "소가 수레를 끄는데 만약 수레가 가지 않으면 수레를 때리는 것이 옳은가? 소를 때리는 것이 옳은가?"

찾는 마음은 어리석음으로 생긴 행위이다. 그 행위는 어리석음에서 나왔기 때문에 바른길을 갈 수가 없다. 사대오온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그저 마음으로 인해 움직이고 있는 것뿐이다. 수레가 어디를 가는 줄 알겠는가. 그저 이쪽으로 저쪽으로 가자고 하니 가는 수밖에 없다. 어디가 종착점인지를 모른다. 그것은 마음도 마찬가지다. 마음도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모른다. 그러면서 부처가 되려고 하니 어찌 부처가 되겠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주 간단하다. 몸과 마음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일이다. 이해하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에 대해 자세하게 관찰하는 일이다. 누구나 관찰을 해보면, 몸과 마음은 최종적으로 우주에 대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배우는 목적도 똑같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배우고 있는 것이다. 만약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배우고 있다는 말의 뜻을 알아 버리면,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배울 필요가 없어진다. 그런데 이 말을 완전하고 깊이 있게 알지 못해 계속 참구하게 되는 것이다.

스스로가 된다는 것은 우주에 일어나는 일에 아무것도 배울 것이 없다는 것이다. 그는 언제나 알고 있다. 일어날 때 일어남을 알고 있고, 사라질 때 사라짐을 알고 있다. 미리 알려고 허둥대지 않고, 지나간 일에 되새김하여 붙들리지도 않는다. 오직 지금 그대로의 일어남을 알고 보고 있을 뿐, 그것을 실체라고도 허상이라고도 하지 않는다.

〈(사)여시아문 선원장〉



2023년 11월 15일 수요일 | 불기 2567년

접 수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04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459호 | 17 | 전면광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면 지혜가 생길 것이요,
마음에 지혜가 생기면 곧 깨달음이
생길 것이다.



부처님 말씀 읽기 - 《불반니원경》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경기안양
- 2층포교당 : 60평
- 법당(삼존불), 공양간, 종무소, 룸
- 시설비무료인계, 시내, 주차가,
- 보증금 : 1천만원
- 임료:60만원
- 경기분당포교원
- 8층건물에 8층
- 128평에 전용80평
- ev.주차가, 옥상사용
- 매가 : 15억

※40년세월,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상담 받습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상담(창건주승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사찰, 땅, 포교당, 대형 천년사찰터 다량 보유
부전 등 절집소임 소개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010-4586-4525

사찰(급)안내

스님 병환으로 급매

- 땅(종교부지) 값만 받고 양도합니다.
- 위치 : 강원도 삼척시
- 대지 : 약 600 평
- 법당, 산신각, 미륵불, 탑 종각 및 범종, 요사채 2동
- 시내와 인접 : 교통이 좋습니다.
- 집기류 다 주고 갑니다. 그냥 오셔서 법회를 하시면 됩니다.

010-2366-2821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마산
- 대지 : 6백평, 임야 : 3천 6백평
- 건물 : 대웅전 55평, 공양실 35평, 종무소 10평, 요사 30평
- 천연 지하 석수 1일 200톤 이상
- 가액 : 9억

010-6764-003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사찰
- 대지 : 120평
- 건물 : 건물외 부속건물 약 30평
- 난방 : 태양열 시설이 되어있음
- 가격 : 1억 2천만원 (절충가능)

010-5436-5801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해남군 계곡면
- 대지 : 350평
- 가액 : 4억 5천
- 구조 : 철근 콘크리트조
- 건물 : 약85평 (법당 요사채) (건물 3층 180평까지 증축 가능)



010-7710-8334

사찰(급)안내

- 위치 : 원주 미륵산 명당터, 경관좋음
- 대지 : 1,239평, 주차 약 30대, 앞에 큰 도로, 버스정류장 약 300m
- 1층 요사채, 2층 법당, 삼성각, 원주시청, 충주시청, 문막읍 약 20km
- 가액 : 6억5천만원
- 답사하실 분만 전화 요망

010-5371-5567

사 찰 안 내

- 경주시 산내면
- 대지 : 142평
- 한옥 2채 (위채:법당, 아래채), 큰 창고 1동
- 교통편 편리
- 가액 : 1억 8천만원 (절충 가능)

010-9338-1755

건 물 안 내

- 위치 : 부산시 북구 시랑로 118
- 4층 건물 (1층 33평 법당, 2층 24평 종교시설, 3층 20평 주택, 4층 15평 주택)
- CCTV 4대 설치
- 가액 : 4억원

010-9881-7363

암 자 안 내

- 위치 : 부산연산동 황령산
- 가격
  전세 : 일백만원
  월세 : 십오만원
- 시설비 : 일천백만원

010-4435-5660

사 찰 안 내

- 위치 : 동해시
- 여법한 목조건물(법당30평, 산신각, 주지실, 요사채, 공양간, 창고, 주차장) 동해시와삼척 중간지점으로 포교 최적지임 / 인근에 휴양지 근접 (추암, 망상, 증산, 삼척해변)
- 원력과비젼을 가진분께 양도함
- 주지스님의 건강상 가액은 시세 이하로 협의합니다.
- 좋은 인연을 기대합니다

010-9279-4542

암 자 안 내

- 위치 : 익산시 삼기면 석기길 익산시내에서 10분거리
- 토지 : 160평
- 건물 : 법당30평외 2동
- 동불보살님 3분과 탱화 및 살림 포함가능
- 가격 : 1억1천만원 (다른곳 소임문제로 급매매)

010-3676-4788

사찰(급)안내

- 경북 청송군 현동면
- 대지 143평 (현재 운영중)
- 가액 : 9500만원 (조정 가능)
- 법사님 일반인 무속인 인연맺습니다.



010-4180-178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안동시 북후면 산북로 1104-13
- 법당, 산신각, 요사채, 황토방, 미륵입상
- 가격 : 2억 8천만원
  집기류는 다 주고 갑니다. 그냥 오셔서 법회 하시면 됩니다. 스님이 연로하셔서 인연자를 기다립니다.

*굿당으로 해도 좋은 자리입니다.

010-9355-1779

현대불교신문 구독안내

전화 한번에 끝!

자동이체로 전환하세요

(02)2004-8212

신문을 구독하시면 생활안내 · 불자정보
(사찰, 포교당 양도및 기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kakao Ch 카카오톡 채널에 **현대불교신문** 검색

NAVER 현대불교신문

현대불교신문

후원 나눔 캠페인

법보시 후원은 최상의 공덕입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세요.

02-2004-821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하동군 옥종면 궁항리 삼신봉 주산
- 면적 : 약 360평
- 법당 : 20평, 산신각, 요사채, 공양간, 창고, 화장실(2개)
- 해수관세음보살상 : 7m
- 많은 꽃과 나무가 식재되어 있고, 사찰 옆에 작은 폭포와 개울이 흐르고 있습니다.
- 매매가 : 1억 3천만원 (비품대 미포함)

010-2807-0509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청주시 상당구
- 대지 : 약 340평
- 건물 : 1, 2층 - 1층 26평, 2층 법당 20평, 요사채 15평(거실2칸, 해우소 3칸)
- 가격 : 상담 후 결정

010-8914-176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 (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0억원(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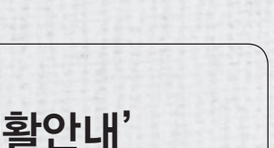
토굴안내

- 위치 : 영주시 조망이 좋은 곳에 위치해있음
- 대지 : 82평
- 건물 2동(윗채, 아래채), 별채, 마당
- 시책사업 공사완공으로 주변이 잘 정리되어 있고 주차장이 넓음
- (전세도 가능 전화문의)
- 가액 : 1억원

010-5538-557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장현리 411-1, 411-2
- 매매금 : 3억원
- 올수리, 사찰 장엄 완료, 250평



010-3618-6061

멋진사찰 (급) 안내

- 위 치 : 경상북도 영천시
- 대 지 : 약 175평
- 건 물 : 법당 1동 25평(단청) 산신각 1동 약4~5평
- 요사채 : 1동 약 25평 1동 약 25평, 2층 약 6평
- 가 액 : 2억 3천만원(절충가능)

건강상의 이유로 시세 이하로 계산합니다.

010-3007-5611

이젠 인터넷 뉴스사이트 **현불뉴스 hyunbulnews.com**에서도

불자정보·생활안내를 생활 안내

찾아보실 수 있어요

NAVER 불자정보·생활안내 검색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어보세요

'생활안내'
'불자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접 수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04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안내

1459호 | 18 | 전면광고

마음이 생기면 갖가지 법이 생기고
마음이 소멸하면 갖가지 법이 소멸한다.

부처님 말씀 읽기 -《능가경》에서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보존회 학인모집

1. 염불 · 사물
2. 천수바라 · 오공양작법
3. 다게작법 · 운심게작법

- 특별반 3개월과정모집
- 사) 대한불교 전통불교조계종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부산영산재 사무국 총무원 010-5511-7000

구합니다

60대 비구입니다.
남은여생, 수행 정진할
조용한 암자를 구합니다.

010-5929-3217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
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점안,살풀이,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GNN 손도사

책50권 저술출간함
세계1등 운명상담
010-5105-5000

의식은 불교의 꽃 (행사대행)

49제, 점안, 기타, 바라, 살풀이

30년 수행 공덕으로 귀사찰에 불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6785-1130 / 010-5270-8260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암, 산소, 묘터 물찬곳, 유산낙태,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조상기도법, 귀신붙은 얼굴, 배우자가 일찍 죽는 관상
- 스님, 무속인, 공무원, 일반인 특별책임지도
- 출장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성명학, 사주명리, 점성학

문의 010-4014-8822
365일 무료숙식제공 교육장 · 비법, 상술 전문지도

승용차 팝니다

- 2017년식 검정색 K5 2세대, 6만키로 주행

상태 너무 좋고 내부 음향시설 잘 돼있고 매매시장에서도 탐내는데, 제가 스님하고 인연되어 좋은 가격에 드리고 싶습니다. 필요하신 스님 불자님 연락바랍니다.

010-4026-5810 지호

점 연구원

- 미래 현재 과거 점 보는 법
- 타고난 팔자는 바꿀 수는 없고, 좋은 팔자는 만들 수 있다 !
- 사주팔자 풀이 잘 안되는 분, 쉽게 풀이하는 법 전수
- 예) 명리 육임 육효
- 하늘, 땅, 나, 삼합 보는 법
- 준비물 없음
- 토화사 삼봉법사

010-3750-8555

이조불교 재활용센터

- 대불, 소불, 동불, 탱화, 법당 제작 (수미단, 닷집, 운각)
- 법당 철거, 오래된 불서 고가 매입

*사찰 사고팝니다.

010-9177-7842

탈 종 공 고

- 승 번 : 132-0073(인천교구)
- 주 지 : 고정섭(법명 法宣)
- 주 소 : 인천광역시 강화읍 새말길 8번길 15-2

상기인은
귀종의 종풍이 맞지 않아
탈종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5일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법하

현대불교신문 구독 나눔 캠페인

현대불교신문에는
부처님의 따뜻한 자비와 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도반과 함께 구독하여 나눔의 기쁨을 누려보세요.

02-2004-8212



좋은인연 대출안내

-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 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놀라운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석 염주 · 합장주 · 지키미

희담석이란? 희담석(稀潭石 / Batu Hitam)은 대규모의 화산 폭발로 인해 지구 깊숙이 묻혀 있던 무기물들이 용암과 함께 분출된 후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단단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현지 주민들은 이 돌을 옛부터 치료용으로 사용 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성분 분석과 원적외선 파동 검사를 통해 인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여 실용화 한 것이 바로 【희담석】입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부를 만큼 생명체에게 유익하며, 방출되는 원적외선의 질과 양은 타 제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따라서 세포의 활성화를 통한 최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희담석 합장주(12mm) 판매가 : 12,000원 ➡ 10,000원
- 남자와 여성분들의 손목에 맞추어져 있음.
- 재질 : ABS, 희담석 50%
▪ 팔목이 늘 뻐근한 분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운동이 부족한 불자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희담석 지키미 판매가 : 20,000원 ➡ 15,000원
희담석 지키미는 놀라운 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 원석을 휴대하기 간편하도록 제작한 제품입니다.
평상시 주머니에 넣어 다니거나, 틈나는 대로 특정한 통증 부위에 사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희담석108염주(8mm) 판매가 : 39,600원 ➡ 35,000원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수행증진을!!
구성 : 희담석 108염주
크기 : 직경 8mm "희담석 8mm염주는 차걸이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불교문화상품 전문몰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구매전화 1688-9099 / (02)732-1520

향로용 유리알 향운정주(수정모사)



▣ **상품명** : 향운정주 (수정모사)
▣ **재 질** : 크리스탈 유리알
▣ **용 도** :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규 격** : 1kg :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특별공급가격** : **1kg :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구입처** : 전화 : 02-732-1520 , 팩스 : 02-737-0696
▣ **계 좌**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판매원** :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 ㈜바이넥스 / 원산지 :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 향로에 들어가는 향로용 유리알 수량 (스텐 향로 기준)

종류		크기			수량
향로(스텐)	特大	지름: 20cm	높이: 18.5cm	내부: 13cm	5kg
향로(스텐)	大	지름: 17.5cm	높이: 18.5cm	내부: 11.5cm	3kg
향로(스텐)	中	지름: 13.5cm	높이: 16cm	내부: 10cm	1.5kg
향로(스텐)	小	지름: 12cm	높이: 12.5cm	내부: 8.5cm	1kg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재완의 포토에세이

길



길,
길이라는 게 쉬울 수가 있겠나.
쉽다면, '길' 이 아니겠지.
우리는
어떤 길이든 가야한다.
그렇게 다들 길을 가고 있다.
그것이 시간이 되고, 우주가 된다.
다시, 먼 하늘이 눈물 같은 계절에
달은 떠서 또 어렵고
바람은 불어서 막막한데
길은 또 다가오고 있다.



임병학 교수의 꽃차이야기
⑲ 메밀차

모세혈관 튼튼하게…혈액순환 촉진

여름철 더위를 식혀주는 대표적인 음식인 메밀은 마디풀과 메밀속으로 한해살이풀이다. 서늘하고 비가 알맞게 내리는 지역에서 잘 자라고, 꽃은 7~10월에 피는데 흰색으로 핀다.

메밀은 최초로 고려시대 〈향약구급방(鄕藥救急方)〉에 기록이 있으나 통일신라시대에 메밀종자가 검출된 기록이 있어, 그 이전부터 이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용부위는 잎, 씨앗으로 식용 또는 약용하고, 또 차로 사용한다.

성분과 약성

메밀과 싹에는 오리엔틴(orientin), 호모오리엔틴(homoorientine), 비텍신(vitexin), 사포나레틴(saponaretin), 루틴, 퀘르세틴, 시아니딘(cyanidin), 칼륨, 마그네슘, 칼슘, 인, 철분 등이 있고, 껍질 속에는 살리실아민(salicylamine), 히드록시벤질아민이 있다.

메밀은 성질이 차고, 맛이 달다. 장(腸)을 튼튼하게 하고 기운을 더한다.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촉진시킨다. 고혈압, 동맥경화, 당뇨, 심혈관계 질환 등 성인병 치료 및 예방을 한다. 폐렴, 기관지염, 인후염, 급성장염 등 염증을 치료한다. 항산화물질이 풍부하여 피부미용과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

마음 · 기작용

메밀은 간(肝)에 좋은 태양인의 꽃차이다. 〈동무유고〉 〈동무약성가〉에서는 "메밀은 맛이 달고 성질이 차다. 장(腸)을 실하게 하고 기운을 더하며, 여러 가지 병을 동(動)하게 하고 능히 오장(五臟)을 단련시킨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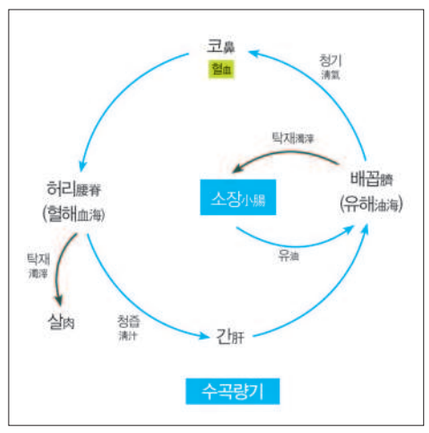
성질이 찬 메밀은 비장(脾臟)으로 들어가 위의 열을 내리기 때문에 성질 급한 태양인을 느슨하게 한다. 또 오장의 더러운 찌꺼기를 배출시키고, 필수아미노산이 풍부하여 간의 기운을 보익한다.

메밀은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하여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고혈압, 동맹경화,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데, 이는 수곡량기의 혈해(血海)와 관계된다. 수곡량기는 소장(小腸)에서 유(油)가 생성되어 배꼽의 유해(油海)로 들어가고, 유해의 맑은 기운은 코로 나아가서 혈(血)이 되고, 코의 혈이 허리로 들어가 혈해가 된다. 혈해의 맑은 즙을 간(肝)이 빨아 들여서 간의 원기를 보익하기 때문에 메밀은 혈해를 충만하게 하는 것이다.(그림 참조)

메밀은 급성장염을 치료하고 장을 실하게 하고 오장을 단련하는데, 이것도 수곡량기의 소장(小腸)과 관계된다. 배꼽에 있는 유해(油海)의 탁재(濁滓)가 소장을 보익하기 때문에 메밀은 소장의 유(油)를 잘 생성시켜 유해를 충만하게 하는 것이다.(그림 참조)

또 메밀은 폐렴, 기관지염, 인후염, 종기 등 염증을 치료하고, 항산화물질이 풍부해 피부미용에 효과가 있는데, 이는 수곡온기의 니해(膩海)와 관계된다. 니해의 맑은 즙이 폐의 원기를 보익하고, 니해의 탁재(濁滓)는 피부를 돕기 때문에 메밀은 니해를 충만하게 하는 것이다.





제다 및 음용

메밀차 제다는 ①서리가 내린 전후 수확하여, 껍질을 벗긴 것을 구입한다. ②깨끗하게 씻어 소쿠리에 건져 물기를 뺀다. ③중온에서 메밀을 덖으면서 익힌다. ④고온에서 구수한 맛이 나도록 가향을 해서 완성한다.

메밀차 2g에 100℃로 끓인 물 250ml를 넣고, 2분 이내 우린다. 메밀차에 무차를 블렌딩한다. 무차는 기침, 가래를 없애주는 효능이 있고, 메밀껍질 속에 있는 유해물질을 해독시켜준다.

메밀차 블렌딩은 몸을 서늘하게 하여 염증을 가라앉히고 기관지와 폐 기능을 도우며, 해독과 소화 작용으로 오장을 튼튼하게 한다.

메밀차 1.5g, 무차 0.5g에 100℃로 끓인 물 300ml를 넣고, 2분 이내 우린다. 비위가 허한 사람이 과다 음용하면 원기가 손상되어 수염과 머리카락이 빠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사상인별 시음

태음인이 마셨을 때, 메밀차의 향은 볶은 곡류에서 나오는 구수하고 낯익은 향이다. 맛은 누룽지의 구수한 맛이 전체적으로 감돌았고, 단맛은 목 부분에서 오래 남아서 다른 곡류차에 비해 신선한 느낌이다. 따뜻한 차가 입 안에서는 열감이 있었지만, 삼키고 나서 몸에 전해지는 열감은 적었다.

열이 있는 태음인이 마셨을 때, 찻잔의 연한 메밀차는 구수한 누룽지 맛과 뒤끝에 단맛이 조금 느껴지면서, 열탕 속에 차가운 물을 넣어주는 것 같았다. 메밀차를 마신 다음 날 아침 세안 후 얼굴에 벌겋게 느껴지는 열감이 가라앉는 느낌이 확연했다. 또 다른 태음인은 메밀차를 마시니 피곤함과 긴장으로 상승했던 화기(火氣)가 내려가는 느낌을 받았다.

소음인이 마셨을 때, 메밀차에서 깔끔하고 구수한 향이 났다. 뜨거운 온도에서 마셨으나 몸에 서 온기는 느껴지지 않았다. 마시고 난 뒤의 뒷맛은 달콤했지만 차가운 기운이 감도는 것 같았다. 첫잔에 전해지는 따뜻한 느낌과는 다르게 속에서는 오히려 시원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계속 마시고 싶지는 않았다.

다른 소음인이 마셨을 때, 메밀차에서는 구수한 볶음 쌀 향이 났으며, 시음한 맛에서는 구수하면서도 떫은맛이 다가 왔다. 혀끝에서는 약하게 얼얼한 느낌도 느껴졌고, 차를 한 모금 넘길 때에는 텁텁함도 다가왔다. 입에서 잘 감기지 않고 겉도는 느낌도 있었다.

차가운 메밀차는 몸에 속 열이 있는 사람에게는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소음인이나 태음인 한증에게는 맞지 않는 것 같다.

〈원광대학교 동양학대학원 교수〉

일일시호일

헛디딘 발끝 한 번에
산산이 부서진 고향 생각

추석날 가파른 계단서 실족…두개골 · 허리 골절에 중환자실
밀린 병원비 3000만원…"수술 불가피" 권고에도 엄두 못내



농협 301-0189-0356-5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070.4707.1080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

마음책 다시 읽기 명상 100문 100답 ④ 명상의 효과 上

▶ 한줄 요약
처음의 시작점을 자주 바꾸게 되면 끝까지 오르지 못하고 계속 그 자리를 맴돌 수 있습니다. 명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이한 경험은 '번뇌'…바른 명상 추구해야



성격 · 습관도 바꿀 수 있나요

명상은 자신의 현재 상태를 알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나쁜 습관의 경우 자신이 그것을 멈추고자 하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 이미 그 일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긴장하여 손톱을 물어뜯거나, 마른 입술을 적시기 위해 혀를 날름거리는 경우도 나쁜 습관 중의 하나입니다. 그 행위가 긴장완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안의 차원에서 위생상, 미관상 좋지 않은 행위를 반복하게 됩니다.

처음 명상을 시작하면 자신이 하는 행위를 알아차리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만약 손톱을 물어뜯고 있다면 자신이 손톱을 물고 있는 상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모르면 지속되지만 알면 멈출 수가 있습니다. 한 번 알아차리는 것으로 오래된 습관이 멈추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손톱을 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멈추기를 반복하면 점차 멈추는 것이 수월해집니다. 더 나아가 멈추기가 익숙해지면 손이 입으로 다가가기 전에 물고자 하는 의도를 알아차릴 수 있게 됩니다. 물어뜯는 행위가 나타나기 이전에 행위를 하고자 하는 욕구를 알아차리고 다스리게 되므로, 의도를 알아차리면 행위로 발전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왜 물고자 하는 의도가 나타나는지도 알게 됩니다. 마음에서 불안이 일어났기에 손을 물고자 하는 의도가 일어났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손을 물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라 불안 그 자체를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명상은 반복적인 습관을 다스릴 수 있게 합니다.

명상이 점진적으로 발전하면 지금 이 순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원인을 파악하여 근본적인 문제를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나쁜 습관에 비해 나쁜 성격을 다스리는 것은 좀 더 어려운 작업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질을 고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습관과 같은 이치로 현재의 문제부터 반복적으로 알아차리게 되면, 자신의 본래 성품과 언행을 통해 외부로 표현하는 자신의 부정적 모습을 살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에게 잘 맞는 명상법은?

나에게 잘 맞는 명상법을 골라 그것만 지속해도 좋을 것입니다. 특히 자신의 체질이나 성격유형에 맞는 명상법을 활용한다면 보다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성적인 사람에게 역동적이고 외향적인 명상을 진행하라고 하면 불편함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향적인 사람에게 고요히 다리를 접고 앉아, 많은 시간을 움직임 없이 침묵하라고 한다면 고문 같이 느껴질 것입니다. 따라서 명상을 처음 시작할 때는 자신에게 맞는 손쉬운 방법으로 시작할 것을 권유합니다.

다만, 나에게 맞는 명상법을 찾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불교의 경우, 지도자들은 각각의 수행자에게 적합한 명상법을 주기 위해 오랜 시간 노력해왔습니다. 남방불교의 수행지침서인 〈청정도론〉은 인간의 성향을 6가지로 구분하고 각자의 성향에 맞는 수행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합니다. 지도자는 먼저 수행자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일하고, 먹고, 보고, 심리현상을 나타내는지를 자세히 살피고, 이들과의 상담을 통해 탐(貪), 진(瞋), 치(癡), 신(信), 각(覺), 진(眞)이라는 여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후에 이들에게 맞는 수행법을 찾아주는 시스템을 만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구분은 보다 쉽게 명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최근에는 종교뿐만 아니라 한의학, 심리학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사상체질, MBTI, 에니어그램 등과 같이 인간의 성향을 구분하는 방법론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분법을 바탕으로 성향에 따라 어떤 명상이 보다 효율적인지에 대한 연구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명상의 방법들은 명상의 시작에서 차이가 있을 뿐, 명상의 내적 기능을 파악하면 유사해집니다. 등산을 할 때 다양한 코스가 있고 사람마다 좋아하는 길이 다르지만, 처음의 시작지점이 다를 뿐이지 어느 정도 오르면 비슷한 위치에서 만나게 됩니다. 어떤 코스이든 자신이 꾸준히 진행하며 다양한 경험도 하고 고비도 넘기면, 다음에 다른 코스로 올라도 문제가 없지만, 처음의 시작점을 자주 바꾸게 되면 끝까지 오르지 못하고 계속 그 자리를 맴돌 수 있습니다. 명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방법을 자주 바꾸기보다는 꾸준히 지속하고 익숙해진 후에 필요여하에 따라 다른 방법을 경험해볼 것을 권합니다.

나쁜 습관으로 불편 겪을 때
명상 훈련 거듭해 익숙해지면
원인 알고 근본 문제 다스려
다양한 수행법 헤매기보다는
한 가지를 오랫동안 수행해야

개인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나요

명상 자체에 차이가 있다기보다는 명상을 진행하는 사람이 다르니 그 효과도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골프를 한다고 해도 성별에 따라, 연령에 따라, 성격에 따라, 개인의 조건에 따라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명상 참여 목적이나 선호도 등에 의한 차이일 수 있으며, 개인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참여하느냐에 따라 개별적 조건은 극복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상을 진행하는 데 절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이나 긍정적 결과를 내는 선천적 조건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긍정적으로 본다면, 어린이의 순수함이 현상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데 적합할 것이며, 어른의 노련함이 지혜로운 이해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조급한 마음이 노력을 부추길 것이고, 느슨한 마음이 이완을 일으킬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특성들은 반대로 부정적 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만약 명상의 결과에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면 차이점을 논하기 수월하겠으나, 명상의 결과는 개인의 주관적 차원에서 다뤄집니다. 한 구절의 시구가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명상법이 같다고 할지라도 그것의 효과를 체험하는 것은 주관적 경험에 의한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선정 등을 체험한다고 할 때도 주관적 경험에 의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개인의 조건에 따라 명상의 효과에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차이가 무엇인지를 객관화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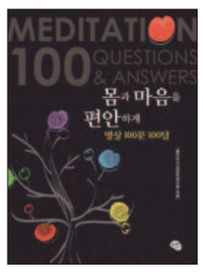
개인의 조건보다는 환경적인 조건이 명상의 효과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혼자 명상하기보다는 여럿이 함께 할 수 있는 환경, 가족의 동의나 주변의 호의 안에서 진행할 수 있는 환경, 적절히 지도해줄 수 있는 지도자가 있는 환경 등이 긍정적 효과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초능력이 생기나요

명상은 경우에 따라 기존에 해보지 못한 색다른 체험을 하게 합니다. 다만, 이 체험은 물리적 혹은 신비적인 것이라기보다 심리적 차원에 가깝습니다. 명상을 통해 몸이 공중에 뜬다거나, 먼 거리의 사물이 보이거나, 소리가 들리거나, 물위를 걷는다거나, 벽을 뚫고 지나간다거나, 다른 사람의 몸속을 보거나, 마음을 읽거나, 미래를 예측하는 신통력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들의 진위여부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보통 명상을 통해 획득되는 초능력은 신비적인 능력보다는 기존에 알지 못했던 현상들을 알게 되는 경험적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명상은 고요함을 통해 몸의 움직임을 섬세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던 맥박, 호흡, 간지러움, 통증들도 마치 눈으로 보듯이 자세히 알 수 있게 됩니다. 다리의 저림 등을 통해 피의 흐름도 파악이 되고, 근육의 움직임과 열기를 통한 땀의 분출까지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능력은 몸에 대한 탁월한 관찰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마음의 움직임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분노하는 마음을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과정에 의해 분노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분노가 신체적으로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몸과 마음을 아는 초능력입니다. 이러한 초능력을 통하여 몸과 마음에 불필요하게 붙어있는 응어리를 풀어낼 수도 있습니다. 치유의 작용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론 명상의 과정을 통해 특별한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공중부양이나 유체이탈을 경험하기도 하고, 몸이 마음대로 움직여 춤을 추기도 하며, 다양한 시청각적 현상들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특히, 마음속에서 강한 빛을 경험하기도 하고, 예리한 이해력이 생겨 가르침의 깊은 의미를 꿰뚫듯이 이해하기도 합니다. 몸의 전율을 느끼는 희열이 생기기도 하고, 몸과 마음이 아주 안정되어 편안해지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마음에서 강렬한 즐거운 느낌을 느끼기도 하며, 강한 믿음이 생겨나기도 하며, 더욱더 노력하여 정진을 하며, 흔들림 없는 집중이 뚜렷하게 항상 자리잡고 있기도 하고, 마음은 더욱더 평온해지며, 이러한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하여 집착과 욕망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경험들을 명상을 통한 긍정적인 능력이라기보다 버려야 할 번뇌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현상들을 경험하면, 다시 체험하고 싶은 욕구로 발전하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특별한 현상에 대한 욕구가 늘어나면 명상은 순조롭게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불교명상에서의 초능력은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현상을 아는 뛰어난 지혜의 의미로 사용된다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저 : 박성식(동국대학교 분당한방병원 사상체질과 교수) 외 12명 / 올리브 그린 펴냄〉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 편집자〉 ●보낼곳 : 우 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월드오피스텔 606호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 (031)470-3116



대행 스님

제 1459 호 현대불교
2023년 11월 15일(음 10월 3일) 수요일 / 불기 2567년

한마음으로서 한마음에서 나오는걸 한마음에다 되입력하라

여러분, 오늘 오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마음공부를 증득하지 못하고 오계를 방편으로만 설하고 방편으로만 받는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이 둘이 아니며 둘이 아닌 까닭에 부처님의 온 누리의 그 뜻이 한 찰나에 서리니, 오계를 받은 분들은 앞으로 더 오계를 받을 필요가 없고, 첫째는 악한 병고에 휘달리지 않을 것이고 두 번째, 모든 이 한마음으로서 돌아가는 그 공부에 게으르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이 여우 꼬랑지라도 봐 줘야 물리가 터지고 충전이 되듯 우리가 산 뜻이 그대로, 전력과 자력과 통신력이, 그리고 광력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오계입니다.

세 번째, 자녀들을 기르고 어머니 아버지로서 위로 부모를 모시고 이렇게 살아나가는 이 험난한 세월 속에서 오계 받은 사람이 한마음을 내면 그 마음의 그 뜻이 서로서로 전달되지 않으면서도 전달되면서 이어진다는 그 밝음의 불빛! 여러분은 그저 계만 준다 하면 돈을 내고 가서 계를 받는데, 만약에 중들이 돈을 모으기 위해서 계를 준다 하고 계첩을 만든다 하면 그것은 엄벌에 처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똑똑히 잘 생각하시고, 이 계첩이나 또는 오늘 서로 계를 주고받은 그 뜻을 마음으로 새겨야지 물질로써 주고받은 그런 걸로만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준 사람도 책임이 있고 받은 사람도 책임이 있고 부처님의 그 뜻에도 책임이 있으니 여러분은 잘 생각해서 그 계를 지키도록 하시며 또 그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넷째는 우리가 죽어서 천당에 간다고 하죠? 그러나 오늘 이 오계를 받은 사람들에 한해서는, 만약에 승천하는 길이, 천당 길이 지금 청와대라면, 비유하는 겁니다, 청와대에는 근거가 없이는, 표를 안 가지고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계를 받은 뜻의 그 확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생전에만 이렇게 거추장스럽게 방편으로 그냥 떨어뜨린 게 아닙니다. 나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내가 책임이 있는 것은 내가 만약에 거짓으로 했다면 내 책임이 아주 클 것입니다.

내 책임이 크다고 하는 것은 여러 신도님들의 돈을 받아서 만약에 허탈히 하면서 거짓으로 설했다면, 내가 진실된 마음으로서 여러분에게 계를 설하지 않았다면, 내가 구렁이가 돼서 그 비늘마다, 여러 신도님의 의식이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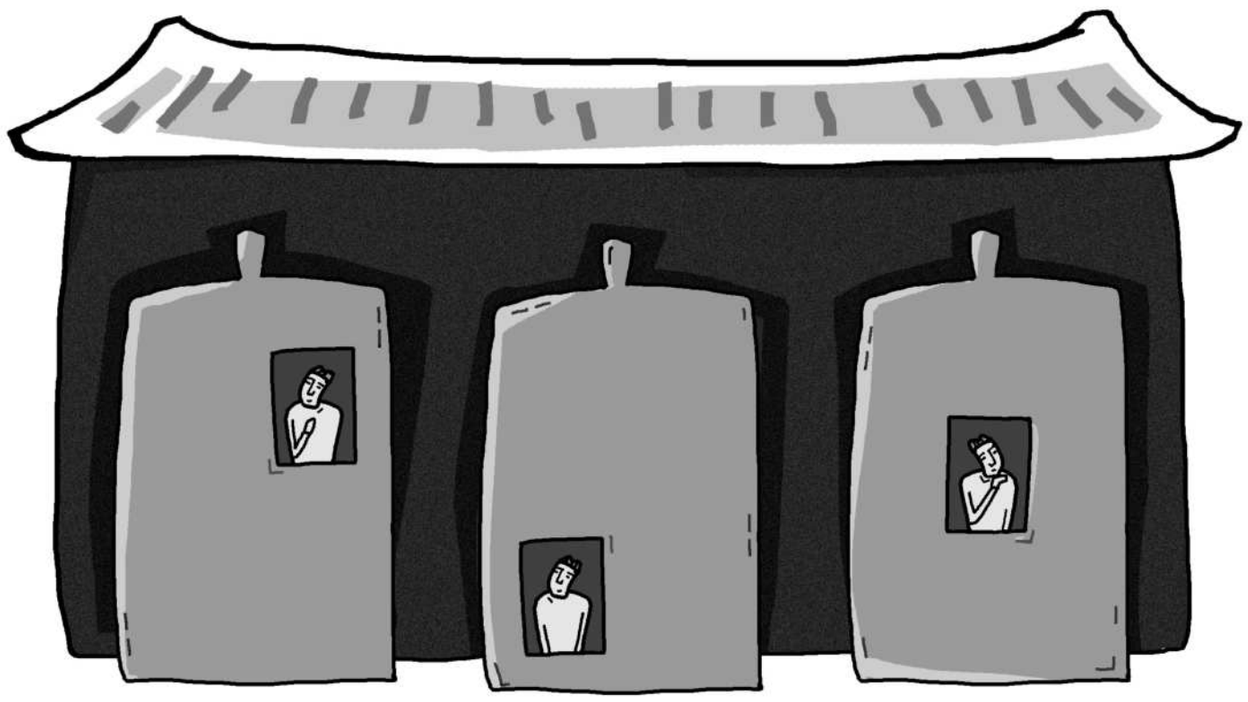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비늘마다 들어서 그것을 내놓으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책임이 얼마나 중요하고 막대한지 여러분은 깊이 모르실 겁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한테 계를 설한 것을, 나는 주는 사이 없이 주었으니 여러분도 받는 사이 없이 받아서 오직 뜻으로 간직하면서 그것을 허탈히 생각하지 마시라 이겁니다.

지금 선풍 한 것이 뭐냐 하면 각 절에서 계를 준다 하면 그저 무조건 두 번이고 세 번이고 가서 받는 것을 능사로 생각하시는데,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계를 허탈히 거짓으로써 방편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주었다면 그건 한데 떨어지는 설이다." 이런 문제입니다. "한데 떨어지지 않게 하라. 한마디를 하더라도 한데 떨어지지 않게 하며 오계를 설하되 한데 떨어지지 않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 말씀이 있으셨던 그때 그 시절의 그 뜻은 오늘날까지도 생생하게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십니다.

삼천 년 전이 오늘이요, 삼천 년 후가 오늘입니다. 오늘이라는 이 자체에서 오늘도 찰나찰나 공해서 변해 돌아가고 부서지고, 모든 게 찰나찰나 늙어지고, 젊었다가도 자라면서 늙어지고 없어지고 또 생하고 이러는 시점에서, 마음을 잘 가다듬어서 한마음으로서 한마음에서 나오는 걸 한마음에다 되입력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진실을 여러분은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계 받은 사람이 딴 데 가서 또 좋을 줄 알고 계를 받으면 여러분은 오늘의 그 계 받은 게 무효가 될 것입니다. 애를 써서 피땀을 흘리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벌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단 1불을 쓴다 하더라도 허무하게 써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오늘도 어저께도 가만히 보니까 이 장소가 좁습니다. 하지만 좁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마음 깊이 생각하면서 옹기종기 앉아서, 또 옹기종기 앉아 있지 못하면 저기서라도 들으면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살림이 군색한데 이 절에서 크게 한다고 집만 넓히고 그런대서야 말이 됩니까? 그러나 우리는 십시일반으로 정성스럽게 되는 한 넓히자는 거지, 여러분이 집이 없이 굶주리면서 이 절간을 넓히자 하는 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군색하고 고독하고 가난하고 병고에 휘달린다면 이 못난 중 역시 마음이 아픕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하고 또는 병고가 없어지고 가난이 없어지고 가환이 없어지고 업보가 무너진다면 여러분의 그 밝은 마음과 내 밝은 마음이 지속되면서 아마 웃음으로써 꽃이 필 것입니다.

우리 중들이 목탁만 쳐서 중이 아니고 머리를 깎아서 중이 아니고 옷을 입어서 중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시간 나는 대로 자기 머리를 자기 채찍으로 치면서, 오늘도 자기 채찍으로 자기 머리를 쳤습니다. 자기 장삼 자락의 그 순색을, 그대로 검지도 않고 희지도 않은 중심과 중도와 중용을 그대로 실천화시키는 이런 보람 있는 오늘의 이 깊은, 진실된 마음을 그대로 반영하면서 여러분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앞으로 이 중들이 또다시 이 세상에 태어난다면, 태어난다 또 죽는다 이런 마음도 없이, 끝 간 데 없이 여러분의 심부름을 싫다 안 할 것입니다. 난 다짐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따라서 지속되기도 하고 반 길을 가다가 반 길에 끊어질 수도 있고 현실에 한 발짝도 내밀지 못한 채 끊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오계를 준 오늘, 내 책임도 있느니만큼 여러분 앞에 오늘 내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그렇게 여러분이 이 오계 받은 것이, 그리고 계첩을 받은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거짓이라면 여러분이 한번 지켜보세요. 이 부처님의 뜻이, 이 삼라만상 우주 세계, 이 세계가 말 없이 바로 말이 전달되고 손 없이 손이 온 누리에 꽉 차 있고 걸어 다님이 없이 그 평발을 어디고, 바로 부처님의 발은 한발로 디뎠습니다. 엄청난 이 도리를, 광대무변한 이 도리를 여러분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타의에서 구하는 것은 미신 짓이요, 자의에서 구하는 것은 진실한 정(定)에 드는 바로 참선입니다. 과거에 살던 그 마음, 참마음을 발견하는 옳은 길에, 정에 드는 길입니다. 내가 잠시 살다가 갈 것을 뭘 그렇게 욕심이 많아서, 잠시 낙엽과 같은 것을 그렇게 타의에서 나를 살려 달라고 구해야 되겠습니까? 인간이라면 자기의 마음도 꿋꿋한데 왜 남한테 빕니까? 왜 남한테 노예가 됩니까? 왜 만날 심부름꾼이 돼야 하고 왜 남한테 구걸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이 농사지어서 가을이면 추수를 해 들이고 봄이면 또 심어서 또 먹고 되남고, 어려운 사람들을 퍼 주기도 하고 그렇게 살지, 여여하고 부유하게 살지, 왜 마음을 가난하게 해서 그렇게 좁디좁은 골짜기에서 썩은 물이 고이게 만듭니까?

여러분도 못났든지 잘났든지 이 세상에 나온 보람이 있게, 당당하고 떳떳하게, 남의 노예가 될 게 아니라 자신이, 여북하면 자신(自神)이라고 그랬나요. 남의 신에다 빌 게 아니라 내 신에다가, 차라리 자기를 끌고 다니는 자기 신을 믿고 거기에 맡겨 놓고 거기서밖에 해결 못 한다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수억겁을 거쳐 오면서 쫓기고 쫓으면서, 그리고 밟히면서 이렇게 진화돼서 오늘날까지 인간의 탈을 쓰게끔 한 장본인의, 주처의 주인은 그렇게 여러분을 이끌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이끌어 온 장본인 참자기를 무시한다면 여러

☞ 22면으로 계속



망상이라고 끊으려 애쓰지 말고 그냥 그대로 놓고 들어가라

☞ 21면에서 계속

분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래서 옛날에도 부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했죠. 어떤 사람이 마누라 넷을 두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 놓은 부자인데 죽게 되니까 너무 원통하거든요. 첫 마누라한테 고했습니다. "내가 인제 죽게 되니까 마누라 당신, 나와 같이 갑시다." 하니까 "나는 당신하고 못 가오." 그러거든요. 둘째 마누라더러 또 "갑시다." 하니까 "나도 못 가오. 당신이 좋아했지 내가 당신을 좋아한 건 아니오. 당신이 나를 좋다고 쫓아다녔지 내가 좋아서 당신을 쫓아다닌 건 아니오." 하더랍니다. 당신하고는 영 못 가겠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또 셋째 마누라더러 가자고 했습니다. "내가 혼자 가기가 너무 쓸쓸하니 당신이 나와 같이 갑시다." 하니까 "나는 당신하고 같이 가되 묘지 앞에밖에는 못 가고 화장터 밖에는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하더랍니다. 그러니 또 쓸쓸해서 넷째 마누라더러 그랬습니다. "여보, 같이 갑시다." 하니까 "여보,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오? 수억겁 광년을 거치면서 당신과 나와는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일초도 떨어지지 않고 이날까지 살았거늘 올 때도 같이 왔고 갈 때도 같이 가지 그게 무슨 소리오?" 하더랍니다.

그게 누굽니까, 넷이. 첫째 마누라는 내 몸뚱이를 말한 것입니다. 둘째 마누라는 재산을 말한 겁니다. 셋째 마누라는 자식과 부인을 말했죠? 가족입니다. 넷째 마누라는 바로 자기 주인공입니다. 그러니 그거를 비유할 때 첫째 마누라, 그 자기 몸도 같이 가지 못한다 이거죠. 몸도 다 내버리고 갈 거예요. 여러분이 쓰다듬고 멋 내고 머리 빗고 목욕하고 바르고 이러던 이 몸뚱이도 같이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둘째, 돈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좋아서 병까지 들면서 쫓아다녀도, 돈이 말을 하기를 그랬거든요. "당신이 좋아서 쫓아다닌 거지 내가 좋아서 당신을 쫓아다닌 게 아닌데, 내가 당신을 어떻게 쫓아가겠소?" 가족들도 보세요. 가족들을 아무리 애지중지하고 기르고 내가 쓴 것을 먹고 단 거를 주고 내가 굶더라도 또 자식을 먹이고 이렇게 길렀는데도 데리고 갈 수 없어요. 같이 가 주지 못해요.

어저께 그랬죠? 살아서도 다섯 가지를 대신 못 해 준다고. 아무리 부모 자식 하더라도 대신 못 해 준다고. 또는 부부가 아무리 사랑한대도 대신 못 해 준다고. 그렇듯이 그 가족이 화장터나 묘지나 거기밖에는 못 가 준다는 거죠. 그것도 인연에 따라서 한데 합쳐서 짚단 모아서 이렇게 매 놓듯이 비가 오고 천둥이 몰아쳐도 서로 쓰러지지 말고 살자고 인연을 맺은 것이 바로 가족이죠. 그래, 그 가족도 쫓아갈 수 없으니, 바로 자기 주인공만이 이 세상을 같이 살고 자기를 형성시킨 장본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림을 그려서, 못나게 했든지 잘나게 했든지 자기 작품을 그려서 바로 자기 모습을 턱 형성시켜 놓고 자기가 그 속에 들어서 왈가왈부하면서 같이 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몸뚱이가 없으면 무효고, 분별이 없으면 목석이고, 생명이 없으면 아예 보이지도 않는 거죠. 그러니 또 무효죠. 그렇듯이 변소에 가도 같이 갈 수 있고 아파도 같이 아플 수 있고 또는 웃어도 같이 웃을 수 있고 사랑을 해도 언제나 일분일초도 떠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내 주인공밖엔 없는 것이죠, 늙으나 젊으나. 그냥 고독해도 같이 사랑할 수 있고 자비를 베풀 수 있고, 구경을 가도 같이 구경하고 올 수 있고, 똥을 누어도 같이 똥을 누고요. 허허허. 참 그런 사랑이라면 능히 할 수 있는 거죠.

한 철 살고 헤어질 거라면 그거 뭐 하러 한 철을 살겠습니까? 그래서 중들은요, 한 철 살 수 있는 인연들을 맺지 않으려고 다 버리고 이렇게 머리 깎고, 모두가 내가 되고 남이 하나도 없듯이 모든 걸 버리고 입산을 해서 모든 걸 얻어 가지고 하나도 버릴 게 없는 그 자체를, 그 능력을 중용을 해서 보이지 않는데 중생들이나 보이는 데 중생들이나 다 같이 한마음으로 건질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연비를 하면서도 자성본래불, 여기 이렇게 (등 뒤 액자를 가리키시며) 돼 있죠? 이거 잘 보세요. 그래서 옛날부터도 그랬지만 나 역시 이렇게 말하고 싶군요. 여러분한테 오늘 이렇게 오계를 설하면서 아주 진실하게 또는 거짓 없이, 저 애들이 지금 연비를 했는데 아주 돌아서서 중병을 앓지 않을 거라는 거, 이것만 해도 고마운 걸 말로 할 수 없는데 앞으로 그 인연으로 인해서 죽어도 문이, 천당 문이 훨쩍 열린다 이 소립니다. 청와대 들어갈 때 그냥, 그저 (가슴을 짚으시며) 여기 마크 하나 붙였으니까 인정을 받은 거 아닙니까. 들어가는 거야, 그냥. 문 닫고 들어오지 말라 이런 소리가 없거든. 그와 같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오계 받은 게 얼마나 중요하고 진실하고 참된 것인지 아실 겁니다. 삼계에 두루 하니 두루 하는 그 모습들이여. 영가들이여. 그 생명 그 자체가 영가들이 따로 없고 현재 생명들이 따로 없는 바로 도심으로서 여여하고, 생활이 실상이니 우리 한마음으로 뭉쳐 그 도리를 알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일체의 모든 것이, 여러분이 나왔으니까 여러분이 일거리가 있으면 용도에 따라서 닥치는 것을 다 한마음에다 놓고 '거기서 밖에 해결할 수 없다' 하는 믿음을 갖고 그렇게 사신다면 바로 우리 일상생활이 참선이요, 또 어저께가 없고 내일이 없는, 오늘의 앞뒤가 다 걸림 없이 뚫린 퉁소와 같이, 앞뒤 뚫린 대나무 퉁소와 같이, 그런 거와 같이 우리가 일상생활을 산다면 그것이 참선이요, 망상이라고 많이 끄달리고 모두 끊으려고 애를 쓰지 말고 그 망상이 바로 부처를 이루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서 끊지 않고 그대로 거기 놓고 들어가는 것이 열반의 참선이라. 열반의 길로 그냥 들어가는 코스라.

우리 마음은 체가 없어서 은산철벽도 없는 것이고 사방이 막힘도 없고 지붕도 막힘이 없고 모두가 뚫렸어. 사방이 툭 터졌으니 내 갈 길에 걸림이 있으며 내 가는 길에 막힘이 있으랴. 내 마음먹는 대로 내 마음은 거침없이 지구 바깥을 벗어나고 어느 혹성이라도 어느 풀풀 끓는 물 속에라도….

여러분! "물이 깊어서 나는 못 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몸뚱이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죽어도 그냥 그 의식이 남아 있어서, 이런 공부를 안 하면 그냥 남아 있어 가지곤 '아이고, 저 물에 빠져 죽으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못 건너가는 겁니다. 기독교에서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하죠? 부처님께서도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하죠? 강을 건너는 데도 내가 마음이 체가 없어서 한순간에 빛보다 더 빨리 건너갈 건데도 불구하고 살아생전에 그 의식과 그 참된 마음을 몰라서 그냥 그 의식대로 저 물에 빠져서 죽을까 봐 건너가질 못하는 거죠. 그 의식으로 사니까.

그리고 또 불 소용돌이가 있으면 건너가질 못해요. 그 속에 들어가질 못해. 왜냐하면 그 불 소용돌이가 있으니까 뜨거워서 거기 타 죽을까 봐 못 들어가거든. 그러니 부처님 세계를 맛볼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살아생전에 그곳을 그렇게 건너가지 못한다면 죽어선들 건너가리까? 그뿐입니까? 은산철벽이 막혀 있으면 그게 높고 두꺼워서 뚫질 못해서 못 간다는 겁니다. 살아생전에 그렇게 넘어가지 못하죠. 귀신들이 윽시글득시글하고 독사가 윽시글득시글한데 잡아먹힐까 봐 또 못 갑니다. 허허허. 그러니 그것만 보더라도 네 군데를 다 그냥 못 건너가죠? 살아서 그렇게 못 건너가죠? 청와대도 그렇게 못 들어가게 해서 못 들어가죠. 그게 의식적으로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내 마음에 체가 없는데 뭐 때문에 강을 못 건너가느냐. 불을 못 지나가느냐. 독사가 있는 데를 왜 못 가느냐. 은산철벽을 왜 못 가느냐.' 이걸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난 여러분한테 연습시키는 거예요. 죽어도 거기에 걸리지 않게요. 이렇게 하나하나가, 진실하게 걸어가는 이 참사람의 참뜻을 여러분은 아셔야 하고 자유인의 길이라는 것이 그렇게 소중하다는 거를 아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넉넉하고 지혜 있고 다 물리가 터져서, 마음으로 창살 없는 감옥을 만들어 놓고 헤매다가도 그 감옥을 그냥 툭 쳐 버리고 한 찰나에 나서는 그런 당당한 여러분이 되시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 연비를 하고 이렇게 오계를 여러분한테 설했는데 오늘 그렇게 연비를 하고 오계를 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하려고 그래도 업이 많아서 두꺼우면 물리가 터지질 않아. 아둔해. 아둔해서 철겹이 됐어. 그러니 그것이 얼른 뚫어지기가 쉬우랴 이겁니다. '그 철겹을 한 그 업이 이 공부를 계속해 나가다 보면 어느 때인가는 그냥 뚫려서 그냥 통과 통과 하게끔 할 수만 있다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연비 받는 분들에게 그냥 그렇게 내린 겁니다. 언젠가는 가볍게 터질 겁니다.

우리가 한마음으로 뭉쳐서 돌아갈 때는…. 여러분, 옛날에 유교에서도 이런 말을 했죠. 막대기를 한 줌 해 오라고 그랬습니다. 막대기를 같이 한 줌을 쥐고 꺾어 보니까 안 꺾어지거든요. 회초리 하나를 가지고 꺾는 데는 금방 꺾입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이 두루 하는 마음으로, 포괄적인 마음으로 한마음이 된다면 절대로 누가 꺾고 들어올 수가 없는 집입니다. 그러니 자기 개별적인 마음을 가지고 '어허, 내 주인공 찾으랬으니까 나 하나….' 요것만 생각하지 마시라 이겁니다. 왜냐? 포괄적인 전체 우주 삼라대천세계의 근본이 인간의 마음에 있으며 태양의 근본도 인간의 마음의 근본이니라. 이 세상의 대지, 산하대지의 근본도 바로 마음의 근본이니라. 이 뜻을 여러분이 왜 배웠습니까? 이거를 알면서도 실천을 못 하는 거야 어쩌겠습니까?

그러니 여기서 밝게 켜는 그 장본인의 자가발전소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지 딴 데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구의 주인은 여러분이고, 또 그 지구는 우리의 집입니다. 그 집과 주인과 둘이 아닌 까닭에 지구에서도 대기권이 있고, 나쁜 거는 레이더망이 막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도 개발되어 알게 되고, 천문학으로써 그걸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죠. 인간에게도, 이 허공에 오고 가는 그 길에도 그저 모습 없는 모습, 생명들이 꽉 차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내면세계에 그 많은 내 생명들, 내 모습, 내 의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저항력을 가지고서 밀 건 밀고 당길 건 당기고 그래서 이것을 바로 정리하고 다니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죠. 자력이 있기 때문에 이 발바닥이 이 땅에 붙고요. 붙어서 걸어 다닐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네 가지의 그 재료는, 어저께도 얘기했죠? 광력이나 전력, 자력, 통신력이 우리한테는 그것이 적게 쓰이든지 많이 쓰이든지 그게 재료라고요. 그 네 가지를 끌 수 있고 내놓을 수 있는 그 자력의 재료를 그냥 여기 모두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두서없이 말은 했지만 여러분이 살림살이도 두서없이, 체계 없이 체계를 세우면서 살아나가는 것이 여러분의 실상이며 살림살입니다. 금방 가만히 앉았다가도 금방 얘기를 듣고선 뛰어나가야 하는 이런 그 체계 없는 살림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정연하게 체계가 서 있는 이 살림살이. 그래서 도둑이 말입니다, 지키는 사람, 물건 가지고 싣고 가는 사람, 훔치는 사람 이게 다 도둑놈으로 몰려 가지곤 전부 붙잡혀 가더군요. 그러니 계 준 사람이나 계 받은 사람이나, 허허허, 그 뜻을 바로 설하는 그 법설! 그것이 한데 떨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장땡입니다. 그러나 학설로 이론적으로 방편으로만 하는 이 오계 설법은 한데로 떨어져서 땅에 떨어진다 이겁니다. 우리가 마음의 도리를 공부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런 공덕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여북하면 달마 대사가 양 무제더러 공덕이 하나도 없다고 해 놓고는 그냥 약사발을 받았겠습니까.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90년 12월 9일 국내지원 법회 법문의 일부를 정리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한테 계를 설한 것을
나는 주는 사이 없이 주었으니 여러분도 받는 사이 없이 받아서
오직 뜻으로 간직하면서 그것을 허탈히 생각하지 마십시오.

해양심층수 100%로 만든 청정, 안심 건강소금
MQ해양高미네랄로 가족건강을 지키자!



엠큐 해양 高 미네랄 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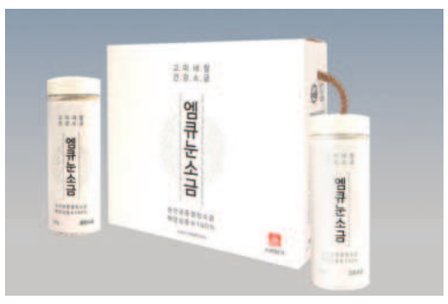


MQ해양고미네랄은..
– 강원도 고성에서 100% 해양심층수로 탄생한 고미네랄 소금
– 해양심층수의 모든 미네랄을 담은 MQ해양고미네랄
– 일반 정제염 대비 마그네슘 380배, 칼슘32배, 칼륨 49배 등 풍부한 미네랄 함유
– 일반 정제염 대비 나트륨이 23% 이상 적은 저나트륨(염도75%) 소금
– 한포(3g)를 물(500ml)에 타서 마시면 경도 1,000이상의 고미네랄 워터로 변신하는 미네랄 워터용 소금

제품구성 MQ해양 고미네랄 스틱 2박스 (31포 x 2박스) + MQ해양 고미네랄 1병

특별보급가 75,000원

엠큐 눈소금 세트



매일매일 건강에 도움을 주는 필수 미네랄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엠큐눈소금, 매일 모든 음식에 넣어 먹는 소금을 바꿔 건강을 지키자!
해양심층수 이외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았습니다. 해양심층수 100%를 사용하고, 순간공중결제염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소금 엠큐눈소금은 요리의 맛을 살려주고 건강을 드립니다. 엠큐눈소금으로 온가족의 맛있는 식사와 건강을 지키세요.

제품구성 고운소금 150g x 2EA + 굵은소금 125g x 1EA = 425g

특별보급가 52,000원

김오곤원장의 엠큐 해양 高 미네랄 침향





세계 3대 향중의 하나로 불리는 그 귀한 침향,
김오곤한의사의 배합기술로 엠큐눈소금과 만나 엠큐해양고미네랄 침향으로 탄생

– 건강을 한번 더 생각하고 만든 미네랄과 침향제품으로 성분과 맛이 입증
– 김오곤한의사의 엄선한 배합 기술을 토대로 탄생한 한방과 과학이 어우러진 제품
– 낮은 염도, 고미네랄 그리고 침향이 한 포 한 포에 들어 있는 제품
– 순간공중결정제염기술, 깨끗한 미네랄의 참 맛, 침향의 건강한 향과 맛까지 포함한 신개념 제품
– 한 포 (3g)을 물 500mL에 타면 맛있는 고미네랄 침향 워터로 황홀한 변신

제품구성 279g (3g x 93포) / 원재료 : 소금 93% (해양심층수 100%), 침향 7% (인도네시아 수입산)

특별보급가 125,000원

※**순간공중결정제염기술이란?** 해양심층수를 미세한 안개 상태로 쪼개어 공기중에 분사한 후, 열풍을 불어 넣어 수분을 순간적으로 증발시키는 기술로 이렇게 해서 해양심층수의 수분을 제외한 모든 미네랄을 소금에 포함시키고, 눈처럼 아래로 떨러뜨려서 소금을 제조하는 기술

구입처 :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문의 : Tel 1688-9099 입금계좌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현불논단

한국불교학회 50주년에 부쳐



백도수
능인대학원대학 교수
한국불교학회장

한국불교학회 창립 50주년 행사
사부대중의 후원 · 참여로 회향
무엇을 했고 앞으로 할지 고민
다음 세대 위해 어깨 내밀어야

한국 · 세계서 어떤 평가 받는가
욕심 부린 건 없는지도 돌아봐
부족함 인정해 앞으로 나아가야
새로운 길 · 방향 모색할 수 있다

지난 11월 3일과 4일 동국대학교에서 한국불교학회 창립 50주년 국제학술대회를 진행했다. 사부대중의 후원과 참여로 원만히 회향했다. 단풍처럼 물들은 눈물로 모두에게 감사드리고 싶다. 그런데 문득 스치는 생각이 나를 깨운다. 불교학회는 정말 부처님 가르침을 토대로 한 학회인가? 5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다시 학회의 본모습을 진단할 기회가 있을까? 이제는 원래의 목적에 맞는 학회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반추해보아야 할 때다. 한국불교학회! 한국인의, 한국인에 의한, 한국인을 위한 불교학회가 되기 위해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불교학자로서 우리는 불교학의 좋은 연구내용을 다음 세대에 넘겨주고 이어가게 하며 그릇된 연구내용을 버리거나 좋은 연구를 위한 반성의 실마리로 삼아야 한다. 내일이 오늘보다 더 낫도록, 다음 세대가 우리의 어깨를 딛고 더 높은 곳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어깨를 내미는 것을 수고스럽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 50년의 가치를 이어간 한 단체 이야기는 2600년간 부처님 가르침을 이어간 승가의 역사에 비하면 손톱 위의 흙덩이만큼이나 보잘 것 없는 것임에 틀림없다. 그래도 50년간 한국불교학회라는 단체에는 열정과 질곡, 다양한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불교학자 대중이 함께하는 곳이기에 희노애락의 이야기가 가득했을 것이다. 5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런 것을 당연히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다. 물이 따뜻하든 차갑든, 깨끗하든 더럽든 강물에 품고 바다로 가듯 한국불교학회도 지난 50년 그렇게 흘러갔다. 지금도 모든 대소사를 학회에 품고 흘러가고 있을 것이다.

필자가 독일 프라이부르크 유학 중 범어 기초를 세 번이나 반복해 들었을 때 지도교수 폰 힌위버가 물었다. "왜 세 번씩이나 들었는가?" 이에 필자는 "처음에는 몰라서 이해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이해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한국에서 가르치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위 대답을 우리의 문제에 연결지어 보자. 부처님 제자로서 우리는 과연 이해하기 위한 단계, 확신하는 단계, 가르치는 단계 중에 어디에 머물고 있는 것인가? 사실대로의 수준을 진단하고 인정하는 것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시발점이 될 것이다. 지금 우리는 자신의 입장을 바르게 알아 불교학적 위치를 과대포장하거나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하여 자신의 불교학 연구내용을 바르게 파악하고 이해하며, 확인하고, 바르게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

한국불교학회는 한국의 여러 학회 중에 어느 라인에 자리 잡고 있는가? 세계의 불교학회들 가운데 어디에 자리하고 있을까? 한국불자, 세계불자에게서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아야 한다.

율장에 따르면, 비구나 비구니가 깨달음의 위치에 대한 거짓말을 하면 대망어바라이로 승가에서 추방된다. 율장의 내용을 되새기면, 개인이나 불교단체가 학문연구와 수행실천에 대해 속임수를 쓰는 일을 멀리하고 사실대로 밝히는 일은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가장 기초적인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 세상에 몸을 받아 부처님께 담보로 맡긴 지 30년, 필자는 학자로서도 학문이 소천하고 수행자로서도 수행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낄 뿐이다. 우리는 마음 현미경으로 누구의 잘못이나 원망을 찾아내기 위해 자세히 들여다보는 일을 접어두고 함께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어야 한다. 한국불교학회도 사실대로 그렇구나 하고 알고 새로운 길을 향해 방향을 찾아나서길 기대한다. 이제 새로운 50년을 확고한 연구와 수행으로 매듭지을 시기가 기다리고 있다. 그 몫은 바로 우리에게, 우리 불자에게, 우리 연구자에게 달려 있다.

社 說

오대산 사고본 환지본처 환영한다

조선왕조실록 · 왕실의궤 오대산 사고본이 본래 자리로 돌아갔다. 11월 10일에는 실록과 의궤를 오대산으로 옮기는 이운행렬 재연행사가 진행됐고, 11일에는 고유제가 봉행됐다. 이 같은 기념행사를 거쳐 이운된 오대산 사고본은 새롭게 조성된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실록박물관)'에서 만날 수 있다.

실록박물관은 월정사가 운영하던 왕조실록 · 의궤박물관을 새 단장한 것으로, 조계종과 월정사는 오대산 사고본의 환지본처를 위해 이를 국가에 기증했다.

기실 오대산 사고본 환수운동의 중심에는 불교가 있었다. 지난 2006년 3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출범한 조선왕조실록 환수위원회의 공동의장으로는 정념 스님과 철안 스님이 맡았고, 당시 총무원장이었던 자승 스님이 고문으로 활동했다.

이후 이어진 의궤 환수와 오대산 환지본처를 위한 범도민운동의 중심에는 불교가 있었다. 이는 월정사가 역사적으로 오대산 사고를 지켰던 수호사찰이었고, 그 정신을 지금의 후학들이 이어가고 있어서다.

오대산 사고가 1606년 조성될 당시 월정사 주지는 수호총섭으로 임명됐고, 사고는 승군 20명이 주둔하며 지켰다. 환수운동의 산증인인 정념 스님(월정사 주지)이 밝힌 "일본으로부터 실록과 의궤를 찾아오고, 오대산으로 환지본처시키는 일은 월정사의 의무였다"는 말은 조금도 지나침이 없다.

오대산 사고본은 110년만에 제자리를 찾으며 "그 영혼과 역사가 회복"됐다. 이제는 결집된 지역의 역량과 원력을 바탕으로 잘 보존 · 활용해야 한다. 나아가 지방소멸을 극복할 수 있는 문화자산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불교, 시민, 지자체가 다방면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세계평화 실천할 불교적 방안 고민을

오랜만에 한국과 중국, 일본의 불교가 '황금유대'를 확인했다. 코로나19로 인해 4년간 순연됐던 '한중일 불교우호교류회의'가 서울 봉은사 일원에서 개최됐기 때문이다.

이날 한 · 중 · 일 불교도들은 각국 전통방식으로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예불을 부처님전에 올렸다. 또한 삼국의 불교도들은 "새로운 시대에 불교도로서 부처님 가르침을 더욱 받들고 황금 유대 관계를 계승해 인류 행복, 세계평화 구축에 기여하자"고 다짐하기도 했다.

'4차 산업시대 불법홍포를 위한 불교도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국제학술강연회에서는 일본이 개발한 불교 관련 챗봇 '붓다봇'의 의미와 한계, 불교도의 역할 등을 짚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특히 해인사 승가대학장 보일 스님은 4차 산업시대 불교도의 역할로 윤리적 문제 해소를 꼽고 "과학기술 개발이 초래하는 수많은 윤리적 문제는 수행을 통한 공성의 자각과 자비심의 발현에서부터 치유가 시작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3국 불교계는 대회 마지막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불살생 가르침에 따라 어떠한 전쟁도 반대하며 모두가 공생하는 지구촌 건설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다만, 항상 지적돼 왔던 것처럼 3국의 불교가 제시하는 공동선언과 교류들이 선언적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현재 러시아-우크라이나 ·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어느 때보다 3국의 불교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했어야 하지만, 공동선언문에서 그 고민을 찾아보기는 어려웠다. 2024년 일본에서 열리는 대회에서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담긴 교류가 이뤄지길 기대해본다.



지원 스님의
마음처방전

자존감 높이기

자존감은 자아존중감을 줄인 말입니다.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이고 어떤 성과를 이루어낼 만한 유능한 사람이라고 믿는 마음입니다. 자존감은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긍정' 하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을 두고 '천상천하 유아독존(天上天下 唯我獨尊)'이라고 합니다. 모든 생명 있는 존재는 소중하고, 고귀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독불장군처럼 자기만을 내세우거나 최고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이 세상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유일한 존재요, 고귀한 존재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자존감이 많이 상실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자신을 스스로 패배자로 만들어 자살한다거나 우울증에 빠지는 사람도 많습니다.

절대 스스로 패배의식을 갖지 마십시오. 명예와 학력, 경제력은 단순히 외형적인 모습입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상대와 비교하는 습관을 버리는 것도 행복의 요인입니다.

나를 포함해 모든 사람은 고귀한 존재인데, 그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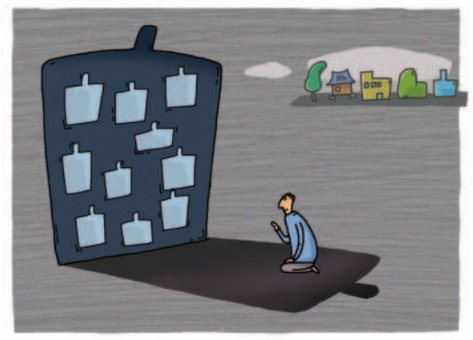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외부적인 형상에 비교할 필요가 없지요. 그리고 비교 당할 이유도 없습니다.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자존감을 잃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그 자체만으로 고귀한 존재입니다. 자신 스스로 자존감을 허물지 마세요.

불교에서는 누구나 다 부처가 될 부처 성품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부처 성품 즉 불성(佛性)이지요. 부처님처럼 훌륭하게 될 수 있는 성품의 소유자인데, 왜 겉치레로 마음에 상처를 받고 자존감을 잃어야 합니까? 내가 왜 소중한 존재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우리 인간은 아름다운 풍광을 보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가족을 비롯하여 사람들과 인연을 맺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누가'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름다움을 보고 느끼고 오감으로 경험하는 그 순간은 오롯이 '나'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나' 없이 존재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인생은 연습이 없습니다. 오직 단 한번 밖에 주어지지 않는 일회성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은 고귀한 것입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은 모두 각자가 고귀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을 소중한 존재라고 여긴다면, 타인도 그만큼 소중한 존재임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상대를 존중하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상대가 있는 것이고, 상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나의 존재감도 빛날 수 있는 겁니다.

〈육지장사 회주〉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솔 스님 대표이사 : 혜도 스님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04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길과 내가 하나가 된다!"
行禪 전문 신발
수행화
■ 발을 통해 자연이 온몸으로 느껴져 행선에 적합합니다.
■ 천연 지압 효과를 통해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 발 볼이 넓어 다른 신발 대비 발가락 움직임이 편합니다.
■ 승복과 일치하는 색상으로 언제 어디서나 부담이 없습니다.

New
캔바스 수행화
· 색 상 : 멜란지그레이 · 사이즈 : 233~280mm
· 특 징 : 발 볼과 발등이 넓은 편안한 맨발같은 신발 밑창은 짙은 회색으로하여 위, 아래 조화를 추구하여 제작한 수행화
· 소 재 : 캔바스 (내부에 고무로 내피를 덧되 방풍, 방수가 되는 4계절용)



절찬 판매중!!



그레이화이트 그레이블랙

특판가 : 45,000원 (무료배송)
(사은품 : 무압박 양말 증정)

· 색 상 : 그레이화이트 (밑창 흰색) · 사이즈 : 233~287mm
그레이블랙 (밑창 검정색)
· 특 징 : 발 볼 부터 뒷굼치까지 제로드롭 형태
밑창 두께 3mm. 맨발에 가까운 베어풋 디자인
· 소 재 : 캔바스 (내피없는 시원한 재질)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개정판



대행선사 법훈록 **그냥 목조건이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르치신

대행스님 법음의 정수!

"업이 있다 없다 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에, 오늘 그걸 알아내면
과거부터 끌고 오던 그 업은 순식간에
봄이 오면 눈 녹듯이 다 사라져버리니까 말입니다.
과거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이 문제입니다
내일도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지금, 오늘이 문제입니다."

-본문 중에서-

"실생활에서 자기 마음 관觀하는 것을 일러줘서
자기 나무가 자기 뿌리를 믿고 찾을 줄만 안다면
그것은 보배를 찾아주는 것이나 같습니다."

규격 신국판 (154*200) 페이지 232쪽 출판사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정가 15,000원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 큰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성을 이름하여 한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마음이 곧 그 열쇠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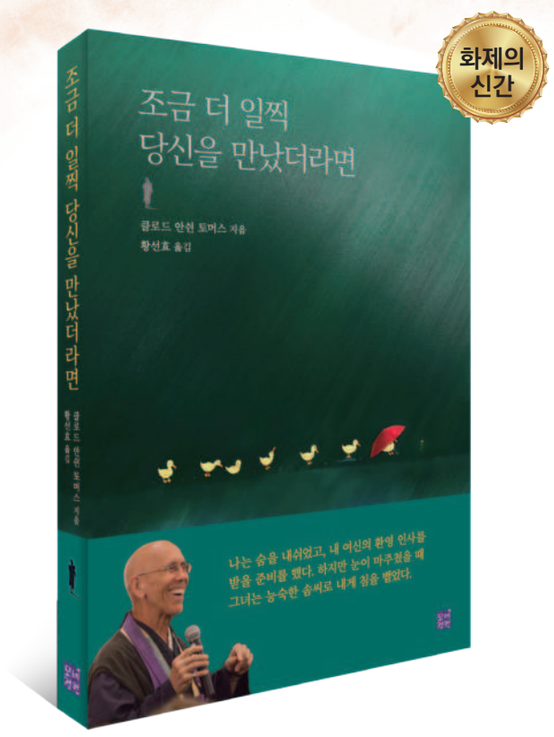
- 본문 중에서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클로드 안쉰 토머스 지음 / 황선효 번역 / 232쪽

전쟁에서 사람을 죽였다고 고백하는 한 전쟁 영웅이
지옥 같은 트라우마 끝에 얻어낸 삶과 고통에 대한 실증적 깨달음의 책

고통을 삶의 또 다른 기회로 만든 사람의 이야기

조금 더 일찍 당신을 만났더라면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치유를 향해 간다.

세상은 우리에게 고통은 적이라고 가르친다.
우리는 불쾌하고 실망스럽고 힘든 것은 거부하라고 끊임없이 주입받는다.
"이 모든 고통이 왜 필요한가? 행복하자! 즐기자!" 하지만 고통은 우리의 적이 아니다.
건너편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다.
반대편의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진정으로 알고 느낄 수 있는 것은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이다.



지은이 **클로드 안쉰 토머스**

10대 후반의 어린 나이로 베트남 전쟁에 파병되어
항공훈장과 공군수훈십자훈장을 비롯한
수많은 훈장과 상을 받은 전쟁 영웅이다.
전쟁에 대한 심각한 트라우마로 죽음 직전까지 갔던
그는 비영리 기구인 'Zaltho Foundation'을 창립해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각 곳에서 평화와
비폭력에 대한 강연 및 순례 활동을 하는
명상수행자로 거듭났다.

모네의정원 정가 ~~14,000~~원 ⇨ **12,600원** (배송비 별도)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